



10

198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10호

(루계 408)



◆◆◆◆◆◆◆◆ 차 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정령.....	4
축하문	5
어머니	7
간석지시초	8
고마워라 당이여	11
력사의 빛발	12
어머니당	13
그날저녁의 이야기	14
불멸의 기념비	15
흙모의 마음은 물결이 되어... ..	16
배길	17
내가 가는 길.....	25
그대는 은혜로운 품이기에	26
금수산모란봉.....	27
연구사와 녀기사	30
영원한 불빛	40
일 잘하는 용접공총각.....	41

동트는 언제우에서	42
멀어질수록 가까운 사람	56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58
초연속의 진달래	61
태양의 품을 찾아 도도히 굽이치는 장엄한 혁명의 흐름	69
조국의 새 기슭에	72
장편소설 《평양성사람들》	73
올해에도 주체농사 장훈불렀네	74
관동별곡	75
사령관동지와 전사들간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77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문예출판사에 국기훈장제 1 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충성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편집출판함으로써 주체적인 문예상과 문예방침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한 문예출판사에 그의 창립 35돐에 즈음하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81 년 9 월 4 일

평 양 시

축 하 문

문예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문예출판사창립 35돐에 즈음하여 당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혁명적문예방침을 구현하여 우리의 문학예술발전과 대중교양에 이바지한 전체 기자, 편집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몸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주체적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어 1946년 9월 2일 새 조선의 첫 문예출판기관으로 문화전선사를 세워주시였으며 그것을 종합적인 문예출판기지인 문예출판사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문예출판사는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문예출판사는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품모와 탁월한 업적을 형상한 혁명적 문예작품출판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그를 훌륭히 보장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문예출판사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문학예술작품들을 비롯하여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문예작품들을 수많은 편집출판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춘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며 우리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문예출판사는 언제나 당적, 혁명적 원칙에 확고히 서서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문학예술분야에서 당이 이룩한 귀중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당의 향도따라 혁명적인 출판활동을 벌려오는 과정에 문예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은 당의 충직한 문필전사로 자라났으며 문예출판사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예출판물을 편집발간하는 위력한 기지로 발전하였다.

지난 기간 문예출판사가 이룩한 모든 성과는 일찌기 독창적인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문학예술출판사업을 옹바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주체적인 문화예술건설을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여온 전체 기자, 편집원들의 헌신적투쟁의 고귀한 열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서른다섯해동안 문예출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문학예술작품 편집발간사업을 훌륭히 보장하여 문학예술발전과 우리 혁명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으며 여기에서 문예 출판사는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입니다.》

당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예 작품출판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문예출판사의 영예롭고 책임적인 임무이다.

문예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 우리 당의 빛나는 투쟁력사와 투쟁업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편집발간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 하는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당과 수령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 도록 하여야 한다.

문예출판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에이 바지할 작품들, 우리 당이 키워낸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인 숨은 영웅들과 혁신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편집발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앞 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문예출판사가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출판사업의직 접적담당자인 기자, 편집원들이 정치실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문예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은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열렬한 혁명전사로, 높은 정치적식견과 문필기량을 소유한 유능한 문필활동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혁명하는 시대의 출판일군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문예출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이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문예출판물발간사업에 몸바쳐나섬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1년 9월 7일

어머니

김 철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잇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니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굽어보나니

그 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 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য়ে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인류력사 백만년에 수억만의 어머니들이
그리도 애달프게 기원하던 아침이
오직 그대의 예지 그대의 신념
그대 필승불패의 향도를 따라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응석과 어리광만으로야 어찌
그대 사려깊은 눈빛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য়ে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지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시초

간석지시초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백의선

풍년이삭 고개속인
간석지 새 벌
들국화 피는 동쪽길로
우리 수령님 오시면

내 마음
백리제방길에 퍼고
내 정성
그윽한 벼향기에 담아
걸음마다 기쁨을 드리고싶어라

하늘가에 펴터이는 돌격대기발우로
아침해 솟을 때도 그 하나의 생각
밤깊어 천막가에 우등불 탈 때에도
마음속에 타오르는건 그 간절한 마음

멀리 저 멀리
도요새무리 날아오는 저 한끝은
수령님 즐편한 감탕길 걸으시며
로고의 깊은 자욱 남기신곳

멀리 또 멀리
수평선 저 너머엔
비바람 막아드린 한겹의 우산마저
수수한 설계도우에 받쳐주신 섬기습
아 바다도 그 감격에 설레이는가

사랑의 그 우산아래

잠자던 대지가 벅찬 숨결 터뜨리고
짙물만 밀려들던 거칠은 땅우에
영원한 삶의 향기 넘쳐흘러라
백두의 별밑에서는
꿈 많은 대원들의 맑은 눈동자에
조국의 미래를 담아 새겨주시고
불바람 몰아치던 전화의 나날에는
승리의 봄날속에 그려주신 간석지

수령님의 그 사랑에 받들려
한돌기 두돌기 제방은 높아지고
수령님의 그 사랑 넘쳐
백리벌 천리벌이 펼쳐지거니

서해의 굽이굽이
조국의 해안선은 다 헤아릴수 있어도
미래의 기슭으로 끝없이 이어진
사랑의 해안선은 아득히 멀구나

행복하여라
축복받은 대지를 받아안은 미래여
험한 감탕길도 수령님 앞서 걸으시고
모진 해풍도 수령님 다 막아주셨기에
봄이면 가장 따스한 봄이 깃들리
가을이면 영원한 풍년이 설레이리

어데선가 이삭의 숨결 들려오는듯
어데선가 오희의 향기 실려오는듯

아 다시 오시면
우리의 충성을 피여놓은 제방길로
어버이수령님 다시 오시면

저 수평선 한끝까지 금나락 펼쳐
한없는 기쁨을 드리고싶어라

간석지 천리벌
이삭들의 끝없는 노래를 들으시며

기쁘시여 아 기쁘시여
수령님 잠시라도 로고를 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어

우등불

황승명

하루해는 뉘엿뉘엿 바다우에 저물고
별들이 내려앉아 춤을 추는 밤
철썩이는 기슭에 타오른다
우등불
우등불

나서자란 고향은 서로 달라도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로 불타는가
바다우에 솟아날 새땅을 그려보는
청춘의 열정이 얼굴마다 어렸구나

파도와 싸우며 우정을 맺었고
바다를 밀어내며 조국을 알았네
어깨걸고 안아올린 간석지 그 한줌 흙이
나의 살결과 같이 소중한

이 밤이 지새면 우등불은 스러지고
재들은 파도에 떠밀려가리
흐르는 세월속에 이 우등불자리
기억할 사람 그 몇이라

허나 이 밤의 우등불빛은
설레이는 만풍의 금빛으로 번져가고
새로 일떠선 간석지마을

조국의 새 해안선을 그리는
아이들의 그 눈빛에 기쁨으로 빛나리

그날의 그 기쁨을 노래하며
설레이는 갈숲에서 밤새들은 우짚고
머리우에 둥근달도 뜨겁게 속삭이는가
불무지가에 흐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울려라 손풍금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환희와 랑만을 선물에 담아
우리함께 부르고 또 부르자

웃음과 노래 없이야
사나운 바다를 길들일수 있으랴
가슴속에 뜨거운 불이 없이야
밀려드는 성에장을 녹이며
가없는 천리벌을 펼칠수 있으랴

이제 썰물이 지면 개꼬막이전투
아 눈을 감으면 잠이 오랴
당이 준 심장은 불타랴
철썩이는 기슭에 타오르는 우등불
우리의 가슴에도 타오르는 우등불

란 생

로승모

동무여 우리는 썼구나
마지막제방을 쌓아가는 여기
모든것이 소리치며
모든것이 용쓰는

간석지전투장
성미 사나운 서해
검푸른 파도는 삼킬듯 달려들고

하늘도 바다편이라고
장검같은 번개를 내려쫓으며
억수로 퍼붓는 비줄기 비줄기

벌써 몇밤을 지새였느냐
날이 새자 파도는 밀려가고
아득한 지평선이 솟는 해를 반기며 펼쳐졌구나
새땅이 태어나고
등근해 솟아오르는 이 아침
제방우에 모여앉아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때없이 날아든 희한한 소식
누군가 간밤에 첫아들을 보았다는
반가운 이야기

이 얼마나 어울리는 기쁨이런가

잠들줄 모르는 조국이여
그대 미소지으며
태어나는 미래를

뜨겁게 뜨겁게 지켜보고있으리니

축복받은 삶이여
바다는 제방을 치며
억만구슬을 뿌리고
아름다운 바다새
무리지어 창공으로 날아오른다

펼쳐지는 새땅에 이름을 지어주며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름을 달아주며
아 간석지 천리벌에 날마다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밝아온다

해당화

한원희

해당화 해당화
바다가에 피는 꽃
송이송이 진한 향기
정을 담아 웃는 꽃

저 멀리 바다를 밀어내고
백리제방 쌓으니
넓은 땅 한가운데
홀로 남아 피었구나

보금자리 옮기며 떠나는 처녀총각
가던 걸음 멈추고 속삭이었네
꽃을 어이 두고 갈가
새로 쌓은 동쪽에 옮겨심자요

아 어이 알리
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바다를 길들이며 맺은 정
그 마음 담아 너 붉게 핀것을

바다기슭 떠나서야
그 무슨 해당화라
간석지를 떠나서야
그 무슨 청춘이라

끝없이 뻗어가는 새 동쪽에
또다시 또다시 너를 옮겨가리니
해당화는 바다가에 뿌리내리고
청춘들은 새땅우에 뿌리내리리
아 해당화 해당화!

우리는 가리라 새 기슭으로

한기운

우리는 떠나왔다
당의 부름안고
아득한 제방으로 파도를 길들인

저 달섬기슭을
우리는 달려왔다

또다시 물으로 솟아날 새 구역
이 무인도기슭에
당의 설계도를 펼치며
아 해돋이 아름다운 아침
가슴후련히 수평선을 바라보니
얼마나 황홀히 안겨오는것인가
당중앙의 손길아래 솟아나는
영원한 행복의 기슭
가없는 새땅이

앞에는 거칠은 난바다
억년묵은 감탕밭
내어딘는 걸음 험치 않아도
당이 부어준 열정
가슴에 넘치거니

섬과 섬을 이어놓으며
우리 멀리도 왔건만
가야 할 그끝은 어디냐
사랑의 해빛 비쳐가는 저 수평선 바라보니
아직도 첫 기슭에 서있는듯

아 멀리 두고온 고향도시
해빛밝은 거리거리에서
사람들 걸음걸음
유원지와 극장으로 걸어갈
이 즐거운 시각

가사

받아온 그 은정 바다이라면
바치는 내 충성은 작은 물방울
갈수록 더 큰 은덕 받아안으며
이 마음 샘물처럼 맑게 흐르리
아 고마워라 당이여 당이여

그대는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
이 몸은 한송이 해바라기꽃
그 해발아래서 자라난 청춘

우리는 간다
천막자리 옮겨가며
전변하는 새땅
화려한 거리와 꽃피는 마을
황금물결 설레일 미래의 새 구역으로

바다밑에 잠자던 30 만정보
새 황금벌을 천리에 펼쳐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우리 당의 그 마음 그 의지
우리 지녔기에

사나운 바다를 막아도
가슴은 랑만으로 넘치고
파도는 물보라 날리어도
머리우엔 노을이 붉게 탄다

기슭에서 기슭으로
떠나고 또다시 떠나가며
당의 해발 가슴에 안고사는
우리는 간석지건설자

우리는 가리라
풍랑 세찬 바다와 싸우며
가고 또 가리라
우리 당의 손길아래
태어나고 솟아나고 넓어지는
조국땅 그 한끝까지

고마워라 당이여

김정춘

모든 행복 누리여 부럼 모르네
아 고마워라 당이여 당이여

내 미처 모르는 그 순간에도
가슴에 흘러드네 어머니 사랑
바치는 한마음 만대를 이어
그대의 위업을 받들어가리
아 고마워라 당이여 당이여

력사의 빛발

김시권

내 태어나
처음으로 안긴 요람이어서
세월이 갈수록 가까와지는것인가
따사로이 품어주며
처음으로 정겹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같아 못잊는것인가

날새마저 깃을 잃고
연기에 덮인 하늘에 울며 날아예던 때
내 태어난 불우한 그 세월에
등불이 타오르던 화전의 수수한 방안
어둡던 조국의 하늘을 밝히며
내 밝은 눈을 비쳐준 불빛이여

울보채는 나에게
메마른 젖꼭지를 물려주며
내 어머니 말없이 눈물흘리던 날
가물거리는 등불아래 한자 한자
《ㄷ. ㄷ》의 강령을 새겨가신 위대한 수령님
근엄하신 안광에 내 앞길도 비껴있었나니

모든것이 그 불빛에 어려있었어라
시들어가는 숲에 꽃들이 만발하는 강산
이 나라 어머니들의 얼굴에 피는 웃음과
오늘에 내가 누리는 이 복된 삶이
그날의 수령님 구상속에 새겨졌어라
우리 당 첫걸음을 그 불빛으로 밝히셨기에

그 불빛
황혼이 내려덮이는 광야
귀틀집에서 《조선의 별》을 노래부르던
열혈청년들의 눈빛에 타올랐고
대원들 깊이 잠든 백두밀영의 밤
사령부 창문너머 새벽하늘에 비쳤어라

숨져가던 겨레의 녀에 숨결을 주고
깃잡혀 몸부림치던 조국의 가슴에
고동치는 심장을 준 불빛이여
화선천리와 홀날리는 재더미를 헤치며

당의 빛발로 혁명의 초행길을 밝혀준 불빛이여
이 세상 처음 주체의 해불을 지핀 력사의 빛발
이여

오 그날에 타오른 한점의 불빛이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긴
위대한 당의 기발로 펼쳐져
내 품고있는 당원증도
붉은 빛으로 뜨거이 안겨있는것이여라
어머니 줄수 없던 영생의 삶을 주며-

그때문이 아니던가
어제날 태어난 내 운명을 두고
한숨짓던 어머니
당원이 된 나를 대견히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어린 눈으로 반겨맞아준것은
내 또한 내 아들을 오늘에 그렇게 바라보는것은-

그렇더라, 반세기도 넘는 그날에
한점의 불빛을 비쳐주며
나를
내 어머니를
우리모두를
오늘의 참다운 삶으로 이끌어준 빛발

아, 《ㄷ.ㄷ》의 그 빛발
울창한 백두의 밀림속을 흘러
오늘의 저 당중앙창가에 빛나라
해빛밝은 강산
황금빛 들판과 숲처럼 철타들이 설레이는
조국의 오늘에 먼 앞날을 가까이 밝혀주며

찬란한 빛발이여
세월과 세월을 넘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위업
대를 이어 꽃피워가는 당의 빛발
대를 이어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며
따사로이 품어주는 어머니 정다운 불빛이여!

어머니당

정하천

즐거울 때나
가슴 답답할 때나
또 혹시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어머니

어머니,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
자애롭고 은혜롭다는 말

나는 부른다
그대를
어머니당이라고

그대의 품은
어머니의 품
그대는 나에게
죽지 않는 생명의 넋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있다
그대가 나에게 안겨준 생명의 넋이
흐려지지도, 꺼지지도 않고
별처럼 내내 빛날수 있게

그대의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손길을 타고
걸음을 익힌 나는
그대에 의하여
사나운 폭풍과 불길도 뚫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과 의지를 키웠다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걸음걸음
그대는 나를 떠밀어주고있다

어찌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이
노상
나와 함께 웃고

나를 두고 가슴을 조이며
나의 숨결로 숨쉰다고 하라
당은
우리모두의 운명을 보살피주는 어머니

어머니당인 그대는
언제나 생각하고있다
나의 오늘과 래일을 두고
나의 오늘과 래일의 운명을 두고
그대는 언제나 숨쉬고있다
인민의 숨결로
조국-조선의
오늘과 함께 래일의 숨결로

언제나
자애에 넘친 마음으로
우리를 두고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숨쉬고있는 그대
빛나는 향도로 이루어주고있다
우리 매사람의 소원
시대와 인민의 념원

그대의 품
그대의 손길
그대의 마음
그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 한몸에 지닌 그대
우리모두에게
뜨거운 사랑의 해살 뿌려주고있거니
은혜로운 그 사랑속에서
인민들은
영원한 은빛 성좌로 빛나고
주체조선은
그늘 없는 지구의 앞날을 밝혀주고있다

나는 알지 못한다
어머니당
이보다
은혜로운 말
이보다
귀중한 말

그날저녁의 이야기

윤두만

해와 달이 흐르면 산천도 변하고 인생에 겪었던 갖가지 추억들도 세월의 안개속에 묻혀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이, 더욱 가슴속깊이 젖어오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대지우에 뿌리내려 무성하는 거목처럼 인민의 마음속에 끝없이 년륜을 감으며 새겨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얼마전에 나는 취재길에서 락원의 10명당원의 한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스물일곱살때 신입당원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주물직장당세포총회에 참가했던 로당원!

세월은 흘러 30년, 그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오늘도 그날의 감격과 흥분, 그날의 소원을 안고 젊어사는 그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것을 나에게 생각케 했던가.

생각할수록 뜨거움에 젖어오는 락원의 저녁이야기!

그것은 정녕 감격의 눈물 없이는 받아안을수 없는 어버이사랑의 이야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날 저녁에 나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생동안 그 동무가 한 말을 잊을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그 동무의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강의한 의지를 가진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우리당은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포성이 울리던 전화의 그날에 락원의 10명당원들의 심장속에 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

력사의 그날을 더듬는 아바이의 눈곱에는 맑은 이슬이 고이였다.

《정말 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날 저녁을 잊을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신문지상과 영화를 보면서 락원의 이야기를 다 알고있겠지만 회의를 마친 그날 저녁의 이야기는 모를수도 있을겁니다.》

감회깊이 30년전의 일을 회고하던 아바이는 웬일인지 말을 잊지 못하는것이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바이는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진정하려는듯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을 자꾸만 삼키더니 이렇게 말을 잇는것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실 나무의자에서 일어서실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지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선 벌써 탐조등불빛이 가로세로 번뜩이지 않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험한 밤길로 가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때의 우리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평양까지는 수백리길인데... 그래서 10명당원들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하루밤 묵고 떠나주시길 간절히 말씀올렸댔지요.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린 늘 이런 길을 걸어서 일없다고 하시면서 회의실 문밖을 나서시는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집을 돌보고 떠나가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고 차에 오르시던 수령님께서 웬일인지 다시 내려서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더니 공장의 한 간부를 몸가까이 다시 부르시여 우리 로동자 한사람 한사람이 다귀중하다고 하시면서 꼭 항공감시병을 내고 감시초소에서 적기가 오면 대피시켜 한사람도 피해입지 않게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데가 아니겠습니까!》

아바이 두볼에 또다시 뜨거운 눈들이 흘러내렸다.

《그날밤 우리 10명당원들은 자지 못했지요. 글썽 자신께서는 항공이 위험한 밤길로 떠나시면서 우리들이 넘려되시여 항공감시병까지, 항공감시초소까지 내라고 하시니 어떻게 밤이 왔다고 잠잘수가 있겠습니까.》

들을수록 가슴을 치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나도 눈시울이 젖어와 아바이에게 뒤이야기를 더 물을수가 없었다. 아니 묻지 않아도 아바이의 심정, 우리 로동계급의 그 깊은 심정을 읽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이 세상 험한 길을 다 걸으시며 인민들이 맞아야 할 눈비를 한몸에

다 맞으시고 쏟아지는 불비를 한몸으로 다 막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항일의 날엔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몸소 진두에서 고난의 행군길을 열어가시였고 일제에게 모든것이 략탈당하고 무참하게 파괴되었던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새 조국 건설의 밝은 앞길을 펼쳐가시지 않으셨던가.

그 담력 그 사랑으로 북방의 한 제철소로 일군을 파견하시던 조국해방전쟁의 날엔 함포사격이 심한 동해안으로 가지 말고 산발을 타고 가라고 손수 로정까지 그어주시고 자신께서는 그 밤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으로 나가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깊은밤 이른새벽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뜨는 해, 솟는 별을 제일먼저 맞으시며 이 땅우에 끝없는 룡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가고계신다.

정녕 인민 위해 한평생 걸어오시는 로고의그 길우에서 인간사랑의 세계가 꽃피었고 언제나 우리 가는 앞길엔 밝은 해와 별이 아름다운빛을 뿌리는것 아닌가.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오늘에 누리는 행복의

참뜻을 깊이 깨달을수록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자각이 심장깊이 뿌리내리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갈망과 피의 교훈을 거쳐 반세기 혁명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굳어진 신념이며 생활철학인것이다.

언제나 깨끗한 이 마음속에 수령님을 모시고 살기에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 티 한점 없고 따르는 마음엔 문턱이 없는것이 아닌가.

...감회깊이 30년전, 락원땅에 흘러간 그 저녁을 돌이켜보는 나의 가슴은 숭엄한 이 한생각으로 불타올랐다.

푸른 잔디 깔리고 꽃이 만발한 사회주의의 강산에 은혜로운 해빛이 넘칠수록 더더욱 못잊는 락원의 그 저녁 이야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우리 시대의 전설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길이 축원하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소원으로 불타며 세월과 함께 영원히 전해질것이다.

불멸의 기념비

동기춘

대성산 주작봉을 다듬어
여기에 의리의 기념비를 세우다

정녕 생활의 범박한 모든것은
이 기슭에서 없은듯 깨끗해지고
다만 가슴에 넘치는것은
숭엄함과 뜨거움 그것뿐 아니던가

영생하는 이름들을 외워가며
쉽게 옮길수 없는 자욱자욱
무엇이라 우리 사는 목적은
그 의미 스스로 깨우치는곳

깨우친다, 걸음걸음
사랑이라고 불리보면 그앞에 있는것
너나의 가슴에 말없이도 몽클한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뜻을

번치 말자 혁명에 다진 맹세
목숨은 버리어도 불타던 그 뜻
믿으신 마음, 따르던 마음
바위처럼 몽치고 몽치여 솟아

하늘아래 메부리를 이루었으니

시로도 다 노래하지 못할
위대한 그 사랑
봉우리 되어 봉우리 되어
이 기념비 섰도다

흘러온 구름도 하늘에 꽃으로 피고
대륙의 거친 바람도 삼가 산허리에 부드러운
여기서, 내 여기서
하늘을 우러르고 세상을 굽어보며
목에여 부르는 한소리
아아, 우리 수령님

먼 후일이면 먼먼 후일이면
오늘의 이 시대를 기념하여
얼마나 많은것이 새겨지고 솟으랴
그래도 내 믿노니
그 모든것우에 이 기념비 솟아 전하리라
이 의리로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수령님은 사랑의 태양이시라고

흙모의 마음은 물결이 되어...

- 한 외국선원이 부르는 노래 -

민인순

어머니를 찾는 부름소리듯
가슴 벅차도록 울리는
정박의 배고동소리
내 몇번째 닻을 내리는것이라
해빛 찬란한 이 부두에-

오고 또 와도 처음 오는듯
진정할줄 모르는 내 마음
끝없이 흘러오는 물결처럼
부두의 화강석을 쓰다듬어라

예가 바로 그 땅이구나
대서양기슭에서 닻을 올리면
버릇처럼 여기로 배머리 돌려지는곳
이 가슴속에도 닻줄이 내려
영원히 떠나고싶지 않은 나라-

말해보자
배길 따라 끝없이 흘러오는 파도여
키를 솟구치며 달려오는 물결이여
반기며 가까이 마중오는
해빛 찬란한 기슭
아, 예가 바로
별처럼 빛나는 조선이노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해빛이 되어
사랑의 어깨우에 흘러내리고
거룩한 향도의 손길아래
천만년 꿈꾸던 인류의 리상이
세계를 놀래우며 꽃피어나라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이다
나서자란 내 나라 땅우에도
시원히 비껴갈 저 푸른 하늘이다

창조와 건설로 약동하는 땅에

저렇듯 넘쳐나는 노래소리, 웃음소리
해풍에 주름깊은 얼굴이 퍼이고
내 다시 소년으로 태어나
꿈속의 해변길을 걸어가는듯...

비길데없는 흙모의 정을 안고
못건디게 그리운 동경의 꿈을 안고
해빛찬란한 기슭으로
끝없이 흘러오는 흙모의 물결이여!

적도의 불별아래, 야자수 그늘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의 마지막장을 덮지 못하며
기쁨에 그리도 반짝이던 눈동자...
가보고싶다고, 만나뵈고싶다고
따라오며 손졌던 그 얼굴이나

수령님의 초상화를 선실에 모시니
해 잘 드는 방이 더 밝아졌다고
라침판 없이도 항로를 잡는다고
주먹을 들어뵈던 친우의 그 마음이나

물결이 흘러오누나
파도가 달려오누나
주체의 화불이 등대로 빛나는 땅에
흙모의 마음 물결이 되어
동경의 마음 파도가 되어

아, 가슴속엔
내 고향의 화산처럼 뜨거움이 넘쳐라
내 이제
대양을 건너 해협을 지나
위도와 경도를 넘어 배길을 헤쳐가며
조선의 노래 배워주리라
세계의 마음속에
인류의 심장속에

배 길

강복례

밤새 주룩주룩 내리던 굵은 비소리는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은채 어두운 새벽거리의 잠을 깨우고있었다. 한밤을 비속에서 외로이 거리를 비치던 가로등을 벗어나 집집의 창문에 하나둘 불빛이 나타났다. 장마철이 왔다는 예고와도 같은 굵은 비발은 어느새 개울물의 세찬 흐름을 몰아왔다. 비소리와 함께 넘쳐흐르는 개울물소리가 더 소란했다.

무릎까지 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포장도로 위에 흐르는 물을 건너차며 바빠 걷는 최관호선장의 방수포비옷이 검은 유리처럼 번쩍이며 가로등밑을 언뜻언뜻 지나갔다. 이런 때면 그가 이미 장년기를 지나 룩십이 가까와오는 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만큼 그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다. 하긴 대낮에 부두에서나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다 해도 해별과 강바람에 타서 마치 동으로 빔어놓은듯한 진한 구리빛 얼굴과 땅을 울리며 뚜벅뚜벅 걷는 그 힘찬 걸음걸이로 해서 아직도 그에게서는 배사람의 결백과 완강성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장마가 시작됐어. 발전소 짐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야단났군.)

최관호선장은 장마가 저서 강에 홍수가 나면 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과그러면 빨리 수송을 기다리는 발전소건설장의술한물동이 부두에 싸여있게 된다는 우려가 어쩔수 없이 머리를 들었다.

새로 일떠서는 발전소건설공사의 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면서 지금 부두에는 건설장으로 가는 술한 물동이 들어와서 쌓여있다. 그것이 이곳 해운사업소 일꾼들의 일손을 재촉하고 있으며 전에는 강류역에 위치하고있는 오지군에 비료나 농기계, 상품들을 실어나르던 자그마한 부두가 큰 항만이나 된것처럼 붐비고 활기에 차넘쳤다.

부두가 가까와오자 비소리속에서도 부르릉거리는 자동차소리와 사람들이 찾고 대답하는소음이 떠들썩하게 들렸다. 높다란 기중기꼭대기에는 불이 환히 켜있었다. 또 짐이 들어온 모양이다. 강 저쪽 대안은 아직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겨있으나 여기 부두는 벌써 새날의 하루가 시작되고있었다.

마침 뚜-하고 먼 배고동소리가 울리더니 캄캄한 강 아래쪽에 한점의 불빛이 나타났다. 불빛은 이어 둘, 셋, 넷, 다섯... 실에 구슬을 꿰듯 줄줄이 늘어섰다. (벌써 올라오는가.)

발전소건설장에서 언제 떠났기에 벌써 배가 들어오는가싶어 최관호선장의 걸음은 더 빨라

졌다.

부두에는 기중기들과 자동차들 방수포를 씌워놓은 짐무지들과 수리하느라고 끌어올린 짐배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그사이로 방수포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갔다. 기중기우에서 비치는 불빛이 그 모든것을 희미하게 비쳤다.

최관호선장은 출항할 배들이 떠있는 강기슭으로 내려갔다.

기관선 1106호와 1107호가 나란히 닻을 내리고 떠있었다. 기관선들에는 불이 켜있었다. 작은 유리창으로 비치는 그 불빛이 비에 젖은 강기슭을 희미하게 비쳤다. 조금 떨어져서 오늘 아침 두 기관선이 끌고갈 짐배들이 물위에 떠있었다.

최관호선장은 자기 짐배들이 떠있는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킁킁한 짐배들에서 굵은 선원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누구인가 옆의 짐배에 대고 소리쳤다.

《춘식이, 세멘트에 비물이 새여들어가지 않나 잘 살피라우.》

춘식이의 쟁쟁한 목소리가 내답했다.

《알아요- 야 이거 야단났네.》

《뭐가 야단나?》

《불 땀 나무가 다 젖었어요. 세멘트 젖을것만 생각하고 나무젖는건 깜빡 잊었어요... 선장아 바이한데 또 욱먹겠는데.》

《춘식이 너 선장아바이 욱이 그렇게 무섭니?》

《무섭지 않구요. 막 소리칠 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은데요 뭐.》

춘식이의 말에 여러 배의 선원들이 꺄꺄 웃어댔다.

(너석들.)

최관호선장은 아직도 어둠이 깔린 강기슭에서 자기 선원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짐들을 비가 새여들지 않게 잘 덮었는가고 물을 대신 이렇게 물었다.

《떠날 준비가 됐나?》

선장의 목소리를 듣자 춘식이 당황했던지 제 꺄 대답했다.

《예, 했습니다.》

(너석, 바쁘긴 했었구나.)

최관호선장은 흠족해서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불 땀 나무보다 세멘트가 젖을가봐 더 마음을 쓰는 춘식이의 책임감이 기특했다. 올해 19살, 배를 탄지 두달도 못되어 혼자 짐배를 다룰수 있게 되고 이제는 오랜 선원들 못지않게 일을 잘했다. 최관호선장은 발길을 돌리다가

피곳 생각이 떠올라 고개를 돌렸다.

《춘식이, 기관선에 가서 마른나무를 가져다볼 때라구.》

《예.》

춘식이는 기뻐서 큰소리로 대답했다.

최관호선장은 짐배들을 다 돌아보고 자기 기관선으로 내려왔다. 기관선 1106호에 대놓은 발판을 딛고 갑판에 내려서던 그는 리지훈선장의 기관선 1107호의 선실에서 나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선장이 젊으니 그 배에선 언제나 젊은이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떠들썩한 웃음소리속에서 뜻밖에도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몇해만에 다시 오니까 모든게 달라지고 생소한데 이 강만은 변하지 않은것 같어요.》

(려객선도 아닌데 웬 처녀가 이른새벽에 배에 올랐는가. 말하는것으로 보아 분명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

처녀의 말에 이어 1107호선장 리지훈이가 대답한다.

《물론 강물은 변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나강은 변해지요. 강기슭도 달라지고 강폭도 달라지고...》

최관호선장은 더 듣지 않고 자기의 조타실로 들어갔다. 27살의 젊은 선장에게 처녀가 찾아다닐수도 있으나 출항을 앞둔 이런 새벽에 부두로 외지의 처녀를 찾아나오게 하는 리지훈의 처신이 맞맞지 않았다. 조타실에 들어선 최관호선장은 선원실로 내려가는 문을 열었다. 갑판원 조대석은 나온것 같은데 비웃으며 가방만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또 리지훈의 배에 가있는 모양이다. 조대석은 잠만 있으면 리지훈의 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했다. 최관호선장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조대석이만이 아니라 휴식참에 젊은이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것을 그는 나무라지 않았다. 웃음이 없고 떠들썩한 활기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젊음이겠는가. 살아갈 걱정 때문에 나이도 들기전에 이마에 주름살이 패이고 늙어버리는 옛날과 달라서 지금 젊은이들이야 무슨 근심걱정이 있는가. 마음껏 생활을 즐길수 있는데 일만 잘하고 놀면 유쾌하게 노는것은 좋은 일이다.

최관호선장은 혼자서 다시한번 출항준비정형을 살펴보고 사령실로 가려고 갑판에 나섰다. 그때까지도 리지훈의 배에서는 활기에 찬 말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마침 조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전소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단하지요.》

아까 들리던 그 처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거야 물론이지요. 산을 허물고 강을 막는 대건설인데 얼마나 크고 장엄하게요... 이담에 가배수로를 막을 땐 한번 와봐요. 그 벽찬 건설장을 보면 놀랄거예요.》

처녀의 말에서는 벽찬 건설장에 대한 자랑과

함께 어데인가 뿔내는듯한 긍지가 울리고있었다. 최관호선장은 그제야 발전소건설장처녀가와있다는것을 알았다.

《멋있겠는데.》

조대석의 선망이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발판에 올라서려던 최관호선장은 배일을 나무라는듯한 처녀의 말이 들려 주춤하고 섰다.

《배를 선바위밑에 대주면 건설장까진 거리도 가깝고 자동차길도 좋은데 동무들은 그런건 상관 안하지요? 자동차운전사들도 그런 동무들이 있어요. 건설장에서선 어떻게 짐을 부리기 쉬운 길가에다 털썩 부려놓구 달아나구... 그럴 땐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요?》

처녀는 말을 마치며 가볍게 웃었다. 룡담같은 면서도 호된 질책이 담겨있는 처녀의 말을 들으며 최관호선장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발전소건설장 처녀이니 의례히 짐을 싣고 부리는 일에 마음을 쓸것이다. 그러나 배는 자동차처럼 아무데나 댈수 없다는것을 모르니 저런 소리를 하고있다. 그런데 최관호선장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리지훈이 큰소리를 쳤다.

《우린 뭘 선바위밑에 배대는 문제를 생각안하는줄 압니까? 이제 곧 선바위밑에 배를 대게 될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실없는 소리.》

최관호선장은 입밖에 내다싶이 중얼거리며강기슭으로 나왔다. 처녀의 앞이라 하지도 못할 일을 한다고 큰소리치는 리지훈의 허풍이 귀에 거슬렸다.

날은 희끄무레 밝아오고있었다.

×

보통 키에다 몸에 균형이 잡히고 자세가 바른 청년선장 리지훈은 비웃을 입지 않아 웃이며 모자까지 축축히 젖어서 사령실에 들어섰다. 등실한 얼굴에 뒤흔한 코며 두툼한 입술은 그를 무척 순박하고 유순해보이게 했으나 주의깊고 침착해보이는 눈만은 어데인가 예리하면서도 심중하고 지적인데가 있어보였다.

먼저 들어온 최관호선장은 지령을 받고 의자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있었다. 그가 입은 방수포비옷에서 떨어진 비물이 사령실바닥을 질박하게 적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활기에 넘쳐 사령실에 들어선 리지훈은 대뜸 사령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령원동무, 그 기중기운전공처녀동무말이요. 우리 배에 좀 타고 가자는데 태워다주어도될가요?》

담배에 불을 붙이던 최관호선장은 시선을 들어 리지훈이를 쳐다보았다. 배에 태운 그 처녀말인가싶어 최관호선장은 사령원이 대답하기전에 먼저 말했다.

《아침에 러객선이 내려가겠는데 왜 하필 화물선에다 사람을 태우겠나.》

사실 화물선에는 선원외에 다른 외부사람들이 타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꼭 따라가야 할 짐임자들은 간혹 태우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다. 최관호선장은 자기 배일은 아니라 해도 나이 들고 경험있는 사람으로서 응당 젊은 동무들이 잘못하는 일을 바로잡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리지훈이 최관호선장에게 고개를 돌리고 공손히 대답했다.

《자기 기계부속하구 같이 가겠다고 새벽부터 나와있습니다. 녀동무가 그 기계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밤에는 비를 맞으면서도 짐실는 배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 다.》

리지훈의 말을 듣자 최관호선장은 피곳 짙이는것이 있었다. (그럼 리지훈이 그 기계 실은배들을 끌고 간단말인가?)

그는 사령원에게 물었다.

《아니 그 기계 실은 배가 오늘아침에 내려간 단말이요?》

젊은 사령원은 좀 머뭇거리다가 미안해하며 대답했다.

《선장아바이가 못끌겠다고 하기에 지훈동무가 더 끌도록 했습니다. 발전소건설장에 빨리가야 할 물동이 돼서.》

최관호선장은 대답을 안했다. 어제저녁 사령원은 최관호선장에게 기계를 실은 짐배 3척을 더 끌고 갈수 없겠는가고 물었었다. 그때 최관호선장은 장마가 질것 같이 비가 쏟아지군하는데 홍수가 밀리면 어찌겠는가고 하면서 더 못끌겠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그 배들을 리지훈이가 더 끌고 내려간다는것이다.

최관호선장은 담배불을 끄고 의자에서 움쭉 일어나서며 누구에게라없이 통명스럽게 말했다.

《생각같아서야 열척인들 더 못끌겠나. 밤새비가 퍼부었는데 무슨 일을 저지를려구 그런 욕심을 부려.》

리지훈은 심중해져서 최관호선장을 바라보았다.

《선장아바이, 우리도 좀 혁신해서 건설자들의 기세에 발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리지훈의 음성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그런 말은 나도 할줄 아네. 그러나 자칫 잘못 해서 사고라도 나면 짐이 물에 잠긴다는걸 알아야지. 그땐 발전소건설에 도움을 주는커녕 되려 지장을 준단말이네.》

리지훈은 최관호선장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참을수 없는듯 음성을 높였다.

《아바이, 비만 좀 와도 사고부터 생각하고집을 적게 끌려고만 하면 우리 일에서는 달라진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단말인가. 이 강은 예나 지금이나 같애.》

최관호선장은 침착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리지훈은 최관호선장의 뒤에 대고 청년다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강은 같지만 시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 다.》

리지훈이 던진 말의 류다른 의미가 최관호선장의 가슴을 선뜻하게 울려주었다. 전에는 한번도 또 누구한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리지훈은 그렇듯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했다. 그래서 최관호선장은 선뜻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고 리지훈의 말을 못들은것처럼 그대로 밖에 나왔다.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내리는데 낮게 드리운 뿌연 하늘은 마지못해 트이듯 서서히 밝아왔다. 비에 젖은 부두며 늪실대는 황토색 물결이며 물위에 떠있는 배들이 다 자태를 드러냈다.

배를 향해 질적거리는 강기슭을 걸어가는 최관호선장의 귀에 리지훈이 던진 그 마지막 말이 검질기게 파고들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사람도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졌다면 그래 이젠 리지훈이 제가 나를 가르치겠단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젊은 사령원이나 리지훈의 일이 섭섭하고 노여웠다. 사실 젊은 사령원이나 리지훈은 다같이 자기에게서 배타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어엿한 지휘성원으로 자란 사람들이 다. 지금 최관호선장은 그들 두사람이 다 자기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를 저버리는것 같아서운하고 노여웠다.

그는 리지훈이 사령실에서 나오는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배의 닻을 올렸다.

잠시후 기관선 1106호의 통통거리는 발동소리가 이른아침의 넓은 강물위에 퍼졌다. 고물에서 솟구치는 흰 물갈기가 소란스럽게 소용돌이쳤다. 늪실거리는 물결이 배전으로 흘러갔다. 배가 강북판으로 나가자 최관호선장은 버릇처럼 뒤를 돌아보았다. 예상줄에 이끌린 짐배들의 긴 행렬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따라오고있었다. 그뒤로 리지훈의 기관선과 짐배들이 따라섰다. 멀고 가까운 술한 배들이 다 최관호선장의 의지에 복종하듯 점점이 강북판에 떠서 내려왔다. 리지훈의 기관선이 끄는 제일 마감배들은 아득히 멀리 연한 물안개속에 가물가물했다. 리지훈은 끝내 짐배 3척을 더 끌고오는 모양이다.

《지훈인 내가 끌지 못하겠다는걸 제가 더 끌겠다고 나섰단말이지.》

최관호선장은 아직도 노여움이 가시지 않아

이렇게 입밖에 내어 중얼거리는데 마침 어제 상갑판에 널었던 샤쓰를 거두러 나간 갑판원 조대석이 폭 젖은 샤쓰를 짜서 들고 조타실로 들어왔다.

자기 선장의 마음을 알리 없는 대석은 선장이 리지훈선장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줄 알고 기뻐하며 말했다.

《지훈선장동무는 이젠 우리 배들도 혁신을 일으켜서 짐을 더 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넌 어서 네 일이나 해라. 모두 배를 얼마나 탔다구 중뿔나게 나서면서 혁신은 고사하고배에 구멍이나 뚫려놓지 말라고 해.》

선장이 껌하고 소리치자 놀란 조대석은 급히 선원실로 내려가버렸다. 최관호선장은 성이난대로 지그시 앞을 바라보며 타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늑실대는 물결은 배머리에 부딪치고 갈라져서 뒤로뒤로 흘러갔다. 그래서 마치 배는 하루로 순순히 내려가는것이 아니라 상류로 힘겹게 거슬러올라가는것처럼 보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강북판에 떠서 놀던 물오리떼가 다가오는 배를 보고 일제히 높이 날아올랐다. 강기슭에 내려앉았다. 비가 오건 물살이 세여지건 그것들은 근심걱정없이 떠다니며자맥질을 했다.

배는 그 기슭을 지나고 밋밋한 산굽이를 돌아섰다. 강기슭에 절묘한 바위들이 솟아있고 깎아지른듯한 절벽이 강을 굽어보고있었다. 이끼 푸른 그 절벽우엔 애솔나무들이 자라고 절벽으로 오르는 오솔길엔 돌꽃들이 피어있다. 절벽이 솟은 또 한 물굽이를 지나 배는 둔덕우에 무연하게 펼쳐진 논밭을 옆에 끼고 내려갔다. 이삭 패인 벼포기며 키 높이 자란 강냉이포기들이 비를 맞아 더 싱싱했다. 그 논밭 저쪽에 솟은 높다란 공장 굴뚝들에서는 흐린 하늘같은 재빛 연기가 꾸역꾸역 솟구치고있었다. 전에는 쑥대들만 무성했던 이 기슭에 저렇듯 공장굴뚝들이 솟아오르고 무연한 논밭들이 펼쳐졌다.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안고 기슭을 적시며 흐르는 아름다운 조국의 강이었다. 그러나 최관호선장에게는 이 강이 한갓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안겨오는것이 아니었다. 그의 배머리에서 갈라져 배전을 치며 뒤로뒤로 흘러가는 물결우엔 기계 배란 알지도 못하고 짐배에 바줄을 매여 배군들의 어깨로 끌던 그 옛날 암담한 나날들과 폭격에 물기둥이 솟고 물아가던 때목이 산산조각이 나 흩어지던 그 전화의 나날들, 그리고 강류역 오지군에 일어서는 지방산업공장과 복구되는 농촌에 원료와 기계설비 비료와 농기계, 상품과 의약품을 실어나르던 건설의 벅찬 나날들이 비껴있는것이였다. 거의 40년을 이 강에서 배를 끌어온 그에게는 이 강이 단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안겨오는것이 아니라 수심이 낮고 물밑에 암초가 많고 여울이 많은 강,

그래서 배가 어느때에도 암초에 부딪칠수 있고 홍수때에는 뒤집힐수도 있는 배길이 사나운 강으로 더 많이 리해되고있는것이였다. 누구보다 이 강이 배길을 잘 알고있는 그의 말에 대해서 전에는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다. 그가 갈수 있다던가 없다던가 짐을 더 끌수 있다던가 없다던가 하는 말 한마디면 사령에서도 어찌지 못했었다. 전날 짐배의 물동량의 기준을 확인하는 첫 실험에 참가한것도 최관호선장이였고 한 기관선이 끌수 있는 짐배의 수를 정하는 실험작업도 최관호선장이 했었다. 최관호선장의 말은 사업소의 간부들도 존중해주고있었다. 오늘 사령이나 젊은 선장 리지훈의 태도는 전날의 사업소의 관례를 허물어버리는것이였다. 그리고 리지훈은 최관호선장앞에서 아직 그 누구도 말하지 않던 말을 당당하게 했다.

《강은 같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절대적인것으로 보이면 자기의 주장이 무식되고 훼손당하는데서 오는 언짢은 감정이 이제 자기를 가르치려든다고 생각하는 리지훈에 대한 불만뒤에 숨어있음을 최관호선장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물론 리지훈에 대한 이런 불만이 오늘 처음 생긴것도 아니고 또 리지훈이 한사람에 대해서만 느끼는 감정도 아니다. 발전소건설장으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부두에도 배가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임명되자부터 최관호선장에게는 어언간 이런 불만이 앞서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벌려놓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의 조언같은것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하는것 같았다.

(이젠 리지훈까지 나를 가르치려고들어.)

×

아침밥이 다 되였는지 선원실에서 그릇소리가 났다. 어느때같으면 지금쯤 조대석이 홍얼홍얼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을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잠잠해있다.

리지훈의 일로 하여 애꿎은 조대석에게 큰소리를 쳤다. 오래동안 배생활을 해오면서 굳어진 습성인지 화가 날 때는 참지 못하고 소리치지만 곧 후회하게 되는 최관호선장이였다.

마침 선원실로 내려가는 문이 열리고 조대석이 머리를 내밀었다. 그는 뿌루퉁한채로

《선장아바이, 밥이 다 됐어요.》 하고는 곧 문을 닫으려고 했다. 대답대신 최관호선장은 대석을 불렀다.

《대석이, 이리 좀 올라오라구.》

대석이 시무룩해서 조타실로 올라왔다.

《일을 배워야지. 장참 밥이나 하고있겠나?》

최관호선장은 요즘 대석이에게 한두번만 이런 말을 한것이 아니다. 대석이 이젠 밥도 잘하

고 갑판일도 꽤하지만 최관호선장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것은 그가 배일을 직심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것이다. 대석이는 대답을 안하고 시무룩한채 선장옆에 그대로 서있었다.

배는 여울로 다가가고있었다. 물위에 큰 주름이 잡히면서 물살이 빨라지는것이였다.

《대석이! 여울에 왔는데 타륜을 잡아보게!》

선장이 일어서고 대석이 선장자리에 앉았다.

최관호선장은 대석이옆에 의자를 바짝 갖다 대고 앉았다. 그는 더 빨라지는 물살을 주시하기도 하고 타륜을 잡은 대석이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말했다.

《물결을 잘 살피라... 좀 천천히 더 속도 늦추라.》

대석이는 계기를 조종하기도 하고 손에 힘을 주어 타륜을 돌리기도 하면서 배를 몰았다. 배는 빠른 물살을 타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큰 무리 없이 여울을 지났다.

하늘소여울을 지나자 배길은 좋았다. 배는 강기슭에 들쭉날쭉 기복을 이루고 서있는 높은산을 옆에 끼고 산굽이를 돌아내려갔다. 강북편에 왼쪽으로 치우쳐 자그마한 섬이 있는 립석여울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립석여울에선 어떻게 해야 되나?》

대석은 타륜을 잡은채 학생이 선생앞에 글을 외워바치듯 명확하게 대답했다.

《우측으로 치우쳐 몰아야 합니다. 좌측은 섬이 있어서 물밀이 사납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측으로 더 우측으로 좀 천천히.》

대석은 긴장해서 타륜을 잡고 배를 여울로 몰아갔다.

《천천히, 천천히.》

최관호선장의 목소리도 긴장해있었다. 배는 여울물을 타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갔다. 립석여울까지 무사히 지나오자 최관호선장은 대석이를 일으켜세우고 자기가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속으로 녀석이 별로 배우려고 애쓰는것같진 않는데 배는 어지간히 물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은 다르게 했다.

《대석인 배우면 되겠는데 열성이 없어. 춘식이 보라구. 벌써 혼자서 짐배를 맡지 않았나.》

대석이는 듣고만 서있더니 이윽해서 시답지 않게 중얼거렸다.

《그까짓 조그만한 짐배나 하나 모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구. 바다에 나가 큰 배를 몰면몰라두.》

《뭘?》

최관호선장은 마뜩지 않게 대석이를 쳐다보았다. 그바람에 대석이는 입을 다물고 창밖에 눈길거리는 물결만 내다보았다.

《배일이 작아서 쪼쪼하단말이지? 작은 일과 큰 일이 따로 있는줄 알아... 이 배길에서 20년

씩 30년씩 짐배를 탄 사람들이 다 대석이만 못해서 그렇게 일했겠구만.》

《그러기에 모두 일을 쪼쪼하게 해요. 생각하는것도 쪼쪼하구, 난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어요.》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어? 점점 한다는 소리가... 무슨 바람이 불었어?》

최관호선장의 음성은 높아졌다. 새벽에 리지훈의 배에서 발전소건설장 처녀가 건설장자랑을 하던 일이 생각났다.

(공연히 지나가는 말에 귀가 벌쪽해서 들떠가지구 발전소건설장에 가겠대구?)

최관호선장이 화가 나서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기관장이 들어서며 대석이에게 아침밥이 됐는가고 물었다.

조대석은 말없이 돌아서서 먼저 선원실로 내려갔다. 최관호선장은 기관장에게 먼저 아침밥을 먹으라고 했다.

잠시후 선원실에서 기관장의 떠들썩한 우스개소리가 들렸다.

《야, 이거 잉어줄임이구나. 이건 호박장이구, 대석이 제법 료리를 잘했는데. 너 어디 가서 료리강습이라도 받았니? 우리 대석이 이담에 색시가 떨렷했다간 혼나겠다.》

그러나 대석이의 대답은 없다. 제대군인인 젊은 기관장하고는 곧잘 룡담도 하고 갈꺽질도 잘 하던 대석이 오늘은 기관장의 룡담에 한마디대답도 없다.

최관호선장은 선장대로 대석이가 한 말들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발전소건설장 처녀의 말에 혹해서 들켰든 어쨌든 대석이 이 강을 버리고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다는데 대해서는 그저 스쳐버릴수가 없었던것이다. 새 선원들에게 빨리 일을 배워주어 늘어나는 배를 맡겨야 할 문제가 제기되고있는 때에 주대가 있고 배짱이 세서 좋은 선장감이라고 생각했던 대석이가 여기를 떠나겠다고 한다.

(녀석, 배에서 밥을 얼마나 먹었다구 배일의 쪼쪼하니 뭐니 하고 야단인가. 지훈이 그 사람은 무엇하러 건설장 처녀를 배에 태워서 대석이까지 들뜨게 만드는가... 녀석이 장참 지훈이한테 가붙어있더니... 지훈인 새 사람들을 일을 착실히 하도록 배워주는게 아니라 잔뜩 들뜨게나 만들고.)

최관호선장은 이 책임도 지훈이에게 있다고 단정했다.

기관장이 선원실에서 올라와 일을 교대해주었다. 최관호선장은 선원실로 내려갔다. 대석이는 선장의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부뚜막에 돌아서서 그릇을 가시고있었다.

《대석이, 밥 가지고 오라.》

대석이는 대답이 없었다. 언제나 선장이 내려와야 같이 밥을 먹는 대석이였다.

대석이는 내키지 않는듯 시들해서 밥그릇과 찬그릇들을 들고 선장앞으로 왔다. 최관호선장은 숟가락을 들고 자기 접시의 잉어줄임을 듬뿍 떠서 대석이의 접시에 덜어주었다. 대석이는 사양하다가 그대로 받아먹기 시작했다.

밥상에서 물러나 담배를 붙여물면서 최관호선장은 아직도 밥을 먹고있는 대석이에게 조용히 그러나 좀 엄하게 타일렀다.

《출데없는 생각은 말고 일을 착실히 배워. 발전소에 가던 여기서 일하던 일하는 본색은 다 같은거야.》

대석이는 말없이 밥을 먹고 그릇을 거두었다. 최관호선장은 조타실로 올라왔다.

…배는 한낮이 가까와 수심이 깊으면서도 물살이 센 위원읍 여울에 다가가고있었다. 이 여울은 기슭에 심한 기복을 이루고 서있는 높은 산의 계곡과 골짜기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강으로 밀려들어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랐다. 그래서 이 위원읍 여울만 극복할줄 알면 다른 여울은 다 극복할수 있다고 하는 험한 여울이다. 게다가 오늘은 비까지 와서 물이 폭포처럼 골짜기에서 강으로 흘러들었다. 최관호선장은 자기보다 짐배 3척을 더 끌고오는 리지훈의 배들이 이 위원읍 여울을 무사히 극복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최관호선장은 자기의 배들을 여울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멈춰세웠다. 만일 리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리지훈의 배들은 아직 여울 저쪽에 떠있었다. 그런데 조대석이 최관호선장보다 더 긴장해서 조타실 뒤창문옆에 앉아 가까와오는 리지훈의 배를 내다보고있었다.

리지훈의 기관선 1107호는 드디어 여울에들 어섰다. 기관선이 여울을 지나자 짐배들도 하나씩 하나씩 세찬 흐름을 타고 여울을 극복했다. 술한 짐배들이 모두 무사히 험한 여울을 지나 오는것을 보자 조대석은 기뻐서 소리쳤다.

《리지훈선장동무는 하겠다면 해요.》

최관호선장은 조대석의 말을 못들은것처럼 대답을 안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애써 이렇게 생각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들리는게 다행이군.》

기관선은 다시 발동소리를 울리며 앞으로 나갔다.

×

전에는 몇명의 승객이 오르고 내리던 강굽이가 마치 큰 부두를 연상시키리만큼 붐비고있었다. 기중기차들이 배에서 짐을 물어올리느라고 용을 쓰며 부르릉거리는가 하면 짐을 실은자동차들이 가파로운 강언덕길을 치달아오르느라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부두에서 짐을 부리고 실는 노동자들은 비가 댕겼으나 비옷을 벗을 새

도 없는지 검은 방수포비옷을 입은 그대로 일을 하고있었다. 강에는 짐부리기를 기다리는 짐배들과 빈배들이 더 들어설 자리가 없을만큼 뻘뻘이 떠있었다. 최관호선장은 할수없이 강북관에 배를 세우고 닻을 내렸다. 상갑관으로 나온 최관호선장은 봄비는 부두를 한참이나 바라보고섰다.

최관호선장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저아래 강굽이를 돌아간 발전소건설장쪽에서는 포탄이튀는 소리같은 발파소리가 동안뜨게 쿵쿵 울려왔다.

얼마후에 리지훈의 기관선이 옆으로 다가왔다. 배머리를 나란히 하고 배를 세우자 리지훈이 갑판으로 나왔다. 그 순간 최관호는 리지훈의 배의 선실앞갑판에 나와 서있는 닻모를 처녀를 보았다. 스물서너살쯤 나보이는 꽃무늬원피스를 입은 얼굴이 동그스름한 처녀였다.

(끝내 태워가지고 왔군.)

최관호선장이 갑판에 나오자 리지훈은 의논하듯 공손히 말했다.

《배를 선바위밑에 갖다댁시다. 아무래도 그쪽에 배길을 더 내야 될것 같습니다.》

《선바위밑에?》

최관호선장은 놀라 리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새벽에 저 처녀가 배를 선바위밑에 대달라고 할 때 리지훈이 대답한것이 사실이란말인가? 배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할수 있지만 리지훈이까지 그런 분별없는 생각을 한단말인가.

《정신없는 소리, 배들을 다 깨버리자고 거기다 갖다대겠나. 발전소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요구할수 있지만 자넨 분별이 있어야지.》

《물론 배대기는 좀 불편하지만 배를 댈수는 있습니다. 제가 몇번 내려와서 조사해봤습니다.》

《그래도 그쪽은 안돼. 여기까지 사고없이 내려와서 무슨 일을 저지룰려구.》

리지훈은 안타까와서 하소연하듯 말했다.

《우리가 배들을 선바위밑에 갖다대주면 건설장에서 자동차로 짐을 실어나르는데 얼마나편리하겠습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건설장의 일도 생각해야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어?》

최관호선장의 눈썹이 치켜올라갔다.

《배가 깨여지고 짐이 물에 잠기면 책임따위가 문젠가?》

자넨 마음대로 하게. 난 여기서 기다리겠네.》

최관호선장은 조타실로 들어갔다.

리지훈은 자기 배의 닻을 올렸다. 기관선 1107호는 자기의 짐배들을 끌고 강하류로 내려갔다. 그러자 선원실에서 조대석이 올라왔다. 그는 정색해서 말했다.

《선장아바이, 리지훈선장동무는 요전 쉬는날

에도 사령원동무랑 배타고 와서 조사해봤어요. 우리도 내려가자요》

《넌 네일이냐 해라. 참견 말구.》

최관호선장은 통명스럽게 소리쳤으나 그 목소리는 한풀 꺾이여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리지훈이가 배를 깨버리거나 뒤집어놓을것 같은 불안이 더 커서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만일의 경우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일으켜세웠던것이다.

리지훈의 긴 짐배행렬은 벌써 산굽이를 돌아가서 보이지 않았다.

최관호선장은 기관선만 끌고 기슭으로 들어가 봄비는 부두에 내렸다. 그리고 선바위밑을 향해 급하게 걸어내려갔다.

그가 선바위밑에 이르렀을 때는 리지훈의 기관선이 짐배 3척만 끌고 강기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른 짐배들은 강북판에서 대기하고있었다.

배를 대야 할 기슭은 비가 와서 물이 많아졌으나 물살은 여전히 빨랐다. 배 델데가 좁아서 기관선이 돌기에도 여의치 않을것이였다.

(여기로 어떻게 배를 끌어들인다구 정신이 없지.)

리지훈은 빠른 물살의 흐름을 가로질러 선바위밑으로 배머리를 돌렸다. 기관선은 세찬 물살을 배전에 받으며 좁은 기슭에 들어서자 다시 배머리를 우로 돌렸다. 짐배들을 기슭에 붙여야 했다.

배머리를 우로 돌리고 짐배들을 기슭에 끌어들이던 기관선이 갑자기 멈춰서고 움직이지 않았다. 툭툭거리던 발동소리도 멎었다. 그러자 리지훈이 갑판으로 뛰어나왔다.

물가에 섰던 최관호선장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지훈이 웬일이야?》

《추진기에 예삭줄이 감겼어요.》

리지훈은 옷도 벗지 않고 물로 뛰어내렸다.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예삭줄을 끊어라.》

최관호선장도 소리치며 배를 향해 가슴까지 오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갑판원이 도끼를 들고 나와 물로 뛰어내렸다.

최관호아바이는 리지훈이를 도와 추진기에 감긴 예삭줄을 끊었다. 그바람에 배가 물살에 밀리였으나 최관호아바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멈추어세웠다. 추진기는 돌아갔고 예삭줄은 다시 짐배에 이어졌다.

리지훈은 기관선을 몰아 짐배들을 기슭에 갖다붙였다. 그리고나서 숨을 좀 돌리느라고 기관선의 닻을 내렸다. 입은 옷이 물주머니가 된 최관호선장과 리지훈선장은 조타실에 앉아있었다. 두사람 다 말이 없었다. 최관호선장은 리지훈에게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일을 칠번하지 않았

는가고 말하고싶었으나 이제는 리지훈자신이 깨달으리라싶어 참았다. 리지훈이도 말없이 앉아있었다.

《강에 있는 배들은 어떻게 할텐가?》

이윽고 최관호선장이 물었다.

《어떻게 하다니요. 여기로 끌어들여야지요.》

《또 여기로 끌어들인단말인가?》

《선장아바이.》

리지훈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감정을 억제할수 없는듯 걱정을 터뜨렸다.

《경험이 있고 기술이 높은 선장아바이라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겁니다. 배를 대기 힘든건 사실이지만 델수는 있지 않습니까. 선장아바이는...》

리지훈은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떨리는 입술을 꼭 사려물었다. 그는 상반신을 돌렸으나 어깨는 그냥 오르내렸다.

최관호선장은 리지훈의 그 걱정에서 어안이 병병했다. 리지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바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짐을 더 나르고 건설장에서 짐을 날라가는데 편리한곳에 배를 대준다면 건설장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일어날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속에는 이 강의 특성만 운운하면서 짐입자들은 나중에 어찌되던 짐은 적당히 끌고 배는 대기 편리한곳에만 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나라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경험이 있고 기술이 높은 선장아바이가 앞장에 서준다면... 우리도 좀 혁신을 일으키자요. 예. 아바이!》

경험자가 혁신의 앞장에 서달라는 호소는 너무도 절절했다.

(강의 특성만 운운하면서 짐입자들은 나중에 어찌되던 짐은 힘에 부치지 않게 적당히 끌고 배는 대기 편리한곳에만 대고.)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진실이 최관호선장의 마음을 흔들어주었다.

리지훈은 최관호선장의 훈계나 꾸지람을 기다리는듯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러나 최관호선장은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어느새 구름새로 비낀 파란 하늘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해빛이 물위에 쏟아졌으나 최관호선장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지훈이의 말이 옳은가? 하긴 짐은 기준량만큼 끌었고 배는 대오던 기슭에 댔다. 그 길이 무난하고 실수가 없었지. 그래 달리 생각할수 있었던단말인가. 이 강의 좀 험한 강인가? 그런데 난 왜 지훈이의 말에 한마디 대답도 못했는가.)

최관호선장의 종잡을수 없는 생각들이 춤을 추듯이 물결우에서 해빛이 부서지며 춤을 추었다.

배가 닻을 올리고 다시 떠나려는데 선원실문

이 열리고 발전소건설장 처녀가 조심히 올라왔다.

최관호아버이도 리지훈이도 그 처녀에 대해서는 감감 잊어버리고있어서 두사람 다 거의 놀라는 시선으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미안한 표정을 띠고 두 선장에게 그러나 주로 지훈이쪽을 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와요. 전 배를 여기다 대는것이이렇게 어려운 일인줄 몰랐어요.》

처녀는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더욱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최관호아버이는 덤덤히 앉아 있는데 리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쾌활하게 말했다.

《제가 일을 할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처녀는 자동차를 불러와야겠다면서 기슭에 내려다.

리지훈은 기관선을 강북관으로 몰아갔다. 최관호선장은 그대로 리지훈이옆에 앉아있었다.

×

그날밤 땅은 질고 대기는 축축한 누기에 차 있었다. 맑게 개인 캄캄한 하늘에서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웃고있었다.

선바위밑에 새로 생긴 부두의 강물우에는 기관선 1106호와 1107호가 나란히 떠있었다. 늑실대는 물결도 봄비던 강기슭도 어둠에 잠겨밤의 안정에 싸였는데 두 기관선 조타실에서 비치는 불빛만이 강물우에 두점의 불꽃으로 반짝였다. 어데선가 거세찬 물소리가 좌-좌 하고 들려왔다. 어둠속에서도 강은 벽찬 숨결인양 도도히 흘러가고있었다.

건설사업소 자체부두에 갔던 최관호선장은 새 부두로 돌아오자 잠시 강기슭에 서있었다. 문화회관에 도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구경하러 간 선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배들은 조용했다.

최관호선장은 선원들이 오기전에 배에 들어가 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갑판에 내려서는데 조용한 리지훈의 조타실에서 조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선장동무, 난 발전소건설장으로라도 가고싶어요.》

《뭐?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어?》

리지훈이도 뜻밖인듯 놀라서 묻는다.

최관호선장은 주춤하고 갑판에 섰다.

(아직도 그 생각인가, 그만큼 타이르고 일깨워주었으면 들어야지 끝내 가겠단말인가.)

최관호선장은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끝내 배척을 당하는것 같아 다시금 마음이 허전했다.

조대석이 실로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난 내 힘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바쳤다

고 말할수 있게 큰 건설장에 가서 쿵쿵 일하고 혁신도 일으키고싶어요. 우리 일은 너무 잔잔해요.》

리지훈이 다그쳐물었다.

《그래 넌 우리한테서는 혁신을 일으킬수 없다고 생각하니?》

《…………》

《대석이, 넌 잘못 생각하고있어. 큰 건설장에서만 큰일을 할수 있는건 아니야. 이젠 우리배들도 잔잔하게만 흐르진 않을거야. 난 여기서도 얼마든지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해.》

조대석은 대답이 없다가 문득 밝은 목소리로 간청하듯 말했다.

《그럼 나를 지훈선장동무네 배에 오게 해줘요.》

최관호선장은 영문을 몰라 귀를 강구었다.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다더니 지훈이네 배로 가겠다는건 무슨 소린가?

조대석의 말에 리지훈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리고 룡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닌 하소연을 했다.

《나같은 햇내기 선장하구 같이 일하겠다고할진 뭐야. 나는 일을 잘할줄 몰라서 오늘 하마트면 배를 뒤집어엎을뻔했어. 최관호아버이 그런 일없이 잘 들어왔는데.》

리지훈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타이르듯 말했다.

《공연한 생각 하지 말고 최관호아버이한테서 잘 배워. 아버이 욕도 하고 소리도 치지만 다 대석일 잘 배워주려고 그러는거야.》

《내가 뭐 춘식이처럼 욕이 무서워 쫄쫄 매는줄 알아요. 난 일이 성차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걸 조심하라는거지요… 선장아버이하고 일하면 답답해요.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그렇게 하라는 식이거던요.》

최관호선장은 갑판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리지훈이 심중해서 말했다.

《알만해. 대석이, 우리가 아버이를 잘 도와드려서 혁신의 앞장에 나서도록 하자우… 아버이는 지난날 이 배길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 그공적을 우리는 존중할줄 알아야 해. 처음 이 강에서 기계배를 몰고 온갖 곤난을 극복하며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한 나이많은분들의 공적을 우린 잊어서는 안돼. 알겠나?》

《…………》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건 무엇이겠어. 우리자신이 작은 일도 크게 할줄 아는거야. 사실 우리 세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은 지난날의 기준량을 뛰어넘어서 새로운것을 창조해내는거야. 여기에 지난날 오래동안 이 배길에서 일해온 나이많은분들의 공적을 더 빛내여가는 우리 세세대들의 의무가 있는거야. 우리 일이 작고 잔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무런 새로운것도 창조해낼수 없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생각이야. 이제 이 강에도 큰 기관선들이 오고 큰 짐배들이 무어지면 우리 일도 멋이 있을거야》

리지훈은 대석이를 타이른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말에 취한듯이 흥이 나서 말했다. 조대석은 더 말이 없다.

최관호선장은 큰 숨을 후- 하고 내쉬었다.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겠다는 조대석의 마음을 자기는 너무도 몰랐다. 너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리지훈이나 조대석이, 그들 세대대들의 지향을 자기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할려고도 안했다.

문득 아침에 사령실에서 리지훈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강은 같지만 시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노엽게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리

해되었고 자기는 어느덧 달라지고있는 시대도 새 사람들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거웠다.

최관호선장이 조타실로 들어가려는데 리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언제인가 최관호아바인 이런 말씀을 하셨어. 지난날 이 강은 눈물의 강 수난의 강이었는데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행복의 강 기쁨의 강으로 뛴다구. 그리고 이 강에서 나날이 번영하는 조국을 본다고 하면서 더 많은일을 하겠다고 했어. 대석이, 우리 아바이를 잘 받들어서 일을 잘하자구. 대석인 아바이한테서 잘 배워.》

최관호선장은 조타실로 들어오며 진심을 담아 혼자속으로 말했다.

《지훈이 고맙네.》

공원이 끝났는지 마침 강언덕우에서 짧은이들의 떠들썩한 말소리가 들렸다.

내가 가는 길

김정철

한차례 바다와의 싸움이 끝났다
새로 솟아오른 긴 제방우에
우등불 섬섬히 타오르는데
기러기 날아가네, 밝은 달아래

행복에 겨운듯
즐거이 울어이며
어디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반가와 모자를 벗어드니
별써 아득히 사라지는 저 기러기

어이 알리 너야
허리치는 감탕을 헤치며
전쟁이 아닌 건설의 나날에
전투란 그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여기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힘이
분초를 다투며 마주일어서던
마지막 물목을 막아낸 이 밤
하나로 이어진 제방우에서
젖은 옷 말리우며 웃는 이 장쾌함

아, 개간자의 첫 배낭을 벗어놓던
압록강하구에서 예까지
아직도 헤쳐온 그 길보다
몇갑절 먼길을 내 가야 하리

그 길우에 펼쳐질 30 만정보
가없는 새땅 새 벌을
먼 후날 내 지나갈 때
차창너머 황금이삭 흘러가고
차창너머 새 마을과 새 군들 마주오리니

오, 나는 사랑하네 내가 가는 길
저 하늘 훨훨 날으는 기러기야
우리함께 날아가자
조국의 새 기슭
끝없이 뻗어가고
쉽없이 태어나는 미래로의 길

나는 사랑하네
황포한 자연을 길들이며
걸어온 청춘의 발자욱이
조국의 해안선으로 길이 남을
개간자의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을

그대는 은혜로운 품이기에

정 렬

산촌의 들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다보아도
문득 이 가슴에 젖어드는 생각
저 별무리들이 안겨사는 하늘이
그대의 사랑이라면
구슬처럼 빛나는 그속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 나같고

아지랑이 감도는 별에 나서도
문득 생각되여라
황금이삭 뿌리내린 대지가
그대의 품이라면
기쁨에 물결치는 그속에서
풍년이삭 하나 나갈아
목메이는 이 마음

그대 지닌 그 사랑
얼마나 소중한가에
당이여
내 백번 태어나도
행복의 눈물에 젖어
그품에 안기고싶고
때로 먼곳의 별빛에 있을 때도
마음속에 그리워
떨어져 살수 없는것인가

내 어린시절
날아준 부모도
배고파 울보채는
아들을 달래지 못하며
한숨쉬던 그 세월
그대는 백두에서 안아온
해살로 감싸주고
따뜻한 미소로
앞길을 축복해준 품

눈내리는 밤나무끝에서
원썩들이 마을사람들 학살하던 날
놈들의 흉탄을 한몸에 받으면서
나를 조용히 뒤로 감춰주고
밝은곳으로 떠밀어보내준 그 손길
고마운 그 손길을 못잊는 내 마음
오늘도 뜨거운 눈물에 젖어있어라

고향별에 행복을 심어가며

프락토르를 몰아가던 그해
나의 입당청원을 받아주며
다 자란 아들을 대하듯
그렇듯 대견해하던
그대의 축복이
금물결우에 노을로 흐르던
그 아침을 언제나 잊지 못하노라

지금은 내, 나라의 한 일터를 맡은 사람
하지만 그대는
먼 산너머 다락밭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나를 기다려주고
그 어디서 한밤을 새울 때면
힘을 내라 믿음을 안겨주며
결에서 따뜻이 일러주는 그 음성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 그늘을 가셔주고
헛디딤없이 곧바로 걸어가라고
한생을 손잡아 이끌어주는
고마운 그품을 떠나
그 어떤 다른 품 이 세상에 있으랴

하늘이 없는 별을 생각할수 없고
대지 없는 이삭을 생각할수 없듯이
고마운 당중앙의 해발이여
그대 없는
나의 삶 나의 운명
생각할수 없나니

그때문에 그때문에
내 하는 일
내 바치는 땀
그 모든것
우리 당의 기쁨속에 어려있어
우리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수놓으리

오 당이여 우리 당이여
해와 별이 비치는
세월의 끝까지
그대의 위업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한목숨 바친다 해도
더없는 영광이여라
그대는 우리모두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은혜로운 품이기에

금수산모란봉

홍승덕

산 좋고 물 맑아 아름다운 내 나라는 그 어디를 가나 자랑으로 이름 높다.

우리는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을 안고 다시기행의 길에 올랐다.

어느덧 우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모란봉에 다달았다.

모란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이룬 곳이라 하여 《천하제일강산》, 비단실로 오리오리 수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금수산》, 금수강산의 뛰어난 자연경치를 그 어느 하나도 빼어놓지 않고있어 그 이름 《금수강산》이라고도 자랑높이 불리우는 모란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변에 높이 솟은 백두산으로부터 금강산, 태백산을 거쳐 제주도 한나산에 이르기까지 연연히 잇닿은 아름다운 산발들, 동서남으로 흘러내리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랑동강, 금강 등을 찢줄기로 삼아 펼쳐진 무연한 벌판들 그리고 해안을 따라 수천리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경치, 말그대로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입니다.》

때는 가을이라 산천이 여물어가고 온갖 열매 주렁지는 단풍진 모란봉은 참말로 절경이다.

산에만 울긋불긋한 단풍이 든 것이 아니다. 아동공원과 청년공원을 거쳐 모란봉으로 물결처럼 흘러드는 수많은 사람들, 산뜻하면서도 자연의 운치에 어울리는 여러가지 문양과 고운 색깔의 가을옷을 차려입고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단풍보다 더 아름답다.

봉이면 봉마다 골이면 골마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깃들어있어 더욱 자랑높은 모란봉!

그 옛날, 민족수난자들의 탄식의 한숨소리가 주막집의 꺼져가는 어슴푸레한 불빛속에서 흘러나오던 경상골은 <비탄골> <설음골>로 알려졌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영광스러운 당의 은혜로운 해발 아래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을 가져와 자기의 모습을 바꾼 경상골이 예아닌가.

우리는 후더워오는 가슴을 안고 모란봉등덕에 자리잡고있는 모란봉극장으로 다가갔다.

바로 여기 모란봉극장은 1948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몸소 소집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포하신 곳이다. 이 영광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모란봉극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감회는 컸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1946년 봄에 건설된 모란봉극장은 최초의 우리 나라 예술의 전당이었다.

전쟁시기 파괴되었던 모란봉극장은 전후 맨 처음으로 다시 복구건설되었다.

온 나라가 판가리결전장이었고 이 땅에 처절한 싸움의 불길이 흐르던 엄혹한 전쟁시기, 혁명의 수도 평양의 복구건설체도를 친히 보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모란봉지하극장에서 평양시복구건설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보여주는 설계전람회를 가지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정치의 포성이 온 땅을 진감하고 전민이 원쑤격멸의 결전에 떨쳐나선 전쟁시기, 한치의 귀중한 조국땅을 두고 치열한 격전을 벌리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에 대성황리에 열린 설계전람회, 전쟁과는 너무나도 인연이 없는듯 현대적인 고층건물들과 화려하고 웅장한 거리들이 그려진 설계도들과 부감도들, 그것은 그대로 조선을 세게지도우에서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며 피를 물고 달려들던 간악한 원쑤 미제의 최초의 멸망과 수치스러운 참패를 사정없이 선고하는 폭탄보다 더 위력하고 무서운 승리자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혁명의 수도, 영웅도시 평양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케하여주는 조선인민의 공산주의적인 략관주의정신의 략만적인 상징이기도 하였다.

력사적으로 의의깊은 모란봉극장을 돌아본 우리는 칠성문을 지나 올밀대로 올랐다.

수려한 숲속의 태고연한 침목을 안고 늘어선 높이 수십미터의 봉우리를 디뎌고 굳건히 쌓아올린 높은 축대우에 다치면 당장에라도 날아갈 듯한 합각지붕을 날개마냥 펼치고있는 올밀대는 정자가운데서도 사방전망이 시원하고 장쾌하다 하여 일명 사허정이라고도 부른다.

올밀대에 잠시 머물렀던 우리는 잘룩한 언덕에 자리잡은 합각지붕의 목조단층건물인 현무문을 거쳐 최승대에 올랐다.

모란봉의 많은 봉우리중에서도 해발 98미터의 가장 높은 봉우리꼭대기에 솟아있는 최승대, 여기가 바로 옛날부터 피어오르는 모란꽃과도

같이 아름답다하여 그 이름 모란봉, 금수산제일봉이라 부르던 모란봉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란봉일대를 통털어 다 모란봉이라 부르고있다.

그 몇백년을 헤아리는지는 모르나 해묵은 이끼덮인 푸른 기와를 이고 희미한 단청과 고색이 짙은 붉은 기둥을 뻗치고 선 최승대, 기나긴 세월 우리의 선조들이 사방으로부터 달려드는 외적을 물리치며 봉화를 올리던 최승대에 올라서니 넓으나넓은 구룡성산지대의 모란봉일대를 포함한 평양의 전경이 그림처럼 한눈에 펼쳐진다. 마치도 그것은 모란봉이 평양을 목숨바쳐 지켜싸운 영웅도시의 평양시민들에게 안겨진 자연의 거대한 꽃다발마냥 오늘은 수도의 한복판에 목란꽃처럼 피어올라 자기의 그 아름답고 절승경개한 품으로 근로자들을 불러들이고있다.

모란봉의 그 어느 봉우리나 다 전망이 좋아 옛날부터 이르기를 전망이 명소로 이름높은 모란봉이라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올밀대와 최승대는 평양을 관광하기에는 가장 훌륭한곳이다. 여기 최승대에서 평양을 바라보기가 제일이라 하여 최승대라고 그 누가 이름지었는지 어이 알랴.

눈들어 바라보니 모란봉앞 만수대언덕우에 솟아오른 조선혁명박물관정면에는 우러러 높이모서진 위대한 수령님의 근엄하신 동상이 만천하에 광휘로운 빛을 뿌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손길따라 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줄달음치는 조선,

거창한 모습으로 번개치듯 질주하는 주체시대의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인양 땅을 차고 구름위로 떠오른 천리마가 네굽을 걷어안고 하늘 높이 날으는 천리마동상, 현대적인 락원거리와 천리마거리 그리고 버드나무거리... 우줄우줄 일떠선 고층건물들과 함께 금시 날듯한 합각지붕을 한 우아한 평양대극장, 웅장한 평양체육관, 찬란한 인민문화궁전 그리고 평양학생소년궁전에 잇달려 주체예술의 최고전당인 만수대예술극장 등 기념비적건물들이 거창한 화폭처럼 펼쳐져있다.

만수대를 비롯하여 장대재, 남산재, 해방산, 창광산 등 크고작은 야산들과 언덕들이 파도처럼 물결치며 련줄련줄 솟아있다. 아래로는 공원속에 파묻힌듯한 현대적인 모란봉경기장이 손에 잡힐듯 내려다보인다.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경쾌하고 날씬한 경기장 주석단 채양관이 허공중 떠있다.

수십메터의 너비를 가진 채양관은 그것을 받들어주는 지지기둥이 없이 앞으로 길게 돌출되어있다.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단한 건축구조물이다. 또 그 질적수준에서도 세계적인이라 한다.

새로 개건된 모란봉경기장은 또한 련결된 집단식의자를 기계적방법으로 이동시켜 집단체조를 할 때에는 배경대성원들이 앉을 자리가 되고 경기관람시에는 출구로써도 쓸수 있게끔 집단체조 배경좌석이 꾸려져있다.

실로 모란봉경기장은 야외경기장으로서 어떠한 체육종목이든 얼마든지 할수 있게끔 현대적인 다기능적경기장으로 건설되었다.

여기 모란봉경기장에는 혈전만리 불구름 헤치시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개선광장에 높이 모시였던 불멸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1945년 10월 14일! 오매에도 그리고 기다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모신조선인민의 감격과 환호는 하늘땅을 메아리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군중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면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감격과 무궁한 새힘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라도 귀전에 들리듯, 그날의 감격, 그날의 환호가 울려오는듯 무성한 수림은 아지를 뒤채기며 끝없이 설레인다.

모란봉경기장 언덕우로는 구름을 허리에 휘감고 하늘을 찌를듯 아찔하게 솟은 텔레비존방송탑이 눈부리 모자라게 쳐다보이는데 저멀리 북서쪽으로는 대성산유원지와 줄기뻗은 감북산 그리고 장산, 아미산이 아련히 솟아있고 주체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웅장한 건물이 흐뭇이 안겨온다. 아득히 보이는 고방산과 함께 동북쪽으로는 평양에서 경치좋은 고장의 하나로 손꼽히는 주암산이 소소리 높이 솟아있다.

최승대를 내린 우리는 청류벽우에 자리잡은 부벽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모란봉에서 가장 손꼽히는 운치와 풍경을 가진 이 정자는 아찔한 절벽우에 뿌리를 박고 서있어 그 기개 또한 무쌍하다.

발밑으로는 굽이치는 대동강물결이 해빛에 번쩍거린다. 그 너머로는 황금과도 물결치는 사동, 미림의 넓은 벌이 아득히 펼쳐보인다.

시야가 확 트인 부벽루는 청류정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곳이다.

보람찬 로동을 마치고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수도근로자들이 청류정을 거쳐 청류각, 판풍정, 전금문을 지나 부벽루로 물결처럼 밀려든다.

청류벽아래로 넘실대며 흐르는 대동강 한복판에는 배전이 넘치게 물고기를 낚아실은 긴 나루배가 물위에 두둥실 떠있는 모양같이 생기고 그 경치가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다운 룡라

도와 떠오르는 반달같이 생김이 아름다운 자그마한 섬 반월도가 짙은 가을의 정서에 함뿍 취한듯 고요히 드러누워있다

수천수만마리의 물고기떼가 흰 배배기를 드러내고 옥실거리듯 해빛에 부서지며 번쩍거리는 백은탄(릉라도와 반월도사이를 흐르는 여울)의 물결은 또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가.

생울타리처럼 온 섬기슭을 두르고 선 무성한 수양버들이 불어오는 강바람에 휘휘 춤을 추는데 우거진 숲사이로는 사람들이 얼핏얼핏 보이고 축구장에서도 경기가 한창이다.

록음우거진 롱라도는 이처럼 수양버들이 많아 수양버들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겨울의 마감기운이 강가에 서리고 쌀쌀한 바람이 땀기를 안고 불어오던 봄날에 몸소 이곳 롱라도를 찾으시어 친히 전나무와 꽃벚나무를 심으시었다.

실하게도 자란 이 의의깊은 나무들은 우리 인민에게 세세년년 행복한 락원을 꽃피워주시고 이 땅을 록음우거진 강산으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길이 전하러는듯 끝없이 설레인다.

대동강변을 따라 중중첩첩한 기암괴석으로된 높이 천척의 청류벽은 산세가 험한 가파로운 절벽이다.

더구나 청류벽의 수려한 풍치는 대동강과 모란봉의 두 아름다움이 서로 한데 어울려 조화로운 경치를 이루어서 절경이 집중한곳이라 말할 수 있다.

그야말로 최승대와 부벽루에서 모란봉 전체와 평양일대를 구경한다는것은 자연이 가져다준 아름다움의 진면모를 다 보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옛날 수많은 시인들과 관광객들이 청류벽의 험한 절벽을 뚫아올라 감탄의 시구들을 남겨놓았다.

하나 우리 인민은 자연속에가 아니라 오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시었으며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신 존함을 영원히 살아있는 글발로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대를 이어가며 새기고 또 새겨넣는다.

청류정까지 와서 잠시 휴식을 한 우리는 평화정과 모란폭포를 지나 5.1교근방에 다달았다. 주변에는 살구, 배, 복숭아 등 과일나무들과 진달래, 해당화, 병꽃나무, 조팝나무, 매화꽃나무, 모란꽃나무 등의 꽃관목들이 뭉치뭉치 심어져 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란봉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공원건설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면서 모란봉을 더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기 모란봉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살구나무를 구경가자고 하면 살구나무를 볼수 있고 진달래를 구경하고싶으면 진달래를 구경할수 있게끔 나무를 뭉치뭉치 심어아 좋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깊으신 사랑을 이야기해 서인가 수십년간 자란 술밭과 무성한 수림은끝 없이 속삭인다.

록음길은 모란봉에는 수십여종을 헤아리는 갖가지 나무들이 자라고있다.

특히 모란봉입구의 살구꽃, 청년공원의 함박꽃과 복숭아꽃, 울밀대의 모란꽃 유보도를 따라 피어나는 벚나무꽃과 두봉화, 최승대와 흥부각의 진달래꽃이 한창 만발할 때의 모란봉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백화만발하는 봄의 꽃계절, 여름의 시원한 록음 방초, 가을의 풍만한 단풍, 흰눈을 쓴 겨울의 정갈하고도 그윽한 모습, 실로 사철 절경을 이룬 모란봉이다.

때마침 딱따구리의 나무쫓는 소리가 수림속에서 들려온다. 마치도 자기들만이 좋고 아름답기 이룰데 없는 천하명승 모란봉에 와있다는듯이 딱따구리의 나무쫓는 소리와 콩새, 양진이 등의 새의 령롱한 울음소리가 장단치듯 가락맞게 숲속을 울린다.

모란봉에는 새들도 많다.

가다가 며칠 묵고 다시 길떠나는 나그네와도 같이 가을과 봄이면 모란봉에 내려앉아 며칠 살다 날아간다고 하여 러조라고 불리우는 새들인 도요루, 흰눈섭티티새들과 여름한철의 무더위를 피하여 무성한 모란봉속을 제집처럼 생각하고 고운 목청 돌구어 마음놓고 지저귀는 황금같은 피꼬리, 밀화부리, 개구마리를 비롯하여 70여종이 넘는 새들이 모란봉을 보금자리로 삼고 마음껏 날아댄다.

자연속에 깃을 편 새들만아니라 진주닭, 비둘기, 칠면조, 꿩 등의 조류들과 원숭이, 다람쥐, 사슴, 노루같은 짐승을 넣어기르는 여러개소의 소동물사와 조류사들도 사람들의 흥취를 자아내게 한다.

조선사람들의 다정다감한 정서와 흥취에 맞게 돌, 물, 화초, 나무들을 잘 조화시켜 정각도 짓고 못도 만들고 수중다리도 놓고 해서 조선식공원으로 정원처럼 꾸리라고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해빛을 안고 락원으로 꽃피는 모란봉!

우리는 인민들이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모란봉을 내렸다.

모란봉이여 무궁토록 번영하라!

주체조선의 자랑이여! 아름다움이여!

연구사와 녀기사

조승찬

1

신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나지막한 둔덕위에 자리잡은 공학연구소의 기계연구실 실장방에는 두사람이 마주앉아있었다.

이마가 넓고 하관이 빨라 펴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40대의 장년은 이 방의 주인인 윤설현이고 그와 마주앉은 손님은 신문기자 오현수다.

오현수가 이곳에 도착한것은 방금전이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수도의 변화한 거리에서 약간 치우친 신문사의 아늑한 방에 앉아 이달 마지막원고의 집필을 끝내고있었다. 그랬던 그가 이곳으로 급히 떠나오게 된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좀해선 흥분할줄 모르던 편집부장이 어느때없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와 도수경을 번쩍이며 오현수에게 출장 떠날것을 부탁했었다. 한것은 지방의 한 연구소에서 기계공학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적의의를 가지는 철절단법을 성공시켰는데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이곳 연구소 실장이라는것이였다. 그는 벌써 3년전에 학계에 과문을 던진적이 있는 재능 있는 연구사다. 그가 오늘 또다시 새로운 철절단법을 성공시켰다니...

반가운 일이였다. 취재대상은 틀림없이 좋은 기사감을 마련해줄것이였다.

편집부장의 흥분은 곧 오현수에게 전달되었고 그 흥분을 안고 그는 부랴부랴 취재길에 올랐다. 쾌속으로 달리던 차가 승역에 이르러 멎어서자 차에서 내린 그는 그길로 곧장 연구소를 찾았고 저녁무렵에는 윤설현과 이렇게 한자리에 마주앉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윤설현은 오현수에게서 찾아온 용무를 듣더니만 천만뜻밖에도 취재대상을 잘못 찾아왔다는것이였다.

《잘못 찾다니요?》

오현수는 의아해졌다.

《새로운 철절단법을 완성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 녀기사입니다. 두 아이가 달린 아주머니이지요.》

《예?!》

오현수는 또한번 놀랐다. 그가 듣기엔 분명 윤설현이라고 했는데...

그는 알수 없는 미궁속에 빠져버리듯 혼란된 심정을 수습치 못한채 증얼거렸다.

《모를 소리군요. 제가 듣기엔 분명...》

《잘못된 반영입니다.》

윤설현은 그의 말머리를 끊으며 성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물론 제가 그 사업에 관여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했는가고 가르자면 마땅히 정은희기사를 첫자리에 꼽아야 합니다.》

윤설현은 생각이 깊은 낮빛으로 의자등받이에 몸을 켜며 오현수를 바라보았다. 오현수의 의문은 더욱 커졌다.

《듣고싶습니다.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군요.》

《그렇습니다.》

윤설현은 긍정하였다. 그리고도 잠시 불깃한 낮빛으로 앉아있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

...3년전 어느 일요일 저녁이였다.

오래동안 잃어버렸던 생활의 활기가 되찾아 온듯 기쁨이 넘친 방안은 떠들썩하였다. 여직 말없이 남편의 눈치만 살피며 수심이 어렸던 안해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넘쳐났고 엄격하고 무뚝뚝하던 윤설현도 이날만은 무릎에 매달려 칭얼대는 애들의 떼질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 더없이 기쁜 날이였다. 그토록 고대하던 학위논문이 성과적으로 통과된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바라던 이날이었던가.

연구소에 배치받아 처음으로 달라붙었던 초강질에 대한 새로운 철절단법이 7년만에 실현 불가능이라는 처참한 결말을 빚어냈을 때는 그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었다.

비난과 문책... 그도 물론 많았지만 명색 연구사라는 사람이 7년이나 공밥을 먹으면서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식객으로 살아왔다는 뼈아픈 자책이 더더욱 그를 못견디게 괴롭혔다. 젊은 기분에 들떠 부질없는 욕망을 앞세운탓에 빚어진 후과였다.

그는 고민하였다.

《고민을 털고 일어서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파제를 맡는다면 자네는 꼭 성공할 걸세.》

그의 재능과 성실성을 의심치 않았던 가까운 벗들은 이렇게 위로하였다.

피로운 낮과 밤은 며칠간 계속되였다.

밤마다 방에선 불이 오래도록 꺼질줄 몰랐고 아침이면 안해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를 한숨속에 내다털곤하였다.

그러던 어느 하루 그는 낡은 실험자료들을노끈으로 꿰뚫어매어 책꽂이에 깊숙이 묻어버렸다. 숨진 자식을 묻는듯한 아픈 심정이었다. 했지만 그는 새로운 철절단법에 대하여 다시는 상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는 벗들의 충고를 따라 새 과제를 맡았다.

그 새 과제를 맡은지 3년, 단능설비를 만능화, 고속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그는 끝내 새로운 개척지를 열어놓았다. 그의 실패를 두고 우려하던 벗들도 성공한 오늘엔 제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곁같이 차려진 행복이었다. 그 행복,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윤선헌은 소독없이 흘려보낸 지난 7년이 분하게 느껴졌고 오늘의 이 기쁨을 좀 더 일찌기 가져올수 있었으리란 아쉬운 생각을 버릴수 없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서재에 앉아있던 그는 밖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계세요?》

귀에 설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가에 봄철외투를 단정하게 입은 30전후의 한 여성이 서있었다.

《누굴 찾으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여자는 알은체하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우고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어디서 봤더라?

윤선헌은 그저 어리둥절했다.

《어디서 오셨는지?…》

《기계공장에서 왔습니다.》

《기계공장이요?!》

기계공장이란 말에 윤선헌은 긴장해졌다. 그 기계공장에서 7년세월을 헛되이 보냈던 그는 거기서 불시에 찾아온 이 여성의 출현이 심상찮게 여겨졌다.

《저… 한가지 문의할것이 있어와서…》

그 여자는 서슴어하는 기색으로 낯을 붉히며 말했다. 무엇인가 긴요한 문제를 토론하려는모양이었다. 윤선헌은 그를 자기의 방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 그 여자는 잠시 서재의 이모저모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훑어보더니 윤선헌에게 돌아앉았다.

《선생님은 혹시 저를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3년전에 기계공장에 새로 배치받아온 현장기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윤선헌은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리유를 깨달았다. 다년간 그곳에 나가있긴 했어도 새로 온

너기사와는 기억할만한 교제가 있을적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선생님이 새로운 철절단법연구를 왜 중도에 그만두셨는지?…》

《중도에 그만두다니?!…》

너기사의 질문에 그는 가슴이 섬찝했다. 자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확정한후 할수없이 돌아서고만것인데 너기사는 중도에 버린것으로 단정하는것이였다. 그 한마디의 물음은확위문문을 통과시킨 자부와 긍지로 밝게 개였던 그의 기분을 한순간에 잡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윤선헌은 그 녀성의 물리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도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했다.

《나는 그만둔게 아니라 안된다는것을 론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볼수 없을까요?》

너기사는 당돌하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윤선헌은 어느 정도 불쾌하였다.

《그건 무엇에 쓰려오?》

《왜 안된다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실험자료들을 보면 너기사는 틀림없이 자기를 리해하리라고 타산한 윤선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장문을 열어젖힌 그는 한쪽구석에 깊숙이 묻어버렸던 낡은 자료들을 끄집어냈다. 놀리웠던 책투경은 벌써 누렇게 뜨기 시작하였다.

그 책을 보니 윤선헌은 쓰린 추억이 되살아오르며 가슴이 아팠다. 비록 빛은 보지 못했어도 7년세월을 고스란히 바쳐 얻어낸 그 자료들은 귀중한것이였다. 그 하나하나의 자료에는 젊은 시절에 바친 창조의 열정과 번민이 그대로 담겨져있는것이였다.

깊은 감회에 잠겨 자료철을 끄집어낸 윤선헌은 그것을 너기사앞에 내놓았다. 너기사는 자료철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몇장을 번져보았다. 그러나 앉은자리에서 10여권이나 되는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볼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너기사는 책장에서 머리를 들었다.

《좀 가져가봐도 일없겠습니까?》

《좋도록 하시오.》

윤선헌은 쾌히 승낙하였다.

너기사는 자료철을 보자기에 정히 쫘다.

《안됐습니다, 선생님!》

얼마후 자리에서 일어선 너기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자 오던 때처럼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그를 바래주고난 윤선헌이 방에 들어오자 안해가 묻는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기계공장에서 왔다누만.》

그는 대수롭지 않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아이들과 마주앉았다. 그러나 어제선지쥬전의 흥그럽던 기분은 되살아오지 않았다.

그는 서재로 올라갔다.

문가에 홀로 앉자 그는 저무는 창밖을 묵묵히 내다보았다. 너기사의 맑은 눈길이 되살아오르며 까닭모르게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었다. 한주일이 지나서 그 너기사는 다시 그앞에 나타났다. 그전과 달랐던것은 그가 무척 흥분되어있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걸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

윤설현은 흥분한 너기사를 멍히 쳐다보았다. 혹시 자기의 문헌자료를 그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나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어 그는 두툼한 자료철을 뒤적거리며 은근한 어조로 물어보았다.

《이걸 다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주장은 백번 정당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잖아요.》

《글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 방법이 없다고야 할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선생님도 처음은 막연했지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지요. 그러나 해놓고보니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도 아깝소. 후회가 크단말이요. 나는 내가 걸은 쓰라린 전철을 다른 동무들만은 걸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

너기사는 속눈썹을 내리칸채 아무 말이 없었다. 섭섭해하는 기색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실망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얼마후 너기사는 무엇을 결심한듯 고개를 쳐들었다.

《선생님...》

하고 그는 썩 소심한 어조로 힘들게 입을 떼는 것이었다.

《그럼 이 자료들을 저에게 줄수 없겠어요?》

《?!...》

너기사의 청은 그를 당황케 하였다. 실패는했을망정 쉽사리 남에게 내줄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다.

그는 간절한 눈매로 쳐다보는 너기사의 눈길을 피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너기사가 얼굴을 붉히며 미안스런 어조로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청을 하는줄은 알아요,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력을 소비했겠는가를 충분히 느낄수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철절단법을 완성하자면 이 자료가 꼭 필요하겠기에...》

《?...》

윤설현은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 이 너기사는 단독으로 이 사업을 재개할 의향이 아닌가. 7년 세월을 헛되게 흘러보낸 선행자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너기사의 당돌한 태도가 천진스럽게 느껴졌다. 일종의 고집같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 심정을 터놓고 말할수 없었던 윤설현은 너기사의 청을 물리칠 근거가 없었다. 편협한 인간이란 말도 듣고싶지는 않았다.

《내야 이미 버린거나 다름없는것인데 그야말 어렵겠소마는 하여튼 심사숙고하길 바라오.》

윤설현은 험한 기색으로 너기사가 가져온 자료보따리를 그앞에 내밀어주었다. 그러자 너기사의 눈에는 한없이 고마움에 찬 크나큰 감동이 비껴가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3

《그를 보내놓고난 뒤였습니다.》

하고 윤설현은 담배를 피워물더니 다시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한동안 일손을 잡지 못한채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잃어버린듯한 허전감과 공허감이 가슴속을 휩쓸면서 마음이 좀체로 안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너기사, 은희라는 기사는 실험자료뿐만아니라 나에게서 생기와 열정마저 앗아간듯싶었습니다.》

왜 이렇가? 무엇때문에 이렇게도 마음이 허둥거려지는 것일까?

은희기사가 사라진 창밖을 멍히 내다보며 서성거리던 나는 한순간 우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단념해버렸다고 여겼던 새로운 철절단법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나의 가슴속에 너무도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것입니다.

나는 지난날을 더듬어보았습니다. 추호도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과학탐구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가능한 노력은 다한것 같았고 또 그렇게 믿어온 나였습니다.

하지만 너기사의 방문은 확실히 그 믿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던 은희기사의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혹시 그의 주장이 옳은 것이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리하여 나는 저녁마다 새로운 철절단법을 놓고 여러모로 모색해보았습니다. 참고서들도 뒤적여 보았지만 결과는 매번 한가지였습니다. 다른 방법이란 있을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정당성을 확증이나 하듯 실험에 착수한 은희기사도련일 실패만 거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들만은 내가 걸은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랐던 나는 은희기사의 일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내려가 바로잡아줘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짬을 낼수 없어 하루이를 미루어오는 사이 어느덧 반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렇스름 나의 가슴에 결정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험에 착수했던 은희기사가 폭파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연구소에 더 앉아있을수 없었습니다. 한 달만에 현장으로 달려갔던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실패는 상상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휘어진 철골이며 깨어진 실험대, 여기저기 널려진 공구들로 어수선했던 작업장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물켜와 웅성대고있었습니다. 급한 고비는 이미 넘긴듯싶었으나 사람들의 얼굴엔련일 실패로 오는 그늘이 비껴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 섰는데 누군가 앞쪽에서 불쑥 일어서며 짹 소리치는것이었습니다.

<왜 죽지 부러진 새처럼 이러구들 앉아있어? 뭐 하루이틀에 성사될줄 알았나?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해보잔말이요.>

그는 절단작업반장 장운섭아바이였습니다. 그를 보자 나는 가슴이 선히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나의 연구사업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종당은 불가능이란 종지부를 찍고 떠나가는 나를 보고서는 침울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섭합니다, 연구사동무. 그러니 영원히 불가능하단말이지요?>

그 반장이 사고친 이 마당에서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끝장을 보자고 호소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꼭 나더러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때 반장이 이쪽으로 돌아서다가 나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그는 약간 놀라는듯했으나 이어 낯빛은 땡땡해졌습니다.

<오셨소?>

장운섭이 마지막해 하는 인사였습니다. 하긴 별로 반가울것도 없을것이었습니다. 결코 그 실패를 바라서 내려온것은 아니었지만 장운섭반장의 푸짐없는 태도는 나로 하여금 무척 거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기사가 많이 다쳤습니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지요.>

반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시 눈물이라도 쏟을듯이 참담하게 변하는 반장의 무거운 낯빛을 보자 나는 그 자리에 서있기가 괴로웠습니다. 그 낯빛엔 은희기사에 대한련민의 정만이 아닌 나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이 분명 비껴있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현장을 돌아보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자 나는 곧바로 은희를 찾아병원으로 갔습니다.

폭파때에 잠간 의식을 잃긴 했어도 다행히 크게 다친데는 없어서 은희기사는 침대에 엮히스듬히 앉아있었습니다.

<아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는 나를 보자 무척 반가와했습니다. 손에 들었던 책을 얼른 베개우에 내려놓고 그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서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가볍게 제지시키고 원탁앞의 결상을 끌어다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일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은희기사에겐 나의 출현이 아무래도 리해되지 않았던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불이 훌쩍 꺼지고 입술이 갈라져서 반년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나는 은근히 놀랐습니다. 은희를 통해 지난날의 자기를 보는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결말이 오리란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행자로서 막지 못한 가책이 또한 컸습니다.

<보셨겠지요. 선생님?>

이윽고 은희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묻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현장을 돌아보고 오는길이라고 하자 은희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쓸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또 실패예요.>

<너무 걱정 마시오. 우선 몸을 좀 돌봐야겠습니다.>

나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은희의 건강이 진심으로 념려되었습니다.

<제몸은 일없어요, 실험만 성공한다면야...>

<허허허, 우물에 가 송봉을 찾겠군. 지금은 판쟁각 말고 꼭 쉬시오.>

나는 그가 잘못된 길에 대하여 각근히 말해주고싶었으나 가뜩이나 심리적으로충미 클 그에게 자극을 주고싶지 않아 그 말만은 애써 피했

습니다.

그때 은희기사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것이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확정을 바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묻는것일가, 혹시 동요되는 마음을 견잡지 못해 그러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아무리 상대가 침상에 누운 사람이라 해도 값싼 동정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미련을 줌으로써 가까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게 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두번 다시 짓게 될 과오로 남을지도 모른다, 사태는 벌써 그런 일이 빚어지고있지 않는가. 은희는 지금 진심을 요구하고있다. 진심엔 진심으로 대답하는것이 사람의 옳은 도리일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속에 없는 빈말로 그를 위안하고싶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적어도 오늘의 현조건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

<.....>

은희의 낯빛은 변했습니다. 그를 보는 나의마음도 좋지 못했습니다. 공언한 말을 했구나싶은 후회가 들었으나 아무때든 해야 할 말이였기에 피로운대로 나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은희의 실망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노여워는 마세요.) 어느 과학이나 막론하고 절대적인 한계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요.>

<하다면 선생님, 선생님은 더 전진해야 하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의힘으로는 몹시 부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또 하자는겁니까?>

<그럼 이제 물려서겠어요?>

<?! >

<?! >

우리의 놀람은 다같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놀람의 성격은 서로 상반되는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같이 깨달았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주오. 무슨 단서라도 천게 있습니까?>

나는 진심을 담아 물어보았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흘려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후회만 남을지도 모를 그 길을 그에 택하려는 은희동무의 심정이 무엇때문이지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기사입니다. 현장에선 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지 않습니까?>

<리유란 그게 다란말이요?>

<선생님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 ...>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과연 나는 그이상 무엇을 바라는것일가? 하지만 은희기사에 대한 우려의 근심만은 버릴수 없었습니다.

<글쎄 성공하면 몰라도 실패하는 날엔 문제가 간단칠 않습니다. 비난도 클게구...>

<각오하고있어요.>

은희의 결심은 철석같았습니다.

보통고집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속으로 혀를 내찔었습니다. 나로서는 그의 결심을 돌려세우기가 어려우리란것을 깨닫자 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여튼 치료를 잘 받으시오. 뭐니뭐니해야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얼마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인차 올라가시겠지요?>

같이 따라나오려는것을 만류하는 나에게 은희가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며칠 와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봐주세요. 엉터리가 아니겠는지...>

은희는 베개밑에서 종이마리를 꺼내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도면을 인차 보지 못했습니다.》

윤설현은 이미 죽어버린 담배를 재털이에 내려놓으며 오현수를 던지시 쳐다보는것이였다.그 얼굴엔 한가닥 고뇌의 빛이 어려있었다. 아마 그때의 괴롭던 추억이 되살아오는 모양이였다.

《기사장이나 지배인을 만나 헛되이 고생하는 너기사의 결심을 돌리는데 협력하도록 하자는것이 병원문을 나서면서 한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나는 은희기사가 진행한실험자료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진행한 실험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실패한 그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점에 이르러 나는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한 방법은 벌써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였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지만 거기엔 새길을 개척해보려는 너기사의 대담한 시도가 보였습니다. 실험결과치도 처음것과 마지막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은희기사가 봐달라던 도면이 생각나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도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그러낸 도면우에는 실로 엉뚱한 착안이 담겨져있었습니다. 기존관념과 상식을 벗어난 그 방법에 나는 처음 어리둥절했습니다. 얼핏 보면 환상같았지만 따지고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착안을 궁리해냈을까?)

충격이 큰것만큼 의문 역시 작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은희기사를 만나 그 의문을 물었을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었습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존방법으로는선 생님이 안된다는것을 확증한 이상 저는 다른길을 모색할수밖에요...>

리치는 단순하고도 명백한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발명이나 진리도 알고보면 쉽다순하듯이 그가 택한 방법 역시 그런것이라는데 나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해볼수 있는것은 다 해봤노라던 나의 위안은 완전히 깨여졌습니다. 결국 나는 시련을 회피하고 난관앞에 주저앉고만 나약한 인간이었지 성실하지도 참되지도 못한 연구사였다는 패닉은 자책이 처음으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날밤 나는 잠들수 없었습니다. 연구사업을 다시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꼭 성공하겠는지는 알수 없어도 새로운 방법이 나진 이상 나는 그 결말을 보는것이 량심이 가리키는 옳은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은희기사의 충실한 방조자로말이지요. 그랬었는데 글썽 은희기사는 그걸 3년만에 성공시켰단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연구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마당에서 그는 그 모든 영예를 나에게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습중에 있긴 합니다만 참말로 그리 쉽지 않은 녀성입니다.》

윤설현의 얼굴엔 빗발같은 환희가 넘쳐났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의 고심참담했던 가지가지 일화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며 그 경제적우월성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상세히 들려주는것이였다. 그의 설명만 듣고도 오현수는 새로운 철절단법의 성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가슴이 부풀도록 느껴졌다.

취재수첩은 대번에 몇장이 넘어갔다. 오현수는 흡족하였다.

《듣고보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현수는 취재수첩을 접으며 감동으로 불길하게 상기된 얼굴을 쳐들었다.

(얼마나 훌륭한 녀성인가!)

처음 이 소식에 접했을 때 느껴지던 예감이, 반드시 큰 반향이 기대될 기사감을 취재할수 있으리란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기뻐다.

날은 이미 저물어 벌겍게 타던 석양빛 노을

도 스러지고 어둠이 내린 창밖정원길에는 수는 등이 밝게 비치고있었다.

오현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래일은 그 녀성, 기계공장 녀기사를 찾아갈결심이었다.

4

그러나 그 녀성을 만나기 앞서 오현수는 그 날저녁 러관으로 가는 길가에서 병사시절의 옛친구를 만나 뜻깊은 상봉을 나누게 되었다. 10년만에 만난 그들의 상봉은 감격적이였다.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이나 빙빙 돌아가던 두친구는 10년세월에 몰라보게 변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껄껄 웃었다.

《정말 자네가 여기 있을줄은 몰랐네. 엉? 동기!》

《그럴테지. 몇해전에 이곳 도시설계사업소로 소환돼왔네. 그런데 자네 어떻게?...》

《취재왔네.》

《취재? 그러구보니 신문에 자주 나던 이름이 자네였군그래. 가만 왜 이러구 섰나? 어서집으로 가세.》

친구는 그제서야 행길가에 서있다는 생각이 들었던듯 서둘러 오현수의 가방을 앗아들었다. 그리고는 무작정 그를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기쁨에 겨워 큰 키를 꺼블썩거리며 앞서가는 친구 박동기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오현수의 감회는 깊었다. 병사시절 오현수는 누구보다 그를 좋아했다. 눈덮인 조국의 초소에서 잠복의 밤을 지새울 때면 뜨끈한 불독을 가져다 말없이 깔아주던 전우였다. 십년세월에 모색은 변했으나 소탈하고 푸수한 인상만은 여전하였다. 다만 한가지 그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때 있었던 상서롭지 못한 일만 아니였던들 박동기에 대한 오현수의 감정은 더없이 깨끗한 우정으로 남아있었을것이였다.

제대후 2년간 그들은 새로 건설되는 화학공장건설장에서 함께 일했다. 직장은 서로 달랐어도 합숙호실만은 한방이였다. 병사시절에 맺어진 우정은 사회생활속에서 더욱 두터워지고 깊어졌다. 함께 제대된 많은 동무들이 가정을 꾸리고 새집을 받아 나갈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합숙생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오현수는 박동기를 찾아온 한 처녀를 보게 되었다.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처녀였다. 지난 여름 휴양갔다가 알게 된 처녀라는데 어느 극장 무용배우라는것이였다. 처녀는 그후에도 몇번 합숙정문앞에 나타나군했다.

오현수는 그들의 사립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한순간에 부서지고말았다. 그 처녀와의 교제를 중계해주려는 친구들의 청을 박동기가 거절했던것이다.

뜻밖이었다. 실상 그만한 녀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을텐데 것처럼 아름다운 처녀를 마다하다니...

어느 정도 아쉽게 여겨졌던 오현수는 어느날 박동기에게 그와의 친교를 재계할것을 권고하였다. 친구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직접 나설 의향도 표시하였다. 그러나 박동기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그를 놀라게 한것은녀자란 아무튼 아름다와야 할텐데 그가 그렇지못하다는것이였다.

오현수는 아연했다.

(이 친구 단단히 바람이 들었군.)

그 어떤 믿음이 배반당한듯 속이 불끈해졌다. 그러나 적중한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그는 불쾌한 낯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로골적으로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박동기는 그제서야 느물느물 웃으며 설명을 달았다.

《물론 그 동문 호기심가는 처녀임에 틀림없네. 오히려 나에게야 과남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뭐랄까, 우린 서로 이해도 부족하고...》

《됐네 됐어. 그만두게!》

오현수는 돌아서고말았다. 더 듣기가 역스럽고 불쾌했던것이다.

아름답지 못하다?!... 흥! ...

그는 쓰겁게 웃으며 그에게 자극이 되라고아픈 소리를 했다.

《두고보세. 이제 고르다고르다 뒤고르지 않나.》

그랬던 오현수였다...

10년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오현수의 머리속엔 문득 그 일이 떠오르며 입가엔 병긋 웃음이 그려졌다.

어떤 녀자가? 것처럼 아름다운 녀자를 찾던 사람이였던만큼 그의 안해는 물론 아름다울것이다.

박동기의 집은 멀지 않았다. 중심거리를 벗어나 희미한 가로등이 어슴푸레 비치는 꺾음길에 들어서자 길게 늘어선 아파트가 나졌다. 그의 집은 3층 맨 가녁에 자리잡고있었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선 박동기가 안에 대고 소리쳤다. .

《여보, 귀한 손님이 왔소.》

그의 떠드는 소리에 부엌문과 안방문이 동시에 열리며 부엌에선 그의 처가, 방안에선 두아가 우르르 밀려나왔다.

《어서 오세요.》

녀인이 물물은 손을 행주치마에 씻으며 공손히 고개숙여 인사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총각애와 처녀애가 쏘르르 달려와 합창이나 하듯 동시에 고개숙여 깎듯이 인사하였다.

오현수는 무릎에 매달리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박동기의 안해에게 답례를 하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이 어찌나, 방이 어지러운데...》

녀인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였다. 그는 박동기에게서 가방을 받아들자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순간 오현수는 실망하였다.

축간 얼굴, 가무스름한 낮빛에 주근깨가 다문 다문 박인 박동기의 처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녀자는 아니였다. 다만 두눈섭아래 은근히 빛나는 리지적인 눈과 어딘가 모르게 준수해보이는 의젓한 기품만이 그 녀자의 사람됨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할뿐이였다.

오현수의 눈앞엔 무용수처녀의 모습이 언뜻 떠올랐다. 두 녀인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는것은 실로 인간의 알곳은 심사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오현수는 그런 내색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첫순간 그는 방안이 몹시 정갈하고 아늑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비록 다림질하던 이들의 옷가지들이 한쪽에 널려있긴 했으나책장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고 옷장과 이불장은 문이 꼭꼭 닫겨있었다. 불빛에 어른거리는 장판바닥도 깨끗하였다.

(알뜰한 살림군이로구나!)

오현수는 감탄하였다.

그가 자리에 앉자 총각애가 쏘르르 달려가여러가지 색깔의 조각천을 이어만든 폭신평신향방석을 들어다 그앞에 내놓았다.

《아저씨, 여기에 앉으라요.》

그러자 처녀애도 하얀 토끼를 그려붙인 유치원가방속에서 사탕알을 꺼내왔다.

《좀 잡수랴요. 우리 유치원에서 내준거야요.》

처녀애는 웬일인지 그 출처까지 밝혔다. 초롱초롱한 맑은 눈으로 오현수를 빠금히 쳐다보는 두 아이의 눈빛엔 저들의 진정을 거절하지않으리란 순진한 기대가 어려있었다.

오현수는 두 아이의 소행이 기특하여 박동기를 쳐다보며 웃었다.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감동이 컸다.

《참 용쿠나. 이름이 뭐지?》

오현수는 두 아이를 끌어당겨 무릎위에 올려 앉혔다. 사내애는 일여덟, 처녀애는 대여섯,한창 장난 심하고 부잡스러운 나이들이었던만고

애들의 웃은 단정하였다. .

그때 방문이 열리며 과일쟁반을 든 박동기의 안해가 들어섰다.

《아니 애들이 정말... 철이, 어서 내려앉아요. 숙제를 안해?... 맛스러워도 좀 드세요.》

녀인은 과일쟁반을 오현수앞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살그머니 일어나 공손히 움직였다. 나갈 때 그 애들은 또다시 꾸벅 절을 하고 나갔다.

기특한 애들이었다. 그 나이포래의 애들이란 흔히 응석받이가 되기 쉬운 일인데 그 애들을 이렇듯 레절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바쳤을 그 어머니의 수고가 충분히 헤아려졌다.

그리하여 오현수는 박동기의 안해를 새삼스럽게 다시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창가에 마주앉았다. 그간 쌓였던 회포도 나누고 인상깊던 추억도 더듬어본 뒤여서 그들의 마음은 별로 다감해졌다.

둘이는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밖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아득한 창공엔 달빛이 푸르렀다. 어디선가 서정가요의 은은한 선율이 저녁바람에 실려와 그들의 가슴을 한껏 들먹이게 했다. 창드림도 바람결에 가볍게 흐느적이었다.

이윽고 박동기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머칠 목겠지? 공연히 러관에 들 생각 말고 집에 와 다니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나 실컷 나누자구.》

《고맙네. 그러나 사실은 바쁜 걸음일세. 래일 기계공장을 취재하고는 인차 떠나야 하네.》

《기계공장? 거기선 뭘 취재하자는건가?》

《한 너기사의 위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네.》

《너기사의 위훈이라니 ?》

박동기간 의아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세상엔 참 기이한 일도 있구만. 공학연구소에서 큰 발명을 했다가에 부랴부랴 내려와보니 정작 그걸 완성한 사람은 이름있는 연구사인것이 아니라 공장의 한 너기사라지 않겠나. 그 너기사는 한 연구사가 7년이나 하고도 못한것을 3년만에 끝내 완성했다더군.》

《허허허, 자넨 귀가 좀 넓구만.》

《그건 무슨 소린가?》

《그래 그걸 끝이듣나?》

《끝이듣다니?》

오현수는 어리둥절하여 박동기를 뻔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박동기는 외면한채 창밖만 멍히

내다보았다. 혹시 그 내막을 잘 모르니 그럴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오현수는 연구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죄다 설명해주었다. 그러느라니 취재때의 흥분이 되살아올라 열이 올랐다. 그러나 박동기는 여전히 씩씩한 기색으로 앉아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 한 연구사가 7년이나 하고도 못한것을 너기사가 3년만에 성공하게 된것이 그 너자가 특별히 총명해서일가?》

나도 기술자네. 어느 과학이나 막론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엔 선행한 경험과 이론에 기초하는 법이네. 듣자니 이번엔 연구했다는것도 실은 선행한 연구사의 공적이지 너기사의 공적은 아니라더군.》

《뭐라구?!》

오현수는 억이 막혔다.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좀체로 종잡을수가 없었다.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수 있느가. 한때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긴 했어도 의협심만은 강한 청년이여서 전우들의 존경을 받던 그였다. 그가 이렇게도 랭담한 인간으로 변했다말인가. 분명 박동기는 너기사의 성과를 별로 신통해하는것 같지 않았다.

혹시 박동기와 그 어떤 불쾌한 인상이라도있는게 아닐가. 실사 그렇다쳐도 사람이 옳자면 공정한 립장에 서야 할것이 아닌가.

오현수는 오랜만에 만난 뜻깊은 자리여서 잡친 기분을 그대로 표현할수는 없었어도 한마디만은 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하지 말게. 만약 그 너기사가 자네 말을 듣는다면 꼭 노여울걸세.》

《허허허.》

오현수는 진정 노여웠으나 박동기는 배심줄게 절절 웃었다. ,

《이런 말에 노여워할 너자라면 그런 기사는 서푼짜리 기사도 못되지. 자, 이런 이야긴 그만 두세.》

그때 사이문이 열리며 박동기의 안해가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이 피곤해하시겠는데 당신은 그저 말만 하세요? 선생님 어서 좀 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현수는 가볍게 사의를 표했다.

《글쎄 우습지 않소. 오선생이 새로운 철절단법을 완성한 너기사를 만나기 위해 래일 기계공장으로 간다오.》

《기계공장이요?... 너기사가 뭐 한게 있겠다구...》

《여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오. 그걸 사실대로 말했다고 지금 오선생이 이렇게도 언짢

아하는거요.》

《네?! …호호…》

너인은 웃었다. 그 웃음은 저르기 언짢아졌던 오현수의 기분을 아예 잡치게 하고말았다. 그리 잘 생긴진 못했어도 레절만은 바른 너자로 알았던 박동기의 안해는 결코 그런 너자가아니였다. 부부일체라더니 어쩌면 생각하는것이 신통히도 박동기와 같을가.

그러나 초면인 너인앞에서 그 심정을 그대로 터놓을수 없었던 그는 껍 가라앉은 목소리로 박동기만 나무랐다.

《자네 듣게. 난 사실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늘 새라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에 가슴이뜨거울 때가 많네. 그럴 때면 자신이 이 복된 사회, 훌륭한 사람들속에 살고있다는 취할듯한 행복감으로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어. 그러나 간혹 이 밝은 세상에서 아름답지도 고상하지도 못한 현상에 접할 때면 알겠나. 털어놓고 말해서 뒤에 앉아 시비나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언짢단말일세.》

《허허허.》

박동기는 또다시 껄껄 웃으며 낮이 붉어졌다.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누만. 됐네. 그이 야긴 정말 그만하세. 별참은 이야기를 가지고 괜히 친구간에 의리나 상하겠네.》

그러나 오현수의 잡쳐진 기분은 오래도록 가셔지지 않았다.

5

다음날 아침이었다.

기계공장을 찾은 오현수는 해당한 수속을 하느라 정문에서 약간 지체한 나머지 해가 퍼그나 솟았을 때에야 기술부앞에 가닿았다. 청사의 문앞에 들어서며 그를 안내하던 지도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 동문 위낙 겸손한 동무여서 취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겁니다.》

《그건 녀려 마십시오.》

오현수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장담했다. 아직 취재에선 실패가 없었던 그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한번도 주저하거나 난감해본적이 없었다.

《글쎄 기자선생에게는 어떤 재간이 있는지는 몰라도…》

2층현관으로 올라가며 통조로 이렇게 말하던 지도원이 기술부란 명판이 붙은 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가볍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자 은희동무, 기자선생이요!》

지도원이 소리치며 성큼 들어서는 어깨너머로 네모방정한 방안이 들여다보였다. 벽을 향해

나란히 놓인 맨끝 책상에 돌아앉았던 한 녀성이 자리에서 황황히 일어섰다. 그 녀자는 오현수를 보며 웃고있었다. 그 순간 오현수의 놀람은 얼마나 컸던가.

《아니, 아시오?》

지도원이 심상치 않은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압니다.》

그는, 그는 다름아닌 박동기의 안해였다.

사연을 듣고난 지도원이 껄껄 웃었다.

《그러니 일은 차라리 잘되지 않았소. 아마도 기자선생의 장담이 맞을것 같소.》

지도원이 나가버렸다. 했어도 오현수는 한동안 어이없어 입을 열지 못했다. 맹랑한 일이였다. 그렇게 감쪽같이 속히다니. 그래서 박동기가 이죽거렸됐군. 내숭스런 친구같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취재할 생각은 잊고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 은희를 가볍게 나무랐다.

《미안해요… 전 정말 선생님이 저때문에 오셨다는것을 알고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

은희는 변명조로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런 때의 변명이란 부질없는것이기때문이었다.

오현수는 짐짓 노여운 어조로 엄포를 놓았다.

《발뺌할 생각은 아예 마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도원동문 은희동무를 취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거라고 귀뜸합니다.》

《정말 야단이네.》

은희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붉혔다. 공연히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며 오현수를 지켜보던 은희는 그가 취재수첩이며 만년필을 책상 위에 꺼내놓자 속눈섭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였다.

《한숨까지 설 필요는 없습니다. 취재에만 순순히 응해준다면 엿저녁 숙인것쯤은 용서해줄 용의는 있으니까요.》

《호호… 선생님두 참.》

굳어질사했던 은희의 낮빛은 또다시 풀어졌다. 그러나 귀밑에 어린 홍조만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오현수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묵묵히 대답을 기다리는 그 태도엔 말보다 몇배 더 집요한 무게가 있었다. 더는 그앞에서 침묵을 지킬수 없음을 깨달은 은희가 잠시후에 낮빛을 고쳐지으며 입을 열었다.

《정말이예요. 새로운 철철단법을 완성하는데서 제가 한 일이란 별로 없어요. 제가 한것을구태여 밝힌다면 기존관념에서 벗어나 방법을새

롭게 해보자는 착안을 내놓은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전시켜 완성한 사람은 윤설현연구사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겸손한건 물론 좋은 품성입니다마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제 말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은희는 정색해서 오현수를 곧추 쳐다보았다. 했을 때 그 녀자의 얼굴엔 좀전에 떠돌던 수집음과 당황함같은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렇지요.》

《아니예요!》

은희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는 오현수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럼 선생님은 수년간이나 연구해놓은 문헌 자료들을 누구나 선뜻 내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본인도 말하다싶이 이미 버린거나 다름없던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해도 누구나 선뜻 내주는것은 아니예요. 자기희생적인 각오가 없이는 자신의 창조적산물을 쉽게 내줄수는 없어요.

그랬기에 그는 제가 실험중에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왔고연구장소를 다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제가 내놓은 새로운 착안을 처음으로 지지한 사람도 그였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도와준것도 윤설현연구사였습니다. 사실 말해서 윤설현연구사의 기초실험자료가 없었던들 저는 새로운 착안을 하지 못했거예요.

이번 연구사업에 바쳐진 저의 노력으로 말한다면 우리 공장 기사장이나 절단작업반장인강윤섭아바이보다도 못한거예요.

우리 기사장동무는 이 부문이 전공이 아니면서도 연구사업을 돕기 위해 수십권의 문헌을 뒤지고 참고서들을 마련해줬고 장윤섭아바이는 자신이 먼저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부상까지 입었었어요. 그러니 공정하게 말해서 이것을 완성한 사람은 윤설현연구사지 결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가 무슨 큰일이나 한듯이 떠들어대고 축하해주고있으니...전 정말... 부끄럽습니다.》

《!!》

가식이 없는 말이었다. 녀인의 그 소박한 말은 오현수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해 하였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곳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주인공을 취재하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그 주인공을 찾기가 어려워본적은 없었다. 그는 필경 은희한테서도 윤설현연구사나 다름없는 말을 듣

게 되리란것을 푹푹히 깨달았다.

그는 자기앞에 단정히 앉아있는 이 녀인, 가무잡잡한 얼굴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여있는 은희의 모습을 한없이 감동에 찬 눈길로 쳐다보았다. 몸은 비록 체소하고 두드러진데는 없어도 호수의 수면처럼 은근한 눈길이며 의젓한 몸가짐이 더없이 돋보이게 하는 이 녀인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녀자가 이 세상 또 어디 있을가싶었다...

그는 윤설현이 어찌하여 은희를 두고 그토록 자랑을 금치 못했었으며 박동기가 말하던 아름다운이란 무엇이었던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듯싶었다.

(훌륭한 녀성이다!)

새로운 기계의 발명이 가지는 의의도 물론크지만 자기가 먼저 써야 할것은 바로 이런 인간, 이런 기사에 대한 송가를 쓰는것이 아니겠는가.

오현수는 바로 이것,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회, 주체의 조국에서만 새라새롭게 창조되는 참된 인간에 대한 노래, 시대의 찬가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싶은 강한 충동을 억제할 길 없었다.

행복한 취재길이었다.

그는 이 녀인에 대하여 잠시나마 나무라왔던 생각이 부끄러워졌다. 그리하여 오현수는 가슴속에 솟는 감동에 대하여 터놓고 말하고싶었으나 정작 일어서며 한 말은 그와는 전혀 다른것이였다.

《취재에만 잘 응해줘도 용서해주자고 했는데 자기 이야긴 끝내 안하는군요. 안되겠습니까. 어제 <속인 죄>에 오늘 취재에 불응한것까지 합치면 그 <죄>가 실로 이만저만이 아닌데 초면에 은희동무에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대신 주인한테는 단단히 값을 받아내야 하겠습니까.》

《호호... 어젠 정말 너무 갑자기 오셔서...그래서 오늘은 엿저녁 푸대접한것까지 봉창하자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또 몰라도...하하하.》

둘이는 마주보며 유쾌히 웃었다.

× ×

그 얼마후.

신문지상에는 《연구사와 녀기사》라는 표제하에 4면의 전단을 차지한 큰 기사가 실려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윤설현연구사와 정은희기사에 대하여 쓴 기사 오현수의 글이였다.

영원한 불빛

리 석

10월초순 치고는 류달리 잠풍한 밤이다.

도시는 고요에 잠기고 하늘의 못별들도 이 땅의 행복한 생활이 부러운듯 유난히 반짝인다.

나는 이런 밤거리를 걷는것이 언제나 좋다. 하루의 피로도 이 길에 서면 시원히 풀리는것이다.

늦게야 퇴근길에 오른 나는 일부러 새로 선거거리쪽으로 에돌아가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때면 의례히 다시 올수 없는 보람찼던 하루일이 스스로 돌이켜진다.

지금 나의 머리에도 바로 오늘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염색직장 염색공들이 제2차7개년계획을 3년 8개월에 앞당겨 끝냈다고 알리던 방직공장 당비서의 웃음어린 얼굴이며 노동자들을 발동하여 새 용해방법도입에 성공하여 소재문제를 풀었다던 기계공장 지배인의 활달한 모습이며...

이윽고 나는 변화한 거리입구에 들어섰다.

대낮처럼 밝은 가로등, 경쾌한 선과 웅심깊은 립체미와 선명한 색깔로 조화를 이룬 고층문화주택들... 하늘을 찌를듯 키돋움하는 황홀한 그 모습앞에 걸음을 멈추고 선 나의 눈길은 불빛이 흐르고있을 당중앙창가쪽으로 쏠리었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이 땅의 먼 미래를 꽃피우려 저렇듯 환히 흐르는 은혜로운 사랑의 불빛, 저 불빛이 비치는곳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 불빛을 받아 사람마다 영생의 삶을 받아안고 약동하는 생활의 한길을 힘차게 확보한다.

진정 보고보아도 또 보고싶은 저 불빛은 사람들에게 생과 희망을 주고 투쟁과 위훈을 주며 행복과 번영을 주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빛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참으로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이 물밀듯 차오른다.

그 언제인가 내가 수도의 번두리에 자리잡고있는 한 건재공업기지에 찾아갔을 때 한 당원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던 어느날이다.

혁신의 불꽃을 날리며 만부하로 돌아가던 소성로가 뜻하지 않는 일로 식어가고있었다.

소성로를 보수하고 다시 불을 지피려면 적어도 열흘이상은 걸려야 했다. 한초한초가 것처럼 귀중한 때 로가 숨결을 멈추었으니 소성공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불안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바로 이무렵에 공장 초급당비서가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소성로와 함께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온 로당원의 손목을 묵묵히 이끌고 원토장이 있는 대동강가로 걸어나갔다.

공장열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곳이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달아오른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식혀주었다.

원토장에 커놓은 전등불들이 하늘의 성좌가 내려앉은듯 황홀했다.

그 불빛들을 한동안 바라보던 초급당비서는 깊은 추억에 잠기며 조용히 말하였다.

《김동무, 저 불빛을 보라구.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만. 25년간 단 하루도 꺼진적이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단 하루도 꺼진적이 없습니다.》

로당원도 감회깊이 대답하였다.

공장의 오랜 로동계급들과 더불어 이들도 이 동쪽에서 원토장의 불빛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정전직후에 있었던 그날이 떠오르곤하였다.

정전을 한달 앞둔 1953년 6월초 어느날, 가렬한 불비속에서 평양시 복구건설을 구상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이곳에 나오시여 벽돌생산지지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정전이 된지 3일만에는 평양시군중대회가 끝나는 그길로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갓 생산을 시작하여 공장구내가 어수선했다가 많았으나 들끓는 공장의 모습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민들이 건너다보고저 공장이 평양시를 복구건설하는 공장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장에 불도 환하게 켜놓고 야간에도 계속 작업을 할수 있게 조건을 잘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밤부터 강남별은 불야성을 이루었다.

실로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수도시민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히 켜주신 저 불빛을 보면서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를 얻어 재더미만 남았던 우리 평양을 웅장하고 화려한 현대적도시로 일

떠세우지 않았던가.

초급당비서는 말없이 로당원의 손을 굳게 잡았다

《김동무, 어버이수령님께서 28년전에 켜주신 저 불빛은 오늘도 당중앙의 뜨거운 손길아래 저렇듯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것이 아니겠소. 우리 영원히 충성의 불빛이 되어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자구.》

그 순간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에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이 밤도 지새우며 창조의 새세계를 펼치는 당중앙청사쪽을 향해 머리를 돌리었다.

그들뒤에는 많은 로동자들이 나와 서있었다.

그날 밤.

《동무들! 우리는 전승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시고 언제나 바라보시는 공장의 불빛을 단 한순간도 죽일수 없소!》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달아오른 로속에 젖은 가마니를 쓰고 뛰어들었다. 초급당비서가 앞장서고 그날의 로당원들이 뒤따르고... 사로청원들도 지원자들도머리를 기웃거리던 일부 일군들까지도 눈굽을 적시며 뛰어들었다. 이윽고 소성로는 숨을 튕기 시작했다.

그날의 불빛은 이렇게 더욱 밝게 찬란히 빛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에 지펴주신 불빛과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가는 당일군과 당원들의 투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심장과 지혜와 힘을 주었던가!

언제나 당중앙의 높은 창가에서 마주보이는 불빛! -

그 불빛이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영원히 불타고있기에 그들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거센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대학습당의 터전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사

그저녁중으로 벽돌생산과제를 스스로 두배나 불구었고 당에서 문수거리설계를 보아주었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는 스스로 거기에 필요한 벽돌의 매수를 계산하며 새 창안을 두고 밤을 지새였다.

오늘 당중앙의 은혜로운 빛발을 받아 더욱 빛나는 마음의 불빛을 안고 이 땅에 피어나는 충성의 이야기는 어찌 그들속에서만 찾아볼수 있으랴!...

나는 다시금 걸음을 멈추고 당중앙창가를 우러른다.

뜻깊은 10월의 밤바람이 어디선가 꽃향기를 실고 한껏 부푼 나의 가슴을 어루만진다. 화려하게 솟아난 탑식문화주택의 어느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기타의 은은한 선율이 가슴을 흔든다.

나의 눈앞에는 당중앙창가에서 마주보이는 원토장의 불빛처럼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타오르는 창조의 불빛들이 어려온다.

그 불빛들은 우리의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나날이 더 밝게 빛나는것이 아닌가!

나는 걸음을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당중앙의 불빛을 우러른다. 저 불빛이 저렇듯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빛인양 잠들줄 모르고 비쳐가고 있기에 이 땅우에 태어나는 모든 기적과 혁신의 불길은 거세차게 타오르는것이다.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에도 언제나 꺼질줄모르는 불빛! - 당중앙의 불빛을 우러러 빛나는 멀리 북방의 대형용광로의 불길이며 천길지하막장의 태양등빛이며 외진 섬마을의 등대불빛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꽃피워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가는 충성의 불빛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뜻깊은 10월의 이 밤, 나는 승엄한 감정에싸여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도시는 고요에 잠기고 하늘의 뭇별들도 이땅의 행복한 생활이 부러운듯 유난히 빛난다.

일 잘하는 용접공총각

김우경

흰구름 피어나는 철탑우에서
용접의 불꽃을 날리는 총각
영예사진 찍자고 내려오라 했더니
공사를 끝내고야 내리겠대요

아 우리 용접공 일 잘하는 총각
용접혁명 불길높이 앞장서가요

하늘의 번개를 잡아쓰나요

구름우에 걸터앉은 용접공총각
꽃다발 받으라고 내려오라 했더니
용접의 꽃보라만 뿌려주어요

건설장에 무쇠기둥 세워나가는
일솜씨도 부러운 용접공총각
언제나 용접면을 쓰고있어도
그 얼굴 처녀들은 모두 안다오

동트는 언제우에서

리웅렬

때; 현대
곳; 어느 중형발전소 건설장
나오는 사람들
철진...발전소건설돌격대 대장
은숙...그의 애인, 창고장
형만...기사장, 은숙의 오빠
진수...발전소건설사업소 당비서
옥이...돌격대원
권로인...옥이의 할아버지
기타 청년 1, 청년 2, 청년 3, 처녀 1, 처녀 2
를 비롯한 돌격대원들, 립산로동자들, 농장
원들.

제 1 장

때; 초여름날 오후
곳; 발전소 건설장
무대; 물결이 출렁이는 산속의 호수와 그너
머 언제가 멀리 바라보이는 건설장,
구내의 소공원.
늘어진 수양버들, 아담하게 가꾼 꽃
밭이 있고 그 두리에 긴의자들과 작
업대가 하나 놓여있다.

△ 막이 오르면
△ 분주히 오가는 청년들
△ 건설장의 소음
△ 옥이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속보를
쓰고있다. 그결에 꽃다발이 놓여있다.
△ 청년 1 달려온다.
청년 1; 옥이동무!
옥이; 아이 깜짝이야 (붓을 떨군다.)
청년 1; 젠장, 놀라긴? 무슨 새소식이 있
소?(책상을 질오려다 넘어질뻔한
다.)
옥이; 호... 왜 그리 덤벼요? 맹동문 덤비는
게 탈이야요.
청년 1; 덤비지 않는 맹진걸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소. 그러기 군대에서
7년내내 상등병이었지.
옥이; 호... 7년 상등병! 호...
청년 1;(속보를 보며) 뭐... 《백년홍수, 만년
홍수도 문제없다!》 《언제를 더 높이
기 위한 첫 타입에 돌입!》 아니 그런
데 왜 이 맹진결상등병이 200%한 소
식이 없소?

옥이; 200%요? 정말요?
청년 1; 맹진걸의 둘째 특징은 솔직성, 셋째
특징은 용감성이란걸 몰우?
옥이; 아이참, 자요! (꽃다발을 준다.)
청년 1; 엉?! (받으며) 옥이동무!
옥이; 그 대신 래일은 300% 해야 돼요.
청년 1; 왜 300%겠소! 1000%도 문제없지.
자.(손을 내민다.)
옥이; 아이, 저기 동무들이 와요.
청년 1; 올테면 오라지. 다들 좀 봤으면 좋
겠소.
옥이; 아이참 (청년 1의 손을 뿌리친다.)

△; 청년들 웃으며 떠들며 다가온다.

청년 2; (두사람을 보며) 여 이거 우리가 잘
못 온게 아니야?
처녀 1; 글썄요, 무슨 행사가 있었나?
청년 1; 젠장, 꽃다발수여식에 환영곡 연주
가 빠졌소. (눈을 찔끔한다.)
청년 2; (일부러) 그-래 하...

△ 모두 유쾌히 웃는다.
△ 은숙 급히 달려온다.

은숙; 동무들, 돌격대장동무 못봤어요?
청년 1; 못봤는데, 애인이 모르는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은숙; 아이참...

△ 처녀들 키득거린다.

은숙; 아이 룡담이 아니예요. 큰일났어요 큰
일!
지금 언제건설장에서 강도가 낮은
세멘트 타입하고있어요.
옥이; 그게 무슨 소리야요?!
청년 2; 누가 언제건설을 망치려는게 안야?
청년 1; 해독행위요.
옥이; 동문 그것도 모르고 타입을 했어요?!
청년 1; 젠장, 또 내가 덤빈탓이지.
처녀 1;헌데 련합기업소에 간 대장동문 왜
아직 안올까요?

△모두 술렁거린다.

처녀 3; 가만 세멘트 창고장인 동무가 출고

했을까 안야?
 은숙; 글썄 내가 잠깐 뜬 사이에 창고원이
 글썄... (안타까와한다.)
 청년 1; 그런 세멘틀 누가 내라고 지시했소?
 청년 2; 누군 누구야? 기사장이지.
 옥이; 정말요?! 그래요? 은숙언니!
 은숙;
 청년 2; 답답하군, 기사장이 은숙동무 오빠
 데 따지면 뭐라겠소?
 처녀 1; 기사장동문 정말 옳잖아요!
 옥이; 당장 작업을 중지시켜야 해요. 그리구
 기사장동무와 담판을 합시다.

△ 청년들 호응한다.

청년 3; 가만... 기사장동무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텐데... 사실 이미 쌓
 은 언제를 더 높이는 부문에야 그
 런 세멘틀 써도 되잖을까?
 청년 1; 똥판지같은 소리 그만해. 이 친구
 그저 기사장이라면 오금을 못쓰거
 던.
 청년 3; 체, 사실 지금 언제를 더 높이자는
 건 《백년홍수》를 예견해서 하는게
 안야. 그러니 계획외 공사를 하는
 조건에서, 또 당장 국가세멘틀 받기
 곤란한 조건에서, 또 구체적인 기술
 적타산에 기초해서 기사장동무가
 단을 내렸을거란말이야.
 청년 1; 제길, 무슨 조건과 타산이 그리 많
 아! 우리에게 오직 하나 만년대계
 의 언제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과
 립장이 있을뿐이야 안그래?!
 △ 청년들 《옳소!》《중지시킵시다.》 웅웅
 웨치며 달려나간다.
 △ 청년들, 은숙 나가고 무대엔 청년 3 만이
 남는다.

청년 3;...(기웃거리다.)
 형만; (지나가다)... 거 성진동무 아니요?
 청년 3; 기사장동지, 저 언제건설장에 강도
 가 낮은 세멘틀 내보냈습니까?
 형만; 또 말썽이 생겼소?
 청년 3; 아, 아닙니다. 그저...
 형만; 아무렴, 백년에 한번 있을지 말지
 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를 더 높이
 는데 귀중한 고강도세멘틀 쓰겠소? 그건 랑
 비요.
 국가적건지에서 볼 때말ियो.
 청년 3; 예, 저도 그런 의도라구 생각했습니
 다... 저 제 .도면을 보셨습니까?
 형만; 봤소. 무난하긴 한데 공장대학 3 학년
 생치곤 약해, 발견이 없어. 동무의 열
 굴이 안보인단말ियो.
 청년 1; 제 얼굴이요?
 형만; 좀 서툴어도 엉뚱한게 있어야지. 우린

동무나이때 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정
 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냈지. 결국
 그속에서 기적도 솟아나구. 위훈도 세
 똘지. 알만해?
 청년 3; 알았습니다.해보겠습니다.

△ 자동차 멎은 소리.
 《강재가 도착했다!》고 웨치는 소리.
 △두사람 그쪽을 보는데 철근통구릴
 멘 철진 다가온다.

청년 3; 대장동무! (달려간다.)
 형만; 아니 그건 웬 철근이요?
 철진; (탕하고 통구릴 메친다.) 기사장동무가
 걱정하길래 오는길에 강철공장에 들러
 서 떼지겔 써서 한차 뽑아냈지요.
 형만; 또 강타를 하나 먹었군. 하...
 역시 매부의 기백앞엔 기사장도 움작 못하
 겠거던 하...

△철진, 청년 3 도 따라 웃는다.

형만; 그래 연합기업소에선 뭐라던가?
 철진; 언제를 더 높이는건 좋다는거지요. 전
 기도 더 생산할수 있구. 대홍수도 막
 을수 있으니... 헌데 설계를 변경시키
 는만큼 《백년홍수》에 대한 기초자료
 를 철저히 갖추라는겁니다.
 형만; 암, 그것이 없인 이 기사장이 감자도
 장을 찍은셈이 되고말테니까 우선 그
 걸 책임지고 정비해주게.
 철진; 예, 그런데 벌써 언제를 높이는 추가
 공사를 시작했다면서요?
 형만; 매부의 주장을 접수한 이 기사장인
 처남이 할일이란 실천뿐이지.
 철진; 기사장동무, 거 자꾸 매부 처남 하지
 마십쇼. 어색하게...
 형만; 아닐세. 그러다 보수주의자의 누이라
 구 우리 은숙을 저버릴가봐 그러네 하
 ...
 철진; 그건 넘려 마십쇼. 또 보수주의를
 부리시면 뿌릴 뽑을 때까지 물려서지 않을
 테니까요.
 하...

형만; 하긴 내가 늙긴 늙은것 같애. 난
 자네가 돌아오는길에 철근까지 해결해올줄
 은 정말생각 못했네.
 청년 3; 아닙니다. 늙지 않았습시다. 난
 방금 도면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기사장
 동무가 지난날 착도를 타고 산밭을 넘나들
 었고 홍수때 장진강에 뛰어들었다는 기백이
 그냥 넘치고있다고 생각했습시다.
 형만; 아니 이 친구가... 그런 옛말은 그
 만두라구.
 청년 3; 아닙니다. 전 사실 기념일 때마

다 기사장동무의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을 볼 때면 많은걸 생각하게 됩니다.

형만; 여, 여, 정말 누굴 어찌자는거야. 다신 그런 소리 말게. 허 하지만 청춘시절에야 돌진하는 기백이 좀 있긴 있어야지.

철진; 참, 기사장동무, 무더기비가 예견된다는 기상통보를 받았습지요?

형만; 음, 그 한랭전선이라는게 정말 애를 먹이누만...

철진; 철야전투를 들어대서 언제를 높일테니 철근은 가져왔겠다 기사장동문 세멘트만 보장해주슈.

형만;알겠네. 당비서동무도 립산에 갔던 길에 목재문젤 풀겠다고 했네,

철진; (청년 3에게) 가세. (철근통구릴 멘다.)

형만; 아니 다리쉽이나 좀 해야지.

철진; 이틀동안이나 일을 못했더니 몸이 근질거려서 못견디겠습니다.

형만; 허... 사람두.

△ 철진 뒤따라 청년 3 달려간다.

△ 은숙 달려온다.

은숙; 오빠!

형만; 애, 아마 내가 매부는 꽤찮은 사람을 맞을것 같애.

은숙; ? (돌아선다.)

형만; 허... 쑥스럽긴... 참, 어머니한테서 잔치날자때문에 빨리 알리라고 편지가 왔더라.

은숙; 잔치구 뭐구 다 귀찮아요.

형만; 엉?!

은숙; 난 정말 오빠때문에 철진동무 보기가 막 부끄러워서 못견디겠어요.

형만; 너 언제 높이는 문제때문에 아직 성이 안풀렸구나. 내가 손들고 양보했으면 됐지...넌 아직 몰라. 일단 설계를 놀려놓은 후에 추가공사를 한다는건 단순한게 안야. 추가자재, 시공기일, 로력문제, 걸리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야... 허지만 내 다 양보하고 철진이 주장대로 하잖았니.

은숙;기껏 양보했다는게 강도가 낮은 세멘틀 내준건가요?

형만;애 은숙아!

은숙;난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실무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처리할수 있어요? 여기에 어디 공사를 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이 있어요?

형만;너 이 오빠 뭘로 생각하니? 그래 공사의 질을 소홀히 한다면 내가 저 수만립방이나 되는 몰탈속에 티끌 하나 섞일세라 골재와 세멘트를 선별하고 또 선별하도록 요구했겠니?

은숙;오빠!

형만;내 말을 마저 들으래두. 다 기술적

타산이 있기때문에 지방세멘틀 낸거야. 그리구 당장이야 어디 국가세멘트의 예비가 있니? 그야 창고장인 네가 더 잘 알게 아니냐!

은숙;추가자재를 받아야지요!

형만;제발, 너까지 이러지 말아. 가뜰이나 지배인이 장기질환으로 누워서 온 건설장을 혼자 안구 뛰는판인데. 그래 내 언제 식탁에 편히 앉아서 밥술 드는걸 봤냐?

은숙;오빠!

형만;걱정 말아. 기술적으로 내가 다 책임져! (행하니 나가버린다.)

은숙;...그럼 내 생각이 잘못했단말인가!... 오빠의 타산이 옳단말인가!...(생각에 잠긴다.)

△ 이때 언제쪽에서 메질하는 소리.

은숙;?

△ 청년들 왁작 떠들며 나온다.

청년 2; 험데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처녀 1; 무슨 생각말이예요?

청년 2; 대장동문 세멘트 애길 하나까 제껴 《함마!》하더니 쿵하고 콩크리틀 까기 시작하잖어?

은숙;그럼 저 소린 새로 타입한 콩크리틀을 까내는 소린가요?

청년 1;까내잖구 제길 나도 《작업중지!》터 해놓고 돌격로를 어떻게 열것인가...

청년 2;체, 상등병동무, 여기가 뭐 전선인줄 알아? 돌격로요 뭐요 하면서...

청년 1;이 등보야, 전선이 아니구 뭐야?!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이지. 료리사의 습성이 안떨어져서 종일 먹을 궁리만 하니 머리가 돌랐이 있나!

처녀 1;아 이 료리사가 어쩔다구 그래요. 만준동문 우리 고향에서 소문난 럭기선수였어요.

청년 2; 흥, 그래두 선희동문 예술소조공연때 이 만준이가 객석에 바우처럼 척 앉아있어야 맘이 놓이구 춤추기도 신난대.

처녀 1; 어마나! 거짓말. 이 동무가 정말... (청년 2의 등을 때린다.)

청년들 하...

처녀 2;저런, 아프지도 않나봐.

청년 2;등골이 시원하구 좋기만 하우. 하...

△ 모두 웃는다.

△ 철진 자루가 부러진 함마를 들고나온다.

철진;함마 가지러 떠난 사람들이 웬 웃음판

이요?

청년 2; 아니 함마자루가 부러졌나요? 일이
찌누만...

청년 1; 오늘은 타입에서 기록을 내구 오락
회를 한번 신나게 펼치자고 했더니.

철진; 왜? 본때있게 한번 벌리자우.

청년들; 예?!

철진; 벌리되, 무더기비가 예견된다니까 콩크
리틀 까고 쌓는 공사를 제껴 끝내고
풀안이 들썩하게 해보잔말이요.

△ 청년들 환성을 올린다.

청년 2; 좋습니다. 함마자루는 내 갈아오지요.
그대신 첫순서로 대장동무의 병사의 춤, 그다음
은숙동무와의 2 중창도 불러야 합니다.

철진; 왜? 내 독창은 빼구?!

△ 청년들 좋아라고 박수를 친다.

철진; 그리구 진걸동무와 옥이동무의 쌍무
《꽃다발춤》도 있어야지. 어쩡소?

청년들; 좋습니다!

옥이; 어마나 대장동문... (달려간다.)

청년 1; 좋아하긴 젠장... 하...

△ 또다시 웃음이 터진다.

△ 모두 신나서 달려나간다.

철진; ...정말 얼마나 좋은... 모두가 영웅감
들이지 ...

은숙; ...

철진; 고맙소, 동무가 제때에 발견했기망정이
지 무슨 일을 저지러번했소.

은숙; 난 난 정말...

철진; 내 다 안다니까... 사실 동무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웃긴 하지만 가슴아
픈 일이요. 난 기사장동무가 차마 이러
게 나을줄은 몰랐소.

은숙; 철진동무, 그런데 오빠 언제의 옷부분
이기때문에 일없다니 정말 난 어떡하면
좋아요?

철진; 뭐요?! 그럼 동무도 이제 와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단말이요 ?

은숙; ...철진동무.

철진; ... (말없이 거닌다.)

△ 사이

철진; 은숙이, 우리가 무엇때문에 누굴 위해

서 언제를 세우고있소? 우리자신들과
더 많은 전력만을 얻기 위해서요? 그
뿐만이 아니요. 우리 인민이 큰물이라
는 자연재해를 모르는 영원한 행복만
을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기 위해서요. 때
문에 우리의 언제는 비록 작아도 티끌
만한 흠집도 없는 만년대계의 구조물
이 되어야 하구. 언제를 쌓는 우리 가
슴에 조그마한 빈구석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난 생각하우.

은숙; 철진동무... (낮을 돌린다.)

철진; 은숙이... 지금은 이 산속에 언제만이
숫구 저수지가 하나 생겼을뿐이지만 이
제 저 산중턱에 대리석기둥에 받들린
휴양각들이 일어서구, 물고기떼 춤추는
맑은 호수에 돛배와 뽀트가 달리구 거
울엔 스케트장이, 집집마다엔 전기난방
이 들어가구... 난 이렇게 호수가에 설
때면 달빛이 부서지는 호수가를 거닐며
행복에 겨워 기쁨에 넘쳐 은혜로운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는 정다운 동무
들의 얼굴이 가슴에 막 안겨오는것 같
소.

은숙; 철진동무, 먼 후날 세월이 흘러서 언제
엔 이끼가 끼구 그때 가선 이 산골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겠지만 그때두 사
람들은 여기서 발전소건설의 첫삽을 뜬
우릴 회상할가요?

철진; 그럴수도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건 우
리가 쌓은 저 언제가 지심깊이 뿌리박
고 언제까지라도 끄덕없이 서있어야 한
다는것이지... 그리구 제대군인 진걸이,
료리사출신인 만준이, 옥이동무... 모두
가 다 혁신자로 영웅으로 자라서 락동
강에도, 한강우에도 조국의 언제를 세울
것이란 그것이지...

은숙; (새삼스레 철진의 모습을 지켜본다.)

△ 청년 2 큰 함마를 량어깨에 둘러메고 달
려온다.

청년 2; 대장동무!

철진; 수고했소. 가가요!

△ 철진과 청년 2 뒤따라 청년들 함마를 메
고 언제쪽으로 달려간다.

△ 이윽고 콩크리트를 까는 소리.

△ 은숙 나가려는데 형만과 청년 3 들어오다
선다.

형만;웬 함마질 소리요?
청년 3;저게 바로 콩크리틀 까는 소립니다.
형만;그걸 보고도 그냥뉘! (달려가려다.)
은숙;오빠! 가지 마세요.
형만;?
은숙;저 소린 콩크리트뿐아니라 나나 오빠
의 머리속에 낀 때와 먼지를 털어주는
비판의 메아리소리예요.
형만;너 무슨 녀두릴 하니? 창고장이라는게
세멘트가 막 녹아나는데!

△ 형만 달려나간다.
△ 함마소리는 계속된다.
△ 사이

청년 3;허참, 큰일났군. 이럴수도 없구 저럴
수도 없구. 은숙동무가 잘못했어요. 기
사장동문 다 타산이 있어서 그런건데.
은숙;...동무의 설계도면이 왜 늘 퇴짜를 맞
는지 오늘이야 알았군요.
청년 3;건 또 무슨 소리요?!

은숙;주대없이 남의 뒤편리만 따라다니단
머저리가 된다는걸 모르나요?
청년 3;체! 나중엔 참...(나가려다.)

△ 형만 청년들을 앞세우고 들어온다.

청년 1; 기사장동지!
형만; 글쎄 안돼! 내 승인 없인 언젠에 못
하나 박지 못해! 언젠에 뭘지 생전처음
보는 주제에 엉치에 뿔부터 나가지구.
청년 2; 우린 추가공사라고 언젠을 되는데로
쌓으려는 현상관 타협할수 없습니다.
형만; 뭐가 어쨌다구?!

철진; 기사장동무, 작업조직은 제가 했습니
다.(청년들에게) 가서 대기하라구.

△ 철진 청년들을 돌려보낸다.
형만;...동무 생각엔 세멘트가 하늘에서 폭
포처럼 막 쏟아지는것 같소?
철진;.....
형만;세멘트 한그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가말이요!
철진;압니다. 메질을 하는 우리도 가슴이 아
픕니다.
형만;아픈 사람이 제손으로 콩크리틀 까부
신단말이요?! 제멋대로.
철진;토론없이 한건 잘못했습니다. 허지만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량심이 허락치 않
습니다.

형만;량심? 그럼 당장 발전기실 공사에 쓸
세멘트를 백년에 한번 있을지 말지 한
큰물을 생각해서 언젠에 쏟아부어야 하
겠나?

철진;기사장동지!
형만;또 강도가 낮은 세멘틀 타입하면 래일
당장 언젠에 무너진단가?!

철진;하지만 그런 콩크리트언젠에 어떻게
큰물이야 막아내겠습니까! ...
우리 발전소 건설자들은 단순한 콩크리
트언젠에 아니라 그속에 계급의 량심,
당원의 량심을 묻은 충성의 탑, 만년대
계의 탑을 세워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때문에 티끌만한 흠집이 생겨도 까
내고 다시 쌓아야 합니다.

형만;자네, 정말 날 가르칠 셈인가! 그래 골
재 하나하나를 물에 씻고 한줌의 세멘
트도 골라가며 질적으로 쌓을걸 요구
한 사람이 누군가? 이 형만이지? 하지
만 이 기사장이 세멘트공장 지배인이
야 아니지 않나!

철진;추가자재를 받아야지요. 당장 무더기비
가 온다는데 우선 있는 세멘틀 쓰면서
또 받아다가 쓰면 되질 않습니까?!

형만; 누가 요구만 하면 추가자재ل 제격 보
내준다던가? 또 무더기비가 곧 《백년홍
수》는 아니구 당장 큰물이 오는거야 아
니지 않나!

철진;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수도 없지요. 만
약에 이번 무더기비가 《백년홍수》라면
...

형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론쟁을 하자
는게요? 《백년홍수》란 말을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하오.

철진; 기사장동무, 이건 론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행수를 바라면서 일을 혁명적
으로 내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랭전선
의 영향을 디디고 일어서서 공사의 성
과를 담보할수 있겠습니까!

형만; (단호하게) 공사에 대해선 이 기사장
이 책임지네. 동문 어서 추가자재나 받
을수 있는 큰물피해자료와 근거문건이
나 만들라구. 그리구 이 시각부터 일체
돌격대로력을 발전기실공사에 돌리게.
이건 참모장의 결심이구 행정지령일세.
(횡하니 나가다가)... 철진이, 난 그래두
자넬 생각해서, 자네가 제기한 문젬 풀
어보려고 예비를 총동원했네. 그런데 자
네가 만사람의 면전에서 이 기사장을
머저리로 만들구 이렇게 덤벼들줄은 몰

왔네.

철진; 기사장동무!

형만; 제발, 더는 날 건드리지 말구 지령을 집행하라구. (나간다.)

△ 뒤에서 듣고있던 옥이, 은숙 나온다.

옥이; 대장동무, 왜 말이 없어요?! 기사장동문 옳지 않아요. 추가자재요 뭐요 보장사업이 시끄러우니까 저러는거지 뭐예요?! 어떻게 그럴수 있어요?!

철진; 옥이동무!

옥이; 야, 대장동문 큰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여기 성북천 큰물에 돌아가셨어요.

철진;...그런 원한이 왜 동무에게만 있겠소...

옥이; 예?!

철진; 동무네 할아버지가 저 한두골 솟구이 작업장에 계신다지?

옥이; 예, 왜요?

철진; 아니요. ...옥이동무, 진걸동무에게 전하우.

오늘 타임한 콩크리틀 다 까치우라고! 몽땅!

옥이; 알겠어요. (달려나간다.)

철진;

△ 비구름이 물려든다.

△ 멀리서 우뢰소리.

△ 비방울이 떨어진다.

은숙; 이젠 어떡하면 좋아요?

철진;...(비를 맞으며 그냥 거닌다.)

△ 비는 소나기로 변한다.

철진;...당비서동무가 돌아왔소?

은숙; 립산에 가셨다가 아직...

△ 철진 그냥 서있다.

△ 사이, 방창이 울린다.

방창 사나운 비바람 휘몰아치고
눈앞엔 험한 령 막아나서네
가슴의 아픔이 더해갈수록
어머니당의 손길 간절하여라

은숙; 철진동무.

철진; 당비서동무를 만나야겠소.

은숙; 아니 이 비속으로... 철진동무.

철진; 만일 바쁜 일이 생기면 옥이동물 보내주...(터벅터벅 걸어나간다.)

△ 초연히 서서 바래는 은숙.

△ 비는 더욱 억수로 쏟아진다.

△ 무대 어두워지며 국부조명이 철진을 비치는속에 설화자의 소리.

소리 폭우속을 뚫고가는 길, 쉬임없이 퍼붓는 무더기비는 시내물소리 정답던 골짜기를 삼시에 물결의 란무장으로 만들었고 사태의 폭음속에 잠기게 했다.

△ 뒤무대에 범람하는 강물이 보이고 사태가 밀려내리는 골짜기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철진의 모습이 보인다.

소리 ...철진은 걷고 또 걸었다. 오직 당비서만이 그의 아픈 가슴을 알아주고 풀어주리라는 기대를 안고...

△ 무대 어두워진다.

제 2 장

때: 그날밤

무대: 산기슭 둔덕진곳.

왼쪽에 치우쳐 마치 넓은 불로크로 천정을 누른듯이 큰 너럭바위가 서있는데 그에 의지하여 권로인이 립시거처로 쓰는 살림방이 아담하게 꾸려져있고 창고로 쓰는 안락에는 높이 쌓은 솟가마니들이 보인다.

△무대 밝아지면 밤,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방안엔 전등이 켜져있고 진수 권로인과 얘기를 하며 일어선다.

△ 밤, 물소리 요란한 오른쪽 둔덕길에 사람의 그림자가 언뜻하더니 쓰러지는 모습이 보인다.

△ 진수 밖으로 나오고 권로인 뒤따른다.

권로인; 아니, 당비서어른, 이 어두운넬 어떻게...

진수; 아버지, 암만해두 이 무더기비가 심상칠 않아서 곧 건설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왔던길에 그 50 년전 홍수의 흔적을 좀 보려구요.

권로인; 비서어른, 정 그렇다면 이걸...(간데라에 불을 켜준다.) 험할텐데...

△ 진수 솟섬앞으로 사라진다.

△ 권로인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른쪽 둔덕길에 다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침병하고 물속에 굴러떨어지는 소리.

△ 권로인 놀라며 돌아본다.

△ 우뢰소리, 사태 밀려내리는 소리. 전기불이 꺼진다.

△ 권로인 등불을 켜들고 나선다.

△ 흙투성이가 된 철진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진다.

권로인; (그제야 철진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 일으킨다.) 이사람 젊은이!

철진;.....

권로인; (철진을 힘겹게 안아다 방안에 눕히고 더운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어준다.) 이사람, 정신차리라구.

철진; ... 으흠...

권로인; 젊은이! (흔든다.)

철진; ... (눈을 뜬다.)... 할아버지!

권로인; 정신이 좀 드나?

철진; 네, 물... 물을 좀...

권로인; (꿀물을 가져다주며) 어서 마시게 꿀물일세.

철진; (마신다.)... 제가 어떻게 여길?

권로인; 어서 눕게, 자네 분명 사태에 묻혔겠군그래.

철진; 예, 시간이 급해서 산락에 붙었다가 그만...

권로인; 응?! 이런 때 그런짓을 하단 귀신몰래 죽네. 허 참...

철진; 할아버지, 여기서 립산사업소까지 얼마나 멀니까?

권로인; 립산?

철진; 예, 거기 우리 당비서동무가 가셨는데 급히 만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로인; 그럼 자네도 건설장 사람인가?

△ 진수 방안으로 들어선다.

진수; (철진을 보자 다가오며) 철진동무!

철진;?...비서동무! (일어나서 다가가다 머리를 떨군다.)...

진수; 웬일이요?

철진; 제가... 제가...

진수; 어서 말하우 철진동무.

철진; 제가 언제에 새로 타입한 콩크리트를 갖습니다.

진수; 콩크리트를 까다니?

철진; 강도가 낮은걸 타입했는데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진수; 응?!..., 기사장동무가 그런걸 출고하게 했단말이지...

철진; 제가 철근을 해결하느라고 좀 늦어지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걸 기사장동무와 토의없이 함부로 까던지다가 그만

진수; 음... 기사장동무와 충돌한 모양인데... 돌격대원들도 욕했겠지?

철진; 예.

진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의논해서

처리해야지.

철진; ...면목이 없습니다.

진수; 고칩시다. 돌격대장이 그래서야 안돼지. 콩크리트를 까치운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건 아니지 않소. 그 콩크리트속에 엉켜있는 낡은 사상의 찌꺼기들도 송두리채 부셔버려야지.

철진; 비서동무.

진수; 물론 까치운건 잘했소. 그러나 기사장동무 자신이 까게 했다면 더 좋았을게 아니요?

철진; 제가 조급성에 사로잡혀서 그만...

진수; 기사장동무의 속마음조차 모르고있었으니 내가 일을 얼마나 거칠게 했소... 일군들이 당결정을 흥정하고 눈가림식으로 집행하게까지 했으니... 내 잘못이 많소...

철진; 비서동무.

진수;...(그제야 철진을 찬찬히 보며) 어디 다친덴 없소?

철진; 없습니다.

권로인; 그 사람이 사태에 묻혔었수다. 방금 피어났지요.

진수; 예?! 철진이.

철진; 저야 팔다리가 부러진들 뭐랍니까! 고치면 될걸...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비가 오니 공사가 늦어지는게 가슴아쁩니다.

진수;...철진동무 이걸 좀 보우. (수첩을 펼쳐 보인다.)

철진; 아니, 이건 50 년전 큰물피해자료들이 아닙니까

진수; 이 옥이 할아버지가 구체적인 자료를 주었소.

철진; 예?!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습니다.

진수; 아버님, 내 아까 얘기한 김정삼로인의 아들입니다.

권로인; 예?! 그럼 자네가 정삼이 아들이란 말인가?!

철진;?(어리둥절해진다.)

진수; 그전에 동무의 아버지와 이웃에서 살았다네.

철진; 예 ...

권로인; 허 참 세상에 정삼이가 살아있구 임자가 그 아들이라니... 비서어른, 50 년전 큰물관리때 이 사람네 부모가 산에 간 틈에 큰물이 들이닥치질 않았겠소... 끝날같은 형제를 큰물에 잃어버린 정삼이가 얼빠진 사람처럼 넉두릴하며 강변을 헤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웨다.

철진; 할아버지.

권로인; 임자가 세상에 태어나기전 일이지만 가슴이 아플테지... 흠 사실 지난날이 성북천 물관리때만도 술한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

철진; (대답없이 자료만 보고있다가) 그런데 그 50 년전 큰물피해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권로인; 있지, 있고말고. 다 썩긴 했지만...

철진; (일어선다.) 어디쯤에 있습니까?

진수; 방금 내 그 집채같은 썩은 나무뿌리랑 다 확인하고 왔네.

철진; 예?! 비서동무가요?

진수; 왜? 나도 이제 동무들한테 배워서 그만한건 판단할수 있소.

철진; 아닙니다. 비서동무 뻔했습니다. 뻔단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료와 일치합니다.

이제 저 왁새당굴과 곰굴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네 비서동무의 자료와 일치합니다.

진수; 그래?! 그럼 이제 이 성북천 큰물에 대한 과학적근거가 명백해졌단말이지?

철진; 비서동무, 이제 언제만 더 높이면 큰물이 질때마다 우리 산골사람들을 생각하시여 잘못이루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더는 심려를 끼치지 않게 뻔했습니다!

진수; 철진동무!!

△ 진수 철진을 뜨겁게 안는다.

△ 방창이 흐른다.

방창 따르는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불타는 그 충성 꽃피워주네

아, 가슴엔 오직 한마음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가리

△ 방창이 울리는 가운데 철진 진수에게 자료의 내용을 설명한다.

철진; 전, 먼저 떠나겠습니다. 기사장동물 설복하고 당장 언제공살 들여대야지 무더기비가 위험합니다.

진수; 내 먼저 가볼테니 동문 눈을 좀 붙였다가 새벽에 떠나라구.

철진; 그럼, 립산엔?

진수; 나무도 다 해결됐소. 어서 좀 늑게.

권로인;(갑자가 든 그릇을 가져다놓으며) 그 러참구. 방금 실신했던 사람이...

철진; 할아버지.

권로인; 어서 한알 들게.

철진;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권로인; 글썸, 생각과는 달라.

철진; 할아버지, 제가 누운들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두 물이 차올라오는 연제가 자꾸 눈앞에 언뜻거려서 못견디겠습니다.

진수; 그럼, 떠나가요.

권로인;...정말 불덩이같은 젊은이로군. (비서에게) 이런 사람들하구라면 산인들 못떠올기겠나!

△ 이때 전기불이 켜진다. 뒤이어 할아버지를 찾는 옥이의 소리.

옥이; (뛰어들며) 할아버지! 어마나! 비서동지, 대장동무!

권로인; 네가 웬일이냐?

옥이; 호... 내가 멋들어지게 알아맞혔군요. 두분이 다 여기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장동문 뭐예요?! 끊어진 전기줄은 이를 생각도 았구 락후하게 등잔불을 켜구...

△ 철진과 진수 서로 마주본다.

옥이; 내가 오면서 사태속에 묻힌 전선대를 세우고 전기줄을 이었어요.

권로인; 허, 계집애두... 헌데 혼자서 이 밤길을 왔단말이나?

옥이; 산돼지랑 짐승들은 천둥소리에 쫓겨서 굴속에 다 들어박혔는데 무서울게 있어요 머...

권로인; 허, 참.(허를 찬다.)

진수; 건설장은 어땡소?

옥이; 첫째, 비서동진 끝 군당으로 가서야 해요. 비상회의가 있어요. 둘째로 공사장은 전투장그대로지요. 총소리와 포소리가 았다뿐이지.

철진; 전투장?

옥이; 기사장동무가 목이 터지게 고향을 치면서 총지휘를 하는데 농장의 트랙톨강우기까지 몽땅 펼쳐나서 통탕거리며 연제에 차올라오는 물을 퍼내지.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건지느라 떠드는 소리, 비소리, 우뢰소리, 발동기소리, 아우성소리, 막 결사전을 벌리고있어요... 그리구 은숙언니가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당장 나더러 가보라는거지요 뭐.

철진;...언제엔 물이 얼마나 찼소?

옥이; 거의... 글썸 아무리 퍼내도 그냥 분는걸요.

철진;

△ 비서 철진을 한옆으로 데리고 가서 의논한다.

옥이; (품안에서 담배 몇갑을 꺼낸다.) 할아버지 피우세요.

권로인; 나? 나야 오히려 많은데...

옥이; 젓지 았았지요? 품속에 넣고도 젓을가봐 혼났네.

권로인; 원 계집애두...(한대 꺼내 불인다.)

진수; 옥이동무 지성이 지극하구만...

옥이; 아이 비서동지두…
 권로인; 글썄 내 저 엘 보내놓군 내 살점을
 떼여보낸것 같아서…
 진수; 할아버지 녀려 마십쇼. 얼마나 일을
 잘한다구요.
 철진; 옥이동무 떠나가요!
 옥이; 네.
 권로인; (옥이에게) 너 지름길을 알지?
 옥이; 그리로 왔는데요뉘. (철진에게) 골짜기
 론 50 리라도 뒤산 지름길론 시오리밖에
 안돼요. 참 비서동진 산마루에서 왼쪽으
 로 빠지면 군으로 갈수 있어요.
 진수; 그럼 이서 지휘를 하우. 우린 절대복
 종할테니까…
 옥이; 좋아요. 호… 그럼 출발!

△ 모두 유쾌히 웃으며 권로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다.

권로인; 애 옥이야.
 옥이;?
 권로인; 저 대장이란 사람은 금시 쓰러졌던
 사람이야. (옥이의 주머니에 감자를
 넣어준다.)
 옥이; 우리 대장동문 불속에서도 솟아날 사
 람이애요. 앓지 마세요 할아버지.
 권로인; 오냐… (밖에 나서서 바랜다.)
 옥이; 대장동무! (달려간다.)
 권로인;…(혼자소리)…계집애두, 넌 아직 저
 사람들의 속을 다는 몰라…

△ 비는 그냥 내린다.
 △ 무대 어두워진다.

제 3 장

때; 전장에서 련달아.
 곳; 언제였, 비상수문이 있는 근처.
 무대; 언제였 공지, 한옆에 비상수문조종틀
 의 일부가 보이고 그너머 호수와 언제
 가 있다. 무대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
 등불을 피워놓았으며 한쪽엔 책상, 그우
 에 전화기가 놓여있다.
 언개너머 멀리 강하류가 펼쳐졌다.

△ 무대 밝아지면
 △ 계속 비가 온다.
 △ 호수의 물을 퍼내는 강우기들, 떠내려오
 는 통나무를 나르는 청년들. 웨치며 달리
 는 사람들.

△ 처녀 1 위생가방을 메고 청년 2 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고있다.
 △ 형만 전화를 건다.

형만; …여보시오 도에 대라구. 련합기업소.
 뭘? 선이 고장이라구? 아니 그럼 군당!
 군당도?! 뭘? 방금 끊어졌다… 젠장, 그
 럼 복구하라구 독촉을 해야지. 강물이
 계속 불어나서 언제가 위험해서 그래,
 언제가! 그럼 농장에 대라구. 농장이요?
 아 관리위원장동무구만. 나 발전소 기사
 장이요. 음 여보시오. 농장원들을 곧 대
 피시켜주시요. 그렇소, 평지에 있는 농
 가들에선 짐까지 싣 끌어내야겠소. 당
 장! 여보시오! 또 끊어진게군… 으흠.

△ 은숙 밥보자기를 들고 천막으로 다가오
 다 언제쪽을 향해 소리친다.

은숙; 동무들! 사무실에 식사를 가져다왔어
 요! 빨리들 가세요!

△ 청년들의 호응하는 소리.

은숙; (천막으로 들어서며) 오빠 저녁식사도
 안하셨더군요… 머지않아 동이 틀텐데
 …

형만; 철진인 어데 갔니?

은숙; 이제 오겠지요뉘…

형만; 흥! 큰소리 혼자 치면서 콩크리를 까
 더니 무더기빈 함마로 물리칠수 없었
 던 모양이지?

은숙; 오빠!

형만; 진짜 장순 싸움판에 나가봐야 안다더
 라.

은숙; …(뭔가 말하려다 말고 나간다.)

△ 엇갈려서 청년 1 천막으로 뛰어든다.

청년 1; 에이 추워. (편다.)

청년 2; 옛 치거…

청년 1; 젠장, 덩지가 크게 엄살은… 그만몸
 몸을 녹였으면 또 나가보라구.

청년 2; 통나무들이 계속 밀려내려와?

청년 1; 말두 말라우. 쏠살같이 내려쫓히다
 언제에 부딪칠 뎌 으흐…

청년 2; 떨긴…한데 이마뺨엔 웬 모래감투를
 썼어?

청년 1; 흥, 맹진걸이 자서전에 기록될 참패
 요. 글썄 모두 뛰어들길 주저하길래 한
 번 본때를 보이려구 꼭대기에서 싣 내

러뻔었지. 한데 이마뻘이 뜨끔하잖어?
큰물에 밀려내려온 모래가 언제에 잔
뜩 쌓여서 물은 불과 두메터도 못돼.
흥, 코, 귀구멍, 몽땅 모래천지야. 흥,
흥... (새삼스레 흥흥거린다.)

청년 2; 하... 내가 무슨 불도젤이라구 모래
무지에 곤두박을 쳐. 하...

청년 1; 야, 그래두 오늘은 뭐 전투장갈애.
역수로 쏟아지는 폭우, 노호하는 물결,
사품치는 격랑!

청년 2; 그속으로 뛰어드는 용감한 상등병!
그는 맹진걸이었다! 하...

△ 모두 웃는다.

형만; 거 웃음보따리 싹 거두지 못하겠소?!
큰물과의 싸움이 무슨 스포츠출 아나말
이요!

청년 1; 스포츠가 아니라 전투지요. 보슈. 이
렇게 이마까지 흠 벗어진걸...

형만; 으흠...(쓰거웃듯 돌아선다.)...

청년 3; 기사장동지.

형만; 동무야 머지않아 기사가 될 사람인데
좀 가르쳐주라구. 저 물이 언제를 넘으
면 언제가 위험해! 언제가 넘어질수
있단말이요!

청년 3; 언제가요?

청년 1; 그럼, 이러구있을 때가 아니구나!

△ 청년 1 뒤따라 청년 3 도 달려나간다.

형만; (청년 2 에게) 동문 빨리 가서 배사수문
을 열라구.

청년 2; 배사수문아라니요?

형만; 배사수문도 몰라? 젠장. (달려간다.)

청년 1 ; (청년 2 에게) 아이참, 거 모래 뿜는
수문 있잖아요? 언제에 자꾸 모래가
쌓이면 집이 실려 언제가 위험하다는
거지요.

청년 2; 그럼 그렇다구 해야지. 배산지, 모잔
지 알게 뭐야!

은숙; (급히 달려오며) 동무들! 모두 어데 갔
어요?

청년 2; 왜 그러우?

은숙; 보세요. 저기 폐목이 곤두서서 내려와
요!

청년 2; 엉?! 이거 정말 폭이 터진게 아니
야?! 가만, 저기 저기 뛰어드는게 누구
요? 대장동무요. 대장동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소!

은숙; 예?!

청년 1; 옳아요. 대장동무예요. 대장동무가
돌아왔어요. 은숙언니, 전화통을 좀 지
켜줘요! (달려간다.)

은숙; 아니... (어쩔바를 몰라한다.)

△ 전화종소리

은숙; (수화기를 든다.) 예, 언제현장입니다.
예?! 군당이라구요? 예, 우리 비서동진
아직...

△ 진수 달려오다 수화기를 뺏는다.

진수; 예, 강진수 전화받습니다. 예, 좀전에
도착해서 방금 폐목을 건지다가... 예,
결사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예?! 립산에
서 폭이 터졌다구요! 예, 예 곧 가겠습
니다. (수화기를 놓고 은숙에게) 수고하
우. 기사장동문 어데 갔소?

은숙; 배사수문을 열겠다구 왔습니다.

진수; 음... 내 방금 대장동문 만났는데 두
사람에게 전해주. 절대로 비상수문을
열지 말며 언제를 지키라고. 그러구,
난 지원로력을 데리구 립산엘 갔다오
겠소. 꼭 전해야 되우?

은숙; 네 알았습니다.

△ 진수 달려간다.

은숙; ... (언제쪽을 보다가) 철진동무!

철진; (달려오며) 은숙이!

은숙; 아유, 저 땀! (손수건으로 훔쳐준다.)

철진; 소용없소. 온몸이 물투성인데... 하...

참 당비서동무 못찾소?

은숙; 방금. 군당에서 전화를 받고 립산으로
갔어요.

철진; 또?! 아니 군에서 방금 도착했다더니
...

은숙; 비서동문 비상수문을 열지 말구 언제
를 지키라구 당부하셨어요.

철진; 알겠소... (서성거린다.)

은숙; 비는 좀 뜰해지는데...

철진; 싸움은 이제부터요. 상류쪽에선 어제
부터 무더기비가 퍼부어서 물은 계속
불어날거요...

은숙; 어제부터요?! 아니 그럼...

△ 청년들 웃으며 떠들며 들어온다.

청년 2; 대장동무 이젠 다 풀렸다면서요?

철진; 음, 비서동무가 군당비상회의에서 세
멘트문젠 제기했더니 군안의 공장, 기업
소들에서 지원해나섰다우.

청년들; 야!

철진; 문젠 큰물이요.

청년 1; 젠장, 저 강물을 몽땅 마셨다가 하
늘로 흠 뿜어올릴순 없을까!

청년 2; 여, 이젠 불도젤이 성차지 않아 왕
고래가 되고싶은가? ...

청년 1; 큰물만 처리할수 있다면 이 맹진걸

이 하나쯤 고래가 되어도 좋겠네.
청년 2: 그럼 옥이동문 어떻게 한다?
옥이: 뭐야요?! (발끈 성을 낸다.)
청년 2: 고래가 꽃다발을 받을순 없잖아.

△ 모두 웃는다.

청년 1: 젠장, 거 웃지만 말구 큰물을 막아
넬 묘술을 좀 찾자우.
청년 2: 걱정 말게, 묘술은 없지만 이 만준
인 몸이 그대로 언제가 될테니까. 한테
웃었더니 배가 좀 출출한걸...
처녀 1: 아유, 방금 곱배길 하구선...
청년 2: 흥, 황소도 먹어야 발을 간다우.
철진: 참 옥이동무! (눈짓한다.)

△ 옥이 감자를 내놓는다.

청년 2: (한알을 들어서 씹으며) 야, 정말 꿀
맛이구나. 내 술한 감자를 먹구 료리도
했지만 이렇게 단건 처음인걸...
청년 3: 그저 먹는거라면 맛있구, 달구. 하여
튼 최고의 찬사를 막 쏟아붓거던.
청년 2: (청년 3의 감자를 빼앗으며) 맛없으
면 이내라구. (제격 삼켜버린다.)

△ 또 웃음이 터진다.

철진: 동무들, 이걸 그저 감자로만 생각지
말자우. 이숙엔 다신 큰물피해가 없도록
언제를 지켜달라는 옥이 할아버지의, 아
니 인민들의 부탁이 담겨있어.
청년들: 예?!
철진: 인민들은 우리의 언제가 큰물을 막아
주리라구 굳게 믿고있소.
청년 1: 대장동무, 우리가 이 언제를 지키고
있는 한 더는 큰물이 날뛰지 못할겁니
다.

△ 청년들모두 호응한다.

철진: 바로 그거요. 신심이 중요해. 신심을
가지구 한바탕 맞서보자구.
청년 2: (뛰어들며) 대장동무, 계속 물이 불어
나요!

△ 청년들 달려나간다.

철진: (은숙에게) 동문, 여기 있으면서 내 승
인 없인 그 누구도 비상수문을 열지
못하게 해주. 알겠소?
은숙: 철진동무!
철진: 부탁하우. (달려나간다.)

은숙: ... (지켜보고 섰다.)

△이윽고 언제쪽에서 환성, 노래소리. 《올테
면 오라 파도여! 격랑이여!》 《야, 꼭 바
다의 용사같구나!》 등등 웨침소리, 웃음소
리.

△노래소리 고조되는속에 무대는 비상수문
조종틀이 있는곳으로 회전한다. 은숙이가
조종틀곁에 서있다.

△형만 뛰어온다.

형만: 아니 너 뭘하고 섰느냐?

은숙:?!

형만: 저게 안보이나? 저 돌격대원들이...
비켜라!

은숙:?!

형만: 비키라는데. 비상수문은 열어야 한다.

은숙: 그건 안돼요.

형만: 뭐?!

은숙: 철진동무가 자기 승인 없인 절대로 열
지 말라고 했어요.

형만: 철진이가?!

은숙: 당비서동무두 비상수문을 열면 안된
다고 했어요.

형만: 비서동무가?!... (주춤하고 서버린다.)...
내가...내가 정말 오산했단말인가?! 별
써 언제를 더 높였어야 하는걸...(실신
한듯) 정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니, 아니야 언제만이라도 구
원해야지. 그러자면 물을 뿔어야 한
다.(호각을 분다.) 동무들! 철수, 철수하
라구. 비상수문을 열겠소! 철수!

△ 철진 달려온다.

형만: 전원 철수하게. 비상수문을 열겠네.

철진: 철수할수 없습니다.

형만: 뭐?!

철진: ... (조종틀을 등지고 선다.) 비상수문을
열어서 안됩니다. (강쪽은 향해) 동무들!
작업계속! 작업계속!

△ 청년들 화답하는 소리.

형만: 도대체 이 건설장의 주인이 누군가? 난
가 자넨가?

철진; 기사장동무도 나도… 그리고 우리모두 지요.

형만; 그럼 기사장의 지지도 못받겠다는건가?

철진; 우린 큰물을 막으라는 명령 하나만을 받았을뿐입니다.

형만; 저 범람하는 물을 막는다구?! 저 물이 이제 언제를 넘구 언제를 밀어버릴 땐 언제까지 죽탕이 되고 모든게 끝장이요. 언제만이라도 살려야 할게 아니요!

철진; 그게 진정으로 언제의 운명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형만; 뭐라구?!

철진; 진심으로 언제를 위하구 큰물을 막을 각오가 되었다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비상수문을 열것이 아니라 물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형만; 비키라구. 누군 목숨이 아까와서 그러는줄 아는가?

철진; 큰소리 그만하십시오. 목숨은 고사하고 책임이 두려워서 언제를 높이자면 이피탈 저피탈하면서 질질 끌구. 나중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강도가 낮은 세멘틀 막 타입하게 하구. 이제 와선 사람들과 논밭이야 물에 잠기건말건 비상수문을 열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보신주의와 요령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후과를 빚어냈나말입니다.

형만; 닥치라구! 누구에게 함부로 정치적압투를 씌우려는거요?!

철진; 기사장동무, 고향을 칠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깨걸고 언제로 나아갑시다.

청년1; (달려오며) 대장동무, 이젠 언제꼭대기까지20센치도 못됩니다.

형만; 뭐라구?! (비상수문쪽으로 가려 한다.)

철진; 기사장동무! 저 하류쪽에서 분주히 오고가는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큰물이 올라와 저렇게 덤벼치고 있는데 우리 손으로 수문을 열고, 우리 손으로 물을 내려보낸단말입니까! …기사장동무,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선 이 시각에도 여기 북방의 인민들을 심려하시여 잠못이루고계십니다.

형만; …(머리를 떨군다.)

△ 청년들 몰려든다.

철진; …(그들 한사람 한사람을 더듬으며) 진결이, 만준이, 성진이… 우리 언제를 타고앉아서 겨누어보자구. 쇠덩이면 쇠덩이, 큰돌, 모래가마니, 세멘트가마닐 쌓구 그우에 틀고앉아 우리의 가슴으로 큰물을 막아보잔말이요!

형만; 안되오. 그건, 그건 모험이요.

철진; 설사 모험이라고 해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내 말을 지지하는 동무들은 나서시오!

△ 《혁명가요》의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청년들 나선다. 청년3이 주춤한다.

청년1; 성진이, 겁나면 물러서라구.

청년3; (성큼 나서며) 나도, 나도 돌격대원이에요.

청년2; 대장동무, 이 만준일, 덩치가 큰 나를 맨 앞장에 세워주. 몸이 그대로 바위가 되겠수다,

철진; (만준의 손을 꼭 잡는다.)… 큰물과의 싸움은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가는 영광찬 전투라는걸 잊지 맙시다.

청년1; 옳소! 그 어떤 자연의 란동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할것이요!

△ 청년들 호응하며 달려나간다.

형만;! … (실신한듯 그들을 지켜볼뿐.)

철진; (형만에게 다가가려다 말고 은숙에게 비닐주머니을 준다.)종합된 지난날의 홍수피해자료요. 기사장동무에게 맡겨주… 내가 못돌아오면 언제를 꼭 높여야 한다구. 알겠소?

은숙; 철진동무!

철진; 부탁하오. …(달려나간다.)

은숙; (달려나가서 철근이며 흙가마니 나르는 청년들을 돕는다.)

△ 이윽고 언제쪽에서 노래소리.

△ 전화종소리

형만; (송수화기를 든다.) 기사장이 전화받습니다. 군당책임비서동무니까? 책임비서동무, 큰일났습니다. 청년들이 언제를

라고앉아서 뻗치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저 노래소리가 바로 그들이 부르는… 예, 제힘으론 막을수가 없습니다. 예?! 잘한다구요? 아니 비서동지 예, 물론 용감하고 가슴뜨거운 일입니다. 예?! 상류에선 립산로동자들이 몽땅 떨쳐나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든채 그냥 서 있다.)

은숙; 오빠!

형만; 응? … 응응.(수화기를 놓는다.)

은숙; 오빠 왜 그러구 섰어요? 왜 달려가지 않는가요? 예?! 오빠에겐 저 노래소리가… 혁명의 한길에서 육탄이 되어 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겠다는 저 웨침소리가 안들리나요! 품팔이군의 아들인 오빠가 이 준엄한 시각에 어떻게 순간이나마 망설일수가 있어요 예?! 오빠가 설 자리는 바로 저 언제우가 아니예요?! 오빠 저 한가운데 서서 싸움을 지휘해야 할게 아니예요 예?! 오빠, 오빠에겐 그런 힘이 있지 않나요 예!

형만; …(머리를 떨군다.)

은숙; (비닐주머니를 보인다.) 철진동무가 주고 간거예요.… 그동문 사태에 묻히우면서도 비서동지와 함께 홍수피해자료를 묶어가지고 왔어요. 만약 자기가 다시 못돌아오면 이걸 오빠가 맡아서 언제 공사를 끝내달라구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오빠는…

형만; 철진이! (주머니를 쥐고 주저앉아 가슴을 친다.)

△ 이때 당비서 들어온다.

△ 은숙 슬며시 나간다.

△ 사이, 청년들의 노래소리 더욱 높다.

형만; …과연 내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말인가? …

진수; …(담배를 붙여문다.)… 기사장동무.

형만; 비서동무, 전, 전 어떻게든 좋습니까? 전 제 파오를 느낍니다. 인정합니다. 어떤 추궁도 책임도 다 지겠습니다.… 그런데…

진수; (담배갑을 내민다.) 지, 어서 한대 피우시오. 마음도 진정될겁니다.

형만; (담배를 받아서 불을 붙여문다.)…

진수; …기사장동무, 그때가 아마 여기다 가물막이를 치던 날 새벽이었다고 생각되

는데… 우리가 함께 걸레로 암반을 닦던 일말입니다.

형만; 예?! …(진수를 볼뿐)

진수; 아직 동이 트기전 이른새벽이었지요.

동무들도 모두 밤새 전투를 하다 쪽잠이 들었는데 웬 사람이 강바닥에 주저앉아 암반을 쓸어보고 닦고 또 닦고있었소. 다가가서 보니 기사장동무였소… 그때 우린 함께 암반을 닦으면서 많은 얘길 했지요. …난 제대후 건설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발전소건설장은 처음이었소. 그날 난 우리 건설자들의 티없이 맑은 충성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했었소.

형만; 비서동무!

진수; 그러던 기사장동무가 지난날의 조그만 공로를 등대구, 교만해지구 책임한게만 따지면서 독단을 부리구.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요.

형만; 비서동무! 난 자격이 없습니다. (주저앉는다.)

진수; 그렇게 주저앉으면 동문 당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소린 혁명의 락오분자나 타락분자들만이 하는 소립니다.

형만; 예?!

진수; 물론 범한 파오는 심중합니다. 여기엔 내 잘못도 많소. 그러나 그걸 인정하더라도 주저앉는다면 더 엄중합니다. 보시오. 철진동문 결사전을 각오하고 나가면서 이걸 동무에게 맡겼소. 동무가 다시 일떠서리라 믿었기때문이요. 저 언제에 충성의 심장을 바쳐 한치한치 쌓아올리리라 믿었기때문이요. 나도 그걸 믿기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는것이 아니겠소!

형만; 비서동무! (일어선다.)

진수; 그래야 하우. 당원은 자기의 파오를 혁명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사업성으로써 씻어야 한다는걸 잊지 마시오.

형만; 알겠습니다. 비서동무! (달려나간다.)

△ 이윽고 언제쪽에서 《기사장동무》 《철진동무》하는 웨침소리.

은숙; (천막으로 들어서며) 비서동지!

진수; 걱정 마오. 지금 립산에서도 골짜기로 물길을 짜고 뚝도 쌓고 큰 전투가 벌어졌소. 이제 큰물도 고갈 숙일거요. (수화기를 든다.) 군당책임비서실에 대우.… 발전소건설장 강진됩니다. 아직은 별일

없습니다. 저 림산에선... 예?!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의 교시가 계시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놓고 나간다.)

△ 언제쪽에서 더욱 높아지는 노래소리.

△ 은숙 우등불을 지핀다.

△ 노래 고조되는속에 무대 어두워지며 우등불만이 강조되더니 뒤무대 언제우에서 어깨걸고 노래하는 철진, 형만을 비롯한 청년들, 진수의 모습이 우렁치 솟아오른다.

설화 아, 불보다 뜨거운 충성의 심장앞에 기승치던 큰물도 머리숙이는가! 려명이 비끼는 언제우에 승리의 노래 메아리쳐 흐른다.

△ 앞무대 밝아지면 호수가에서 환성을 울리는 청년들, 달려온 농장원들, 림산로 동자들과의 뜨거운 상봉이 벌어진다.

△형만 슬며시 그들속에서 빠져나와 천막가로 나온다.

은숙; (우등불을 지피며) 오빠 옷을 좀 말리우세요. 감기 들리겠어요.

형만; 괜찮다... (힘껏 숨을 들이킨다.)

은숙; ... (형만을 지켜본다.)...

형만; 은숙아, 너 우는구나.

은숙; 아니에요. 울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자꾸... 오빠, 기쁠 때도 정말 눈물이... (울음을 참으며) 아깐 내가 너무 지나쳤어요.

형만; 아니다. 난 지금 네가 내 동생이란걸 막 자랑하고만싶다.

은숙; 오빠. (그만 흐느낀다.)

형만; 용서해라... 철진이와 네 어린 가슴에 못을 박구...

은숙; 오빠!

형만; 나는 비로소 미래를 위해서 산다는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새삼스레 느끼게됐다.

△ 사이, 전화종소리

형만; 기사장 형만이 전화받습니다. 예?! 군당책임비서동무니까? 네 사람들도 언제도 모두 무사합니다. 전 전 한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동무! (수화기를 진수에게 준다.)

진수; 강진습니다. 예, 물은 이미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년들 모여든다,

진수; ...동무들! 철진동무! ...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들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었소.

철진;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진수; 예, 군당책임비서동무로부터 동무들이 힘을 합쳐 큰물을 막아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했냐고 하시며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큰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동무들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었소.

청년들; 수령님!!

△ 감격을 안고 흐느끼는 청년들.

진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철진동무를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지난날의 큰물피해자료를 다시 수집하고 우리의 인재를 백년, 만년홍수에도 끄떡없을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보강하기 위해 펼쳐나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친히 직승기로 귀중한 선물기자재들과 세멘트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철진; 수령님!! ... (눈에 이슬이 맺힌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소리.

형만; 철진이!

철진; 기사장동무!

형만; 우리... 우리의 심장을 바쳐 여기 성북천에 량심의 탑, 충성의 언제탑을 높이 쌓아올리자구.

철진; 기사장동무!

△ 두사람 뜨겁게 불안나다.

△ 직승기의 요란한 동음.

△ 모두가 우러르는 하늘가에 직승기가 날아온다.

△ 찬란한 해살이 청년들을 비친다.

△ 청년들 만세를 부르며 직승기를 맞으러 달려간다,

△ 만세소리, 환호소리 더욱 고조되는속에
수필

막이 내린다.

멀어질수록 가까운 사람

김정호

사람이란 오래동안 함께 살고 또 이웃에서 가깝게 지내보아야 잘 아는것은 아니다. 한 피줄을 이은 형제간이 아니라 해도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 나는 정이 뜨겁고 맺은 인연이 깊을 때 그 사람은 친혈육처럼 가까와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이 지닌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만 더우기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이 힘차게 나뭇기는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것 또한 범상한 일로 되었다.

가슴속 지닌 당을 위한 순결한 마음, 넘치는 힘과 열정으로 혁명임무와 로동체급을 위해 싸워가는 사람.

차레진 공로와 화려한 꽃다발도 남에게 스스럼없이 넘겨주고 자기는 어려운곳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질수록 그 모습 더욱 생생히 안겨와 그가 하던 별다른 말과 행동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눈앞에 가까이 살아 움직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당의 해빛 넘치는 은혜로운 조국의 한 지붕아래 한가정으로 사는 우리 나라 그 어느곳을 가나 이런사람들이 별처럼 많다.

나는 지금 동해선을 달리는 평범한 여행의차창가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다. 앞자리에 마주앉은 사람, 그는 우리 나라 북부탄전의 이름있는 공훈탄부이다.

《방금 차에서 내린 청년이 아들이냐구 물었지요?》

《네.》

《친아들이라고 해도 무릅없습지요.》하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얼굴엔 깊은 생각이 비껴있었다.

렬차가 탄광마을역에 멎었을 때 이 아버지와 함께 청년이 올랐었다. 청년은 나의 앞에 아버지의 자리까지 잡아주며 일은 걱정 말고 폭쉬고 오라고 뜨겁게 손잡아주었다. 렬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설때까지 이 두사람은 마주 손을 흔들며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다.

《우리 탄광 3대혁명소조원동무라오. 참 좋은 사람이지요.》

하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소조원에 대한 자랑과 믿음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수많은3대혁명소조원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혁신갱 올리굴에 동발목을 올리고있었다. 마지막 턱에 다 올라왔을 때 그처럼 무겁던 동발목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누가 뒤에서 받들어주는것이 분명했다.

동발목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뒤에서 받아까지 주었다. 돌아보니 웬 낫모를 청년이 웃으며 곁으로 다가서는것이였다.

《아바이, 담배나 한대 피웁시다.》

아버지에게 담배 한대를 권하는 그의 얼굴엔 우선우선한 웃음이 떠돌았다.

두사람은 동발목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젊은이는 누군데...》

《3대혁명소조원입니다. 방금 도착한 차에서 내렸지요.》

활달하고 유쾌한 성미인 그는 첫대면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끌었다.

《아바이, 왜 이렇게 힘들게 등짐으로 동발을 나르고있습니까?》

《그럼 어찌겠소. 기계화가 좋긴 한데...》

기술자들과 합심해서 여러번 해보았으나 거듭 실패했다는것이다. 그래서 이 일만은 어차피 등짐으로 하는것으로 습관되었다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 박동무는 마음속으로 웅크렸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우리 탄부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심려하시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첫일을 시작하자!)

두주먹에 불끈 새힘이 솟았다.

《아바이, 여기에 기계를 놓시다.》

그는 아버지의 두손을 힘껏 잡았다.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흘러들었다.

이 뜨거움-이것은 3대혁명소조원 박동무가탄 부에게 주는 첫믿음이었다.

다음날부터 박동무와 아버지는 올리굴에서함께 지냈다. 박동무는 설계를 작성했고 아버지는 로탄부의 손과 눈으로 뒤반침해주었다. 말하자면 박동무는 축구팀의 공격수라면 아버지는 믿음직한 방어수라고 할지 ...

마음도 일손도 맞아 일은 척척 진척되었다.

드디어 설계가 끝났다.

갱기술협의회에 참가했던 많은 기술자들과탄

부들은 소조원 박동무가 내놓은 설계안을 찬동했다. 그리하여 혁신경에서는 첫 시운전이 있었다.

했으나 올리굴 경사각과 구배가 너무 심해서 동발목이 올라가다가는 도중에서 자주 멎었다.

박동무는 아예 침식을 현장으로 옮겼다.

공격 또 공격이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올리굴계선으로의 맹렬한 돌격!

그는 잠도 잇고 휴식도 잇었다.

올리굴에 놓을 기계의 용접작업을 하던 박동무는 방금 부러놓은 탄무지를 밟으면서 미끄러져 본선 갱바닥에 떨어졌다.

다음날 저녁, 아바이는 탕과류와 과실이 든 꾸레미를 들고 병원을 찾아갔다. 침대가 비어있었다. 아바이는 생각되는것이 있어 곧바로 갱으로 걸음발을 놓았다.

갱입구에 들어서자 용접기의 동음과 함께 올리굴쪽에서 불빛이 평곳평곳 내비쳐왔다.

아바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용접불빛속의 사람은 분명 소조원 박동무였다. 그 순간 아바이의 가슴엔 뜨거운것이 부각부각 피어올랐다. 그와 함께 지낸 날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변화한 거리에 따뜻한 집과 우정깊은 부모형제들이 있다. 더우기 그는 이곳에서 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그는 살뜰한것들을 뒤에 두고 낯선 여기 탄광에서 남모르게 큰일을 하고있지 않는가.

로탄부의 머리는 숙어졌다.

곳은일 마른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어깨를들 이대는 그를 만류할 때면

《우린 3대혁명소조원입니다.》

하던 그의 말이 이 시각 새로운 뜻과 의미로 다시금 생각되었다.

탄부들의 어깨우의 짐을 자기가 메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가는 소조원.

3대혁명소조원! -자기들보다 멀리 앞선 새로운 세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아닌가.

아바이는 그를 가슴에 그리안았다.

《소조원동무!》

머칠이 지나서였다.

고귀한 노력은 고귀한 열매를 맺었다.

두번째 시운전은 완전한 성공이었다.

《그날 우리는 3대혁명의 전위들을 탄부들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그 감격 상기도 피여있는듯 아바이는 눈언저리에 손수건을 가져다댔다.

철다리를 지나는 열차가 마치 쇠북장단을 치듯 세차게 울리는 강철음향이 자꾸만 그날 막장에 울려 퍼진 성공의 합성소리와 어울려 나의 눈앞에는 그 소조원의 땀젖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날 한낮이 기울었을 때였다. 발파구멍에 화약을 다져넣는 아바이앞에 박동무가 문득 나타났다.

《아바이, 자 받으십시오. 이번에 수고 많았는데 휴양소에 가서 꼭 쉬십시오.》

순간 아바이의 눈은 커졌다.

휴양권! 아바이는 선뜻 받을수 없었다. 휴양을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데...

소조원동무는 아바이의 그 심정을 알아차리고 이미 당조직에서 합의된것이니 사양 말고 어서 떠나라면서 이처럼 짐까지 들어다주며 차칸에 올라왔었다는것이였다.

세월이 흐르면 사진도 퇴색하고 생생하던 추억들도 삭막해지기 마련이지만 3대혁명소조원 박동무의 모습은 생의 끝에서도 잊을수 없는 영원한 모습이라고 아바이는 목메여 말한다.

몇시간전 그를 얼핏 보기는 했지만 눈앞에 그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언제나 투쟁의 열망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눈동자, 강毅한 의지와 신념이 내비친 얼굴, 인정이 넘치는 목소리.

참으로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란 주체형의 새세대의 믿음직한 모습이었다.

아바이는 뜨거움을 삼키는듯 떠듬떠듬 말을 잇는다

《이자 들으셨지요. 날보고는 휴양가서 꼭 쉬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쯤 막장에서 땀을 흘릴 겁니다. 막장의 모든 일을 손쉽게 할 <자동화 전망도>에 착수했으니까요.》

열차는 종착역을 향하여 속도를 높인다.

말없는 수고와 위훈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다그치며 우리모두의 가슴에 당의 활력을 힘있게 넣어주는 3대혁명의 전위들이 궤도의 침묵이 되여 믿음직이 받들어주는듯 열차도 쾌속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을 이 땅우에 꽃피워가는 3대혁명의 전위들- 그들은 우리의 삶과 투쟁의 영원한 길동무인것이다. 그들과 함께 새 전망의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열정과 희망,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저 하늘가에 장엄하게 나뭇기는 3대혁명의 붉은기발에 벌써 자랑찬 승리를 아로새겨 놓지 않았는가!

누가 말했던가. 사람이란 오래동안 같이 지내고 살아봐야 그 진속을 속속들이 알수 있다고, 아니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새 모습으로 변혁해가는 위대한 위업에 바쳐지는 3대혁명의 전위-새세대의 빛나는 삶은 시간과 세월의 공간을 뛰어넘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것이다.

열차는 하늘 저 멀리 기적소리 울리며 질풍같이 달려가도 잊지 못할 혁명전위의 그 모습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있었다. 가까이, 더 뚜렷하게!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호에서 계속)

9. 꺼지지 않는 불빛

한가롭게 갈게들만이 벌렁벌렁 기여다니는 무연한 진펄, 그 어느곳이건 마다하지 않는 풀들도 뿌리를 내리기 주저하는곳-이것이 바로 간석지였다.

수천년 바다는 간석지를 거머쥔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다.

바다의 그 거칠고 무변장대한 힘앞에 어느누가 감히 맞설수 있었으랴.

그러나 오늘 바다는 자기의 넓고넓은 땅을내놓고 멀리멀리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석지건설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다그쳐 1980년대말까지 가도와 신미도, 정주와 청천강하구, 대동만을 비롯한 서해안일대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을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키워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간석지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간석지건설력사는 영광스러운 당의 빛나는 구상으로 이룩된 장거리벨트콘베어의 힘찬 동음으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땅은 더욱 풍만해지고 조국의 지도는 달라진다!

사람들은 높뛰는 가슴을 안고 파도사나운 서해 간석지로 달려갔다. 바로 그들속에는 작가 현희균도 있었다. 그는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기 앞서 이렇게 말했었다.

《저는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알기 위해우로부터 아래로 넓은데로부터 좁은데로 생활연구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장편소설 《비단섬》으로 이미 독자들과 친숙해진 작가는 간석지건설의 들끓는 현실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있는가. 독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났다.

아직은 모든것이 깊이 잠든 이른새벽, 다만 불그스레한 아침노을이 가볍게 동녘하늘가를 물들이고있을뿐이였다.

그러나 간석지건설장은 들끓고있었다.

아득하게 어디론가 뻗어간 제방쪽우로는 대형자동차들이 분주스럽게 오고갔다.

삭도바가지들이 바다쪽으로 떠가는 허공중에 긴 팔을 뻗히고 돌아가는 굴착기들, 그에 화답하듯 울려오는 마치소리, 노래소리, 착암기소

리... 가슴벅찬 모습이었다.

바로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간석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조국의 대지우에 찬란히 수놓아가는 간석지건설장이다. ...

우리는 길우에 떨어진 돌들을 치우고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 열아홉살이나 되었을까? 류달리 정기가 도는 청년의 눈에는 이 커다란 건설장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주인다운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어디서 오시는가요?... 작가를 찾아왔다고요!》

낮선 우리들을 간간하게 살펴보던 청년의 얼굴은 대변에 너그러워졌다.

《아, 그 <등대불>아바이를 찾아오셨군요.》

청년의 대답에 우리는 어리둥절해졌다. 어째서 《등대불아바이》라고 부르는것일까! ...

《자, 어서 따라오십시오.》

청년은 우리에게 의문을 풀 기회를 주지 않고 먼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걸으면서도 어느 직장의 작업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자랑도 했으며 바다의 밀물과 날씨에 대해서 줄곧 념려했다. 마치 지배인이나 기사장이라든가 된것처럼... 유쾌하고 재미있는 청년이었다.

이러던 청년이 갑자기 생각키운듯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작가아바이 말이야요. 참 재미있는 아바이드군요. 처음 우리 작업반에 내려왔을 땐 좀 똑똑하고 대하기가 어렵더니 지내보니까 얼마나 우스개소리랑 잘하는지... 낮에는 우리와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구 밤에는 글을 쓰고있지요...》

우리는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현희균동무가 이 건설장에 몸을 폭 잠그고 일하면서 로동의 보람과 진미를 느끼며 자기를 부단히 련마해가고있는 모습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한달전 간석지설계사업소에서 우연하게 현희균동무를 만났었던 일이 생각났다...

《정말 이 벅찬 생활을 매일과 같이 체험하며 산다는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바다바람에 다듬어진 작가의 검송한 얼굴에는 간석지생활에 대한 희열이 넘쳐나고있었다.

《참말로 생활은 우리 작가들의 학교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그자체가 예술이 아닙니까.》

자, 어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방쪽이 새롭게 쌓이면 갈데없는 고기들이 간석지 웅덩이들에 모여들어 바글바글 끓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건설자들은 소랭이며, 바구니며에 고기들을 연신 퍼담기 시작합니다. 그 바구니에 담긴 고기들이 대체 어디를 가는줄 압니까?》

현희균동무는 의미있는 웃음을 띠우며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가기는 어딜 가겠습니까? 그거야...》

《아닙니다. ... 우리 건설자들은 고기들을 바다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은것입니다. 이런 낭만적인 생활이야 여기 간석지건설장이 아니구서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것 같은 이야기였다.

《얼마나 재미있는 성격인가 또 보십시오. 우리 간석지건설장에 열아홉살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건설장의 크고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녀려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상없이 좋다가도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청년의 눈에 띄워보십시오. 그땐 칼날이 돼서 친한동무건, 또 지배인이건 주저없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더욱 사랑하는거지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벌써 건설장의 주인이 다 된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격이야 책상우에선 아무리 고안해내려고 해도 못해냅니다.》

현희균동무의 이야기속에는 지금 체험하고있는 자기 생활에 대한 애착으로 충만되어있지않는가...

바로 한달전 현희균동무와 만났던 그때가 생각키우자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있는 청년이그저 범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작가가 그처럼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그 청년인줄여이 알라.

우리들에게는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항상 배우며 생활을 탐구하도록 가르쳐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고마움이 다시금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

어느덧 우리는 숙영지앞에 이르렀다.

아직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아침이었다. 다만 취사장인듯싶은 천막에서 가락맞게 들려오는 칼도마소리와 고기를 굽는 구수한 냄새가 조용히 풍겨올뿐이었다.

갑자기 청년은 우뚝 - 걸음을 멈추었다.

《아바이는 또 밤을 새웠군요...》

바다기슭에 나란히 앉은 천막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듯 고요한데 유독 한 천막의 창문에만 불빛이 어려있었다. 바로 저 천막에작가 현희균동무가 들어있다고 청년은 설명했다.

《...저렇게 늘 아바이천막창가엔 새벽녘까지 불빛이 어려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등대불>아바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들에게는 원고지앞에 마주앉아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있는 현희균동무의 담찬 모습이는앞에 선히 떠올랐다.

등대불! 그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간석지건설의 빛나는 력사의 폐지속에 박찬 시대를 그대로 새겨나가는 작가의 창작적 열정의 꺼질줄 모르는 불빛이 아니라.

동녘하늘이 흰히 밝아왔다.

첫잠에서 깨어난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어댄다.

《아, 갈매기들이 먼바다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군요.》

청년은 멀리 바다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가리키며 즐겁게 소리쳤다.

여기 바다기슭이 영원한 요람인줄 알았던 갈매기들이 먼바다로 이사를 간다.

바로 저 낭만적인 장면도 반드시 작가의 새 장편소설에 그려지게 될것이다.

과연 어느 대목에 들어갈까! 중간에서, 아니면 마지막에서일까? ...

10. 《소금꽃》은 피고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자기 고향을 사랑하며 자랑한다. 잠자리, 방아다리를 잡으며 뛰어놀던 강이며 돌이며 저녁이면 모기쑥향기 떠도는 고향집은 언제나 다정해... 철부지시절의 천진한 꿈을 키워준 그 레사로운 나날도 사람들에게 더없이 소중한것은 법이다.

그렇거늘 젊은 작가 리화에게도 더없이 소중한고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오는 정다운고장이 있다. 그곳이 바로 서해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염전이다.

아직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 평범한 제염소를 무엇때문에 작가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것일까.

우리는 마침 리화동무가 염전에서 현실체험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가는 자동차우에 올랐다. ...

한낮이 퍼그나 기울어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제염소에 당도하였다. 소박한 이름처럼 눈에 띄우는 모든것은 그저 평이하고 조용한것뿐이다. 특징이라면 여기저기 풍성하게 쌓여있는 소금더미라 할가.

우리는 마침 사무실에서 무슨 서류철인가를 안고나오는 처녀와 마주쳤다.

《여기 어디 가면 작가동무를 만날수 있소.》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물음에 처녀의 예쁘장한 두눈은 놀랍게 동그래졌다.

《중편소설 <청춘은 빛나라>를 쓴 리화동무말이요.》

《예! - 우리 <선동원>동무요...》

처녀는 알만하다는듯 방그레 웃었다.

작가에게 불리워지는 《선동원》이라는 뜻밖의 직분에 우리는 어리둥절해졌다. 하긴 작가에게 《선동원》이란 이름을 달아주는것은 파히를리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의문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처녀는 사무실앞에 서있는 커다란 속보판을 자랑처럼 가리켰다.

《저기 붙어있는 <선동문>은 다 작가동무가 직접 써서 붙인거야요...》

바로 그 속보판에는 활달한 글씨로 《충성심은 어떻게 발현되는가...》《인간은 어떤 때가 가장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으로 가슴을 치는것 같은 격동적인 선동문이 적여있다.

《...저러서 여기서 이름보다두 선동원이라구 해야 빨리 통해요... 그런데 잘못 찾아오셨어요. <선동원>동무를 찾으려면 사무실이 아니라 소금밭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처녀가 세심하게 가르쳐준 길을 따라 소금밭으로 향했다.

논밭같이 무연한 소금밭, 수은같이 묵직하게 들어앉은 소금물우에는 바람을 따라 채찍처럼 휘날어진 파문이 일어났다. 허공중에는 소금꽃이 뽀얗게 휘날렸다. 불어오는 바람도 어쩔지 꺾였다.

우리는 새로 무저놓은 큼직한 소금더미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쓰고있는 리화동무를 발견했다. 해별과 짙짙한 바람에 씻기운 검실한 얼굴, 그의 눈섭이며 머리칼우에도 소금꽃이 하얗게 피어있었다. 소박한 제염공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리화동무! ...》

《아- 정말 뜻밖입니다.》

우리들의 반가운 상봉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소금더미에 앉아 글을 쓰고있는 리화동무를 보니 이 커다란 소금밭이 그대로 창작실처럼 느껴지는군요.》

《저는 지금 선동문을 만들고있는중입니다.》

젊은 작가는 어쭙게 웃으며 손에 들고있는 선동문 초고를 보여주었다.

《...저는 술선 여기 제염소의 선동원이 되엿답니다.》

리화동무의 얼굴에는 자기사업에 대한 궁지가 어려있었다. 그는 무연하게 펼쳐진 소금밭이며, 소금을 실은 삭도들이 공중에서 오고가는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기도 하고 짹짹거리는 처녀들의 웃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여느 사람들한테는 한갓 평범하게 보이는 이 소금밭이 저에겐 더없이 소중한곳입니다...》

젊은 소설가는 이 소금밭과 련결된 갖가지 잇을수 없는 일들을 조용히 더듬어보고있다.

리화동무의 로동생활은 이 소금밭에서부터 시작되였다. 로동의 희열과 생활의 보람을 가르쳐준 그의 첫작업반이 여기에 있다.

그의 조선로동당 입당청원은 심의하던 날 믿음직한 손을 들어 찬성해준 첫 당세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으로 그가 작가로 되여 이고장을 떠나던 날, 그 크나큰 은정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역두에까지 따라나와 배웅해주던 정다운 사람들을 그가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고향>이라고도 한답니다.》

리화동무의 한마디한마디 말속에는 이 평범한 소금밭에 대한 사랑과 자랑으로 가득차 있다.

《물론 이번에 쓸 새 중편소설도 여기 소금밭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군요.》

《물론입니다. ...》

작가가 앞으로 쓰게 될 소금밭생활은 새로운 생활분야인것만큼 이채로울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작가의 몸에 댄 소금밭 생활속에서 매력있는 인간성격을 탐구하리라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이번 쓰게 될 중편소설의 제목은 어떻게 달겠습니까.》

《<소금꽃>입니다.》

우리는 작가와 함께 새 중편소설의 종자며, 인간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웬 아바이 한분이 성급히 다가왔다. 그 아바이는 대뜸 리화동무의 팔을 잡아끌었다.

《여보게 오늘 아침 우리 며느라이가 아들을 낳았다네-》

《아바이, 기쁘겠습니다.》

리화동무의 축하를 받은 아바이의 얼굴은 대번에 환해졌다.

《거- 좋은 이름 하나 지어주게나.》

리화동무는 웃음을 머금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래...》《네래...》《여보시...》 하는 지방색이 짙은 말투로 그들은 한동안 축복받은 새 생명의 이름을 토론한다.

저렇게 간격없이 대화를 하자면 생활의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수 있다는것이 정말 부럽군요.》

아바이가 멀리 사라지자 이렇게 우리는 리화동무에게 말했다.

《저는 중편소설을 쓰기전에 우선 여기의 짹짹한 소금밭사람으로 부단히 완성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리화동무는 대답하였다.

그렇다. 작가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자기를 류다른 사람으로가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기에 바로 작가의 궁지가 있다.

우리는 다시금 리화동무의 새 중편소설의 제목을 음미해보았다.

《소금꽃》! ...

하얗게 핀 소금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는 여기 사람들의 말도 생각한다.

그러고 보면 그 제목도 작가의 눈으로가 아니라 여기 소금밭사람들의 눈으로 찾아낸것이리라.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리순우)

초연속의 진달래

김정민

렬차는 서서히 역구내에 들어섰다.
나날이 자기의 모습을 일신해가는 이 공업도시에 들어설 때면 나의 마음은 느닷없이 설레이며 기쁨과 자랑으로 충만된다.

내가 정거장왼쪽으로 펼쳐진 웅장한 도시의 일각을 흐뭇이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고있을 때였다.

《어머니!》

환희에 넘쳐 부르는 너자의 목소리가 류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귀가에 울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목깃에 빨간 상등병령장을 단 녀성군인이 려차의 승강대를 달려내려오고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처녀전사는 많은 사람들속에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대뜸 가려낸것이였다. 봄가을외투를 입은 중년의 녀인은 굽높은 신발을 신고있었는데 진달래무늬가 있는 머리수건에 얼굴이 가리워져있었다.

자기 어머니에게로 덮칠듯이 달려가는 처녀의 발랄한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나는 그만 흠칠하고 놀라며 굳어지고말았다. 눈에 익은 모습이였다. 저렇게 생긴 얼굴을 어디서 보았던가?

× ×

내가 바로 저런 형의 얼굴을 본것은 전쟁이 한참 깊어가던 1952년 봄이였다. 그날 나는 련대장의 은폐부에서 적의 지휘부를 습격할 임무를 받고있었다.

련대장 박동철은 적후에 들어가서 습격조가 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이번 습격전투에는 무전수를 데리고 가야 하겠다고 하며 부관을 불러 무전수를 데려오라고 했다.

부관이 무전수를 데리러 간 사이에 련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우수한 무전수요. 용감하고 침착하오. 다만 주의할것은 서둘러 다루지 않는것이요!》

나는 여러번 습격전투에 참가했지만 한번도 무전수를 데리고간 일이 없었던지라 의아한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잠잠히 듣기만 했다.

이윽고 《들어갈수 있습니까?》하는 너자의 목소리에 이어 특무상사의 견장을 단 처녀가 들어섰다. 날씬한 키에 목이 실렁하고 얼굴색이 하얗으며 옷차림과 몸가짐은 세련되어있었다. 전쟁도 아직 채 물러가지 않았으나 처녀의 하얀 저 얼굴색만은 어찌지 못한듯싶었다. 녀성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입은 솜등복이지만 어찌나

몸에 잘 어울리었던지 솜등복이 저렇게도 훌륭했던가고 생각할만큼 산뜻했다. 가름한 얼굴에서 탄력이 느껴지는 동실한 볼은 얇은 홍조를 띠고있었고 긴 속눈썹속에서는 맑고 커다란 눈이 정다운 빛을 담고 련대장을 바라보고있었다. 한마디로 처녀는 전선에서 흔히 보아오는 처녀들과는 뚜렷이 구별되였다.

련대장은 처녀에게 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옥회동무, 동무와 같이 가게 될 습격조의 중대장 김석준동무요. 인사를 하오!》

처녀는 다시 일어나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당황하여 손을 내밀었다. 처녀는 맑고 시원스런 그 큰 눈에 지긋은 웃음을 띄워보이고는 나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놓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그때도 사람들의 생김새를 종합적으로는 보았으나 눈은 어떻게 코는 어떻게 입은 어떻다는 등 하나하나 뜯어서 볼 줄은 몰랐다. 나는 그 처녀가 아름다우며 그의 온몸에서는 생신하고 서스러운 바람결같은 그 무엇이 뿜어나오고있었다. 이 녀자는 어느 극장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는 어울릴수 있으나 이 초연내가 가실 날이 없는 고지에는 결코 어울릴수 없으리라고 단정해버리였다. 본래부터 나는 이런 형의 녀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두어야 할것이다. 광산로동으로 잔뼈가 굵은 나는 어머니와 같은 수수한 무명치마저고리에 언제나 얼굴이 찬바람과 해별이가무스레 탄 그런 근로하는 녀성들을 존경하는데 습관되였다. 나와 마주앉아있는 처녀는 어떤 녀성인지 알수 없었으나 첫눈에 내가 익숙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많은 녀성들의 부류에 포함시킬수가 없었다.

련대장이 처녀에게 나의 중대가 련대에서 가장 잘 싸우는 중대이며 우리 중대와 함께 행동하면 아무런 랑패도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그를 이번 습격전투에 데리고 갈수 없다는 몇가지 리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수 있었다.

나에게는 자기의 속심을 감추거나 자신을 가장 할수 있는 정찰병의 기질이 없었다. 나의 속심은 언제나 그대로 얼굴에 뚜렷이 나타나군하는것이였다. 나는 처녀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은폐부 동발짚으로 빠져나오는 이름모를 멀끔한 벼섯만 바라보고있었다.

련대장은 벌써 나의 생각을 알아챘던지 너그럽게 말했다.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하오.》

《…………》

《이 동무앞이라고 못할 말은 없소. 이 동무와 관계되는 말이라도 일없소.》

처녀는 호기심이 어린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않고있었다.

나는 속심을 털어놓기로 맘먹었다.

《특무상사동무! 달리 생각지 마오! 우리 전선에서는 예둘러 말하지 않소. 나는 동무를 우리 습격조성원으로 받을수 없다는것을 련대장동지에게 제기하려던참이요!》

이렇게 내가 말할 때조차 처녀는 아이들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바라보는듯한 호기심을 띠우고 나의 얼굴을 여겨보고있을뿐이었다.

나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련대장은 큰소리로 웃어대는것이였다. 은폐부가 떠나갈듯한 그 웃음소리는 나의 제기를 티끌도 남기지 않고 날려버렸다.

처녀는 두손을 무릎위에 올려놓은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라도 하는것처럼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비웃는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것 같기도 한 그런 웃음이었다.

그 모습이 어느정도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련대장은 눈물이 나도록 웃어대고는 이렇게 결론처럼 말했다.

《동무는 이 동무가 녀자라고 해서 그러누만... 그것이 공연한 걱정이라는걸 이 동무가 보여줄것이요. 함께 행동하라우...》

...우리는 말없이 련대장의 승용차를 타고 중대로 돌아오고있었다. 나는 운전사옆자리에 앉아 뒤자리에서 차창밖을 바라보고있는 처녀를 두고 생각하였다. 전선에서는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이 류다른 처녀를 아무리 달리 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가 꺼리낌없이 나를 쳐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띠우고있었다고 해서 그러는것은 아니다. 내가 그를 좋지 않게 대했던것만큼 그러러 나를 영웅처럼 보아달랄수는 없는것이요. 그러나 나는 진정 나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존심이 있다. 련대장은 바로 상대가 처녀이기때문에 데리고가지 않겠다고 하는줄로 알고있으나 결코 그런것만은 아니다. 그 어디에서도 초연내가 꼬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미모의 처녀, 바위밑에서 해별을 보지 못하고 자란 풀대와 같이 연약해보이는 처녀를 어디로 데려가라고 하는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굴러가고있는데 침묵을 지키고있던 무전수처녀가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군하는 그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었다.

《중대장동지, 저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예요!》

나는 속으로 흥하고 코방귀를 끼었다.

《난 동무걱정 아니라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야단이요!》

《그럼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전 중대장동지가 저때문에 걱정하시는가 해서... 녀성전투원들이 전선에 나왔다고 해서 짐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뭐, 내가 그들을 업고다닌다고 짐이 되겠소? 털어놓고 말하면 난 동무의 그 얼굴에 전선의 검댕이가 묻을가봐 걱정이요!》

《정말 중대장동지에게 걱정이 많으시겠네... 검댕이가 묻으면 지워버리면 되지 않아요?》

나는 이 처녀가 천진스럽다고 할만큼 고지식한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하긴 그때 처녀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커다란 아량을 가지고 나의 불손한 언사를 웃음과 룡으로 받아넘겼는지도 모른다.

차는 골짜기막바지까지 들어와서 섰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걸어서 고지까지 올라가야 하였다.

고지뒤쪽이지만 폭탄, 포탄이 파헤쳐놓은, 초연에 그슬린 구멍이들로 산비탈은 만신창이 되어있었다. 그속에서도 봄은 무르익어 군데군데 진달래가 발그레한 꽃잎을 하나바람에 파들거리고있었다. 《아이! 진달래!》하고 환성을 지르며 처녀는 꽃떨기앞에 달려가서는 감히 꽃가지를 꺾지는 못하고 두손으로 어루만져주는것이였다. 그 어떤 강렬한 기쁨이 그의 온 마음을 뒹고지나가는듯 그의 얼굴은 온통 환희의 물결로 굽이치며 환하게 피어나는것이였다.

우리는 올라오는 길에 중대의 갱도입구에 붙여지는 식당에도 들렀다. 자그마한 취사장에 따라들어온 처녀는 취사원아바이가 버들가지로 감쥌스레 만든 조리를 보며 감탄했고 가마에서 끓고있는 산나물국(후방인민들이 산나물을 뜯어 말려두었다가 보내온것)을 보고 환성을 올렸다.

《아이참, 전선에 고사리가 다 있네!》

《후방인민들이 보내준거라오. 특무상사동문 고사리를 좋아하오?》

취사원아바이가 갑자기 나타난 희한한 처녀를 보고 어리둥절해 서있다가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전,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이런 고사리볶음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식사는 우리 식당에서 하우다. 내 곱배기로 드리지오다!》

우리는 중대부 은폐부에 들어와 잠시 숨을 들이였다. 처녀는 무전기를 벗어놓고는 아까 련대장실에서 나를 여겨보던 그런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은폐부안을 찬찬히 살펴보는것이였다.

《어떻소? 전선에 나와보니... 우리 생활은 이렇소!》하고 나는 말하였는데 《동무와 같은 녀성은 늙어죽을 때까지 이런 생활과는 어울릴수 없을거요!》라는 말이 막 입밖으로 쏟아져나오려는걸 가까스로 막아버렸다.

《모든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데서 생활하며 싸운다는거야말로 얼마나 량만적이겠어요.》

처녀는 결상 대신으로 쓰이는 탄약상자에 걸터앉으며 벽에 걸려있는 수류탄등잔을 신기한듯 살펴보는것이였다.

《허, 량만적이다? 남자다운 패기가 있는걸!》

하고 나는 속으로 되뇌어보며 시선을 피창밖으로 돌렸다. 고종출신의 중대서기가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전적으로 동의한 나였으나 이 처녀가 그와 똑같은 말로 우리 생활을 평가한것은 어째선지 싫었다.

저녁에 처녀는 무전기를 잘 정비했다. 전선에서 흔히 보아오던 소총력무전기와는 달리 좀 작아보이는 무전기였는데 처녀가 홀로 다루기 알맞춤해보이였다.

이튿날 우리는 습격조를 편성하고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하였으며 적후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었다.

무전수처녀를 맞이한 중대는 얼마동안 얼름하고 부자연스러운 표정이였으나 차츰 몸가짐이 풀리였으며 이날 중낮때부터는 입을 꾹별리고 웃는 표정으로 변하였다. 무전수처녀는 중대에 넘쳐나는 기쁨과 웃음을 가져왔던것이 다.

그 처녀는 크게 할일이 없었으나 잠시도 쉬지 않고 습격조원들속에서 그들의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별참은 일로 웃기도 하고 전투원들의 청을 받아 끼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마치도 처녀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즐기려고 부려 그러는것 같기도 하였다.

따사로운 해별이 은폐부에 가득차는 오후에 처녀는 진달래꽃가지를 들고 들어왔다. 망울이 부풀어오른 진달래는 이제 며칠후면 활짝 피어날것이었다.

나는 은폐부에 꽃을 꺾어가지고 들어오는 처녀를 덤덤히 지켜보고있었다.

《중대장동지, 장군님의 초상화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지요? 이제 사흘후이면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이 아니예요? 그때면 활짝 피어날거예요!》

처녀는 나에게 묻기는 하였으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듯 진달래꽃가지를 동발벽에 모신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앞에 가져다놓았다.

《꽃단지가 없어서 포탄깍지를 깨갓이 닦아서 단지로 삼았어요!》

나는 변명처럼 말하는 처녀를 감심해서 바라보며 장군님의 탄생일을 높은 전투성으로 맞이할 여러가지 사업을 포치했으나 그런것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처녀를 적후로 끌고다녀야 한다는데서 오는 나의 걱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뒤로 더욱 굳어졌다.

그즈음 적들은 기진맥진했던지 아니면 새로운 술책을 꾸며내느라고 그러는지 포탄만 쉽없이 날려보낼뿐 공격행동은 벌리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녘에 시작된 적의 포병집중사격은 상당한 시간을 끌어 공격을 앞두고 퍼붓군하는 포병준비사격을 련상시켰다. 중대는 전투준비를 갖추고 참호를 차지하였다.

전사들속에 섭쓸려 웃음과 활기를 자아내던

처녀무전수는 참호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가끔 무모하다고 할수 있는 엉뚱한 일을 꾸며 전투원들을 놀래우는 기질이 있었다. 바로 이런 기질의 작용에 의하여서였던지 적후로 들어가기에 앞서 처녀를 참호로 끌어내여 그의 담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주저없이 연락병을 시켜 처녀를 참호로 데려내왔다.

처녀는 상굴거리는 웃음속에 미안해하는 기색을 다는 감추지 못하였다.

《난 이미 동무에게 에둘러 말할줄 모른다고 했소. 동무를 오라고 한건...적후로 들어가기전에 적들이 어떤놈인지 좀 보여주고 포탄세례도 받게 해서말이요. 동무의 담을 좀 키워주자는거요! 어떻소?》

나의 똑똑한 말에 처녀는 놀란듯 눈덕을 치켜올리는데 류달리 새하얀 눈자위가 시원스레 나타났다 사라졌다. 곧 지긋은 웃음이 떠올랐다.

《감사해요. 그런데말이에요. 전 적들이 어떤놈들인지 알고있어요, 포탄세례는 이미 오래전에 받았는걸요!》

《언제?》

《락동강전선에서요. 그때 전 팔에 부상까지 입었답니다!》

《그렇다!》

상상을 초월하는 처녀의 이 말에 나는 속으로 놀랐다. 그랬지만 나는 자기의 주장을 꺾고 싶지 않았다.

《그랬군요. 하지만 한번 더 단련되는 의미에서...》

《호호호호... 그런 포탄세례나 자꾸 받아선 뭘해요?》

나는 점잖은 강타를 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처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문, 마치 모든것의 체험자처럼 행세하려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자신을 폭로하고있소. 여기에 좀 있어보요!》

바로 그때였다. 식식...휘유희유희...하는 포탄 날아오는 소리가 허공을 채웠다.

《엎드렷!》하고 나는 소리치며 처녀를 힘껏 밀어던졌다, 나도 엎드렸다. 고막을 찢어버릴듯한 폭음에 이어 하늘높이 치솟아올랐던 흩사태가 와르르 쏟아졌다. 적의 류산탄들은 갑자기 덮쳐들었던것처럼 갑자기 밀려갔다. 온몸에 덮쳐있었던 흩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보니 처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친채 엎드려있었다.

《옥희동무! 옥희동무!》

나는 소리쳐 불렀다.

처녀는 놀란듯 움찔하고는 가까스로 웃음을 들어올리더니 무릎을 모두어대고 가슴에 두손을 얹었다. 동실하고 가냘픈 어깨가 솟았다내리며 《호-》하는 안도의 숨소리가 새나왔다. 처녀는 익숙되고 날랜 숨씨로 앞머리를 쓸어올리

고 불에 묻은 흙을 손끝으로 떨어버린 다음 살 그머니 고개를 돌려보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 되어있었다.

《앞단추가 떨어졌어요.》

처녀는 무슨 큰 귀중한것이라도 잊은듯이 아직 뺨 앞 먼지가 뒤덮인 사이로 두리번거렸다.

《단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과연 여자들이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전선이란 이렇소. 그까짓 단추 하나 없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처녀는 참호바닥을 까근까근 살피더니 흙발속에서 떨어진 단추를 끝내 찾아내고야 말았다.

나는 마침내 련대장에게 여기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심중히 고려해보아달라고 다시한번 제기하기로 맘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이런 처녀무전수를 데리고 적후로 들어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수 없는것이였다.

그날 적들은 미친듯이 포사격만 해대고 감히 공격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나는 정황이 완화되자 련대장에게 전화를 걸러고 중대부 은폐부로 갔다.

무전수처녀는 피창으로 선안테나를 내걸고 어딘가와 통신을 하고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무전기를 거두기 시작했다.

《시험통신을 했는데 다 제대로 되었습니다. 아이, 벌써 어두웠네...》

안테나를 거두던 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음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 어둠을 무서워했답니다. 제가 어둠을 얼마나 싫어하고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저의 어머니는 아마 지금도 걱정하고계실거예요. 우리 집에서 큰길로 나가면 스무발자국도 되나마나 한 골목길이 있있답니다. 전 학교에서 늦게 돌아올 때면 그 골목길이 무서워서 막 달려들어가며 <엄마!>하고 소리치곤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막 달려나오시지요. 그리고는 난 네나이때 물고기함지를 이고 한밤중에도 심심산골을 홀로 드나들었다구 말하곤했어요!》

처녀는 잠시 고개를 가웃하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그러던 제가 이젠 적후로 싸우러 가게 됐어요. 전 이번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는 어머님께 편지를 쓰겠어요. <어머니, 이 딸을 자랑하세요! 사랑하는 딸은 김일성장군님의 딸답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고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처녀의 얼굴은 너무도 환하게 빛나는것이어서 어둡컴컴하던 은폐부안도 다 밝아지는상실었다.

나는 그만 련대장에게 전화를 걸려던것을 단념하고말았다. 나의 마음이 아무리 전선에서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지고 사나와졌다고 하더라도

처녀의 그 황홀한 꿈을 짓몽겔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는 처녀가 무대우에서 대사를 외우듯 아름다운 말을 엮어냈으나 모진 현실은 그의 꿈을 허황한것으로 짓밟아버리라는것을 상기하고는 허허! 하고 웃어버렸다. 얼마나 천진란만한가! 아름답기는 하나 가냘픈 꽃잎을 철이르게 벌리었다가 사납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만나 감기갈기 찢기여 흩어져버리는 진달래꽃을 상기하는 나의 마음은 알싸해지는것이였다. 어찌하여 련대장은 적후에 습격조를 내보낼 때는 전선에서 단련된 전투원들가운데서도 용감하고 침착한 전투원을 선발한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저녁식사때 련대장이 내려왔다.

《식사들은 아직 안했지? 마침 잘했소. 출출한데 어서 식당으로 가세요!》

련대장은 마치 중대에 식사를 하러 오기나 한것처럼 주인인 내가 청하기도전에 제먼저 독촉하는것이였다.

갱도입구에 붙여지는 역시 동발로 천장과 벽을 들인 식당에서 우리는 허물없이 마주앉았다.

《옥회동문 중대가 마음에 드오?》

련대장은 도끼로 다듬은 우툴두툴한 통나무 의자에 걸터앉으며 물었다.

《예, 참 좋은 동무들이예요. 저는 여기서 중대동무들과 함께 계속 싸웠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나는 엇비듬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에는 애써 무관심하려 하며 식당구석에 시선을 박고있었다.

《그렇거요. 그렇거요!》

처녀의 말이라서인지 련대장은 그저 맞장구를 쳐주는것이였다. 그리고 배식구를 돌아보며 독촉했다.

《난 먹으러 온게 아니라니까! 거 고사리볶음이면 아주 훌륭하오!》

처녀는 배식구에서 밥그릇 국그릇을 받아다가 차려놓았다. 부관이 무엇인가 종이에 쓴것을 한아름 안고 들어왔다.

《후방부련대장동무가 보내는 강엿이요. 강엿! 습격조원들이 가지고 갈것은 갈라놓소. 그리고 옥회동무가 가지고 갈것도... 동무에게 줄게 이것밖에 없구만.》

확실히 련대장동진 세심한 지휘관인걸... 하고 나는 생각했다. 처녀는 새물새물 웃기만 하고 조금도 사양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시작했다. 군대에 들어와서 밥짓는 법을 배운 취사원아바이는 텅텅하게 고등어 몇마리로 국을 끓이고 고사리로 채를 만들었다. 취사원아바이는 늙점시에 무드기 담은 고사리채를 내보내며 《선녀동무》에게 주라고 했다. 누군가 옥회의 이름을 《선녀》라고 알려준 모양인데 취사원아바이는 그것을 곧이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리유에서였던지 《선녀동무》라고 부르곤했다.

처녀는 고사리채를 맛있게 씹어먹었다. 마치
도 자기 집의 형제들사이에서 밥을 먹듯이...

처녀는 식사후에 엇조각을 입에 넣고 녹이기
시작했다.

《아이, 어쩌면 이렇게 달아요? 중대장동지도
좀 드세요!》

처녀가 것처럼 달다고 극구 찬양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 옥희동문 오늘 어떻게 보냈소?》 하고
런대장은 빈 밥그릇을 밀어놓으며 물었다.

《전, 오늘 정말 유쾌하게 보냈답니다. 런대
장동지 ...》

옥희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
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것이었으
나 무슨 큰 사변이나 되는 것처럼 의의를 부여
해가며 이야기했다. 자기가 참호에 척 나타나자
적들이 《축포》처럼 줄로탄을 퍼부으며 《환영》
해주었는데 자기는 매한테 쫓기우는 까투리치
럼 참호바닥에 머리를 틀어박았다가 군복안단
추를 펴구었다고 천진스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아니, 동무가 참호에 나섰단 말이에요? 동문
내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구만. 난 군단에서 동
무를 잘 돌보아주라는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런대장의 어조는 엄해졌다.

무엇때문에 런대장이 노여워하는지도 모르며
서 나는 입을 열었다.

《옥희동무가 참호에 나온 건 제가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는 살풋이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다
가 고집스레 변명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전 중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건 좋지 않아. 잘못됐소. 동문 자기가 얼
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했을거요.》

런대장은 혀를 찼다.

난 무엇이 무엇인지 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
다. 습격조의 무선통신이나 보장하는 것이 뭐이
그리 대단한 임무가 돼서 이러는가? 하긴 적후
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처녀에게 임무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저녁식사는 화기가 넘치는 가운데 끝
났다.

런대장은 습격조의 전투준비상태를 간간히
검열하고 중대부로 들어갔다.

내가 습격조원들에게 보충적인 임무를 주고
보고하기 위해 중대부로 들어간 즉 처녀는 그자
신이 꺾어다놓은 진달래꽃망울을 들여다보고 있
었다.

런대장은 처녀에게 들려주어야 할 요긴한 이
야기를 방금 끝낸 듯 심중해진 표정을 채 풀지
못하고 담배를 들이빨고 있었다.

《꽃망울이 막 부풀어오르네요!》

처녀가 환성을 올렸다.

런대장은 시계를 들여다보고 일어섰다.

《떠날 시간이 됐소!》

런대장의 이 낮으나 웅글은 목소리에 그 어
떤 강렬한 충격을 받은 듯 처녀의 깨끗한 얼굴
에서는 웃음기도, 장난기도 다 사라지고 여직껏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엄숙한 표정이 떠올랐다.
처녀는 얼굴을 거연히 추켜들고 동발벽에 모신
수령님의 초상화를 까딱 않고 우러러보고 있었다.
마치도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듯도 하고 그 무슨 맹세를 다지는 듯
도 하였다.

《옥희동무, 이젠 떠나오!》

런대장의 목소리는 젖어있는 듯했다.

《중대장동무! 난 동무에게 새로운 지시를
한 가지 더 주겠소!》

런대장은 내가 차렷자세를 취하자 말을 이었
다.

《이 무전수동무는 적후로 들어가 습격을 개
시하기 전까지만 동무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오.》

나는 너무도 상상밖의 사실에 부닥치자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쩔해졌다.

《동무네 습격조의 첫째가는 임무는 옥희동
무를 적후로 호송하는데 있소. 그 다음에 나서는
임무가 습격이란 걸 명심하시오! 이상이요!
아무것도 묻지 마오. 모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내가 말해줄거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전
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되
오! 자 떠나시오!》

《알았습니다!》

나는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처녀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
다. 처녀는 함초롬히 젖은 듯 싶은 그 맑고 시원
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어서 떠나자는 듯 머
리를 까딱해보이였다.

많은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났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방향전환을 하는 바람에 나
는 골이 뻗해서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
다. 머리속에서 의혹과 위구가 한데 엉켜 몰아
치면서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렸던 것이다. 적후에
서 이런 포탄세례도 받아보지 못한 처녀가 그
엄혹한 시련과 풍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대담무쌍한 습격조는 처녀를 호위하
여 적후로 떠났고 습격개시직전에 처녀와 헤어
지게 되었다.

나는 묵묵히 처녀앞에 서있었다. 무엇이라고
고무해주고 싶었으나 적당한 말은 한마디도 떠
오르지 않았다.

처녀가 먼저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대장동지, 잘 싸우세요. 조금도 걱정 마
세요.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잘 가오! 동무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하오. 부디 성공과 행복이 있기를...》

처녀의 모습은 서서히 멀어지다가 그가 평소에 것처럼 두려워하던 그 어둠속으로 녹아버리듯 사라져버렸다.

습격전투는 성공적이었다. 다음날 새벽 중대로 돌아오니 처녀가 꺾어다놓은 진달래는 활짝 피어 진한 향기를 은폐부안에 가득 채워놓았다. 며칠뒤에 진달래꽃이 스러졌을 때 나의 마음은 공연히 언짢아졌다.

《련락병, 동문 꽃이 스러진것도 못보오. 다른 꽃을 꺾어다놓소! 금시 피어나는 싱싱한결로...》

련락병이 몇차례에 걸쳐 싱싱한 진달래를 꺾어다놓는 사이에 중대는 여러차례에 걸쳐 습격전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련대장은 습격전투를 조직할 때마다 나를 불러 임무를 주곤하였다.

우리 중대는 적심심깊이까지 들어가 포진지, 참모부, 예비부대병실, 탄약고, 연유저장고 등을 보기 좋게 답새겨 원썩놈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 ×

전쟁은 끝났다. 이 승리의 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오늘을 보지 못하고 간 수많은 전우들에 대한 추억이었다. 그들가운데는 우리가 이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련대장동지도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전선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가버린 한 처녀의 과거와 그후의 운명에 대하여 더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이름마저 잊어버리게 되었다.

세월은 빨라 어언간 30년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전쟁시기에 있었던 가슴벅찼던 일들도 세월의 풍상에 씻겨 많은것이 망각의 바다로 가버리고말았다. 전선에서 싸우던 그 격동적인 시기에 하루 한나절동안 나타났던 그 처녀는 이미 나의 추억에서 사라진지가 오래다.

전후에 나의 생활에서는 또한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던가!

나는 몇해전에 전쟁시기의 자료를 연구해야 할 일이 생겨 전쟁참가자들이 쓴 전쟁경험자료들을 들추어보게 되었다. 이레동안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서보관원동무가 여러가지 보고문건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면서 참고가 되겠는지 알수 없으나 한번 보라고 하며 몇장 안되는 문건을 하나 내놓았다.

나는 이미 필요한 자료들을 다 취재했으므로 그닥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면서 그 문건을 받았다.

한 적후정찰조가 보내온 보고문건이었다.

내가 취재하려고 한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건성건성 읽어내려가던 나는 《습격조와 함께 적후로...》라는 문구에 이르렀을 때 가슴을 쿵 치며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처녀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조금전에 스쳐보낸 이름을 다시금 여겨보고는 이미 망각의 바다속에 띄워보냈던 그 이름과 이름의 주인공인 처녀의 긴속눈썹속에 시원스럽게 빛나던 아름다운 눈매를 되살리었다.

나는 우리와 헤어진후의 처녀의 운명이 궁금하여 게걸스럽게 글줄들을 읽어내려갔다.

《습격조와 함께 적후로 들어온 그는 1주일간이나 홀로 산중에서 정찰조의 련락병을 기다려야 했다. 그것은 그와의 접선장소와 암호를 알고있는 조장이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고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선하러 갔던 련락병은 눈만 남은 듯싶은 처녀무전수를 데리고왔다. 그때로부터 정찰조는 상부와 련결되어 새로운 활기를 띠고 맹렬한 활동을 벌려나갔다.

정찰조는 그로부터 한달뒤인 5월중순에 적의 새로운 작전과 관련한 중요한 적정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 정찰조의 판단에 의하면 최고사령부에까지 지체없이 보고되어야 할 자료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찰한 자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이였다. 김옥희무전수는 이 정찰자료를 그날 결속시간인 저녁 6시에 무전기를 감추어둔 보명산 바위굴에서 송신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어느때와 같이 나물을 뜯으러 가는 시골처녀의 행색을 하고 바구니를 끼고 나섰다. 정찰병 한동무가 멀찌감치 떨어져 따르며 그를 호위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날 전혀 뜻밖의 사태에 부딪쳤다.

바로 무전기를 감추어둔 바위굴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의 룡선들과 우아래의 비탈에 줄잡아도 서른놈이 넘을 적병들이 우물거리고있었다. 놈들가운데는 지뢰탐지기같은 장대기를 든놈도 있었다. 적병들은 얼마뒤에 위장을 간간히 하고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지뢰탐지기를 가진놈과 몇놈의 적병들은 바위굴안으로 들어갔다.

사태는 명백했다. 적들은 여기 어름에서 수상한 전파가 날으는것을 탐지하고 바로 지금 매복을 조직하고있는중이었다. 일은 공교롭게 되었다.》

딱딱한 군사적술어들과 표현들로 씌여진 보고문건은 그 작성자의 흥분과 긴박감으로 해서 인지 김옥희무전수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서술부분은 보고문건 특유의 문체를 벗어나 자유분방한 형상적문체로 정자로부터 초자로 넘어가고있었다. 나는 옥희가 처한 정황이 너무도 엄중하고 각박하여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조이며 읽어내려가다가 머리를 들고 잠시 마음을 달래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할수 있을는지 가슴이 가지 않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긋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문건으로 시선을 던졌다.

《김옥희무전수는 소나무줄기위에 몸을 숨긴 채 까딱않고 서있었다. 눈앞에 벌어지고있는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게는 불을 보듯 명백했다. 적들은 인민군정찰병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이며 굴안으로 인민군정찰병이 들어가기만 하면 굴을 포위해버릴것이다. 놈들은 아직은 무전기를 찾지 못했으나 어렵지 않게 찾아낼수 있을것이었다. 지뢰탐지기로 깊이 않은 바위굴을 한번 훑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찰자료는 일본일초도 지체함이 없이 전달되어야 했다.

정찰병이 김옥희무전수에게로 다가서며 물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들이 너무 많군요!>

<…………>

처녀는 손톱으로 소나무껍질을 뜯기만 할뿐이었다.

<특무상사동지, 오늘은 어쨌든 통신을 할수 없습니다. 무전기를 꺼내올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

역시 처녀는 정찰병의 말에는 귀가 없는듯 아무 대꾸도 없었다. 얼굴은 한점의 피기도 없이 새하얗졌으나 맑은 눈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웅달샘처럼 무엇인가 깊은 상념을 담고 응심깊게 빛나고있었다. 이윽고 처녀무전수는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얼굴을 들었다.

보기 애처로울 지경으로 하얗졌던 얼굴이 발강게 상기되며 비웃음과도 같은 기색이 스쳐갔다.

<아이참, 내가 왜 이럴까? 시간이 이제 다됐는데… 저에게 수류탄을 두개만 더 주세요!>

<안됩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린 목숨을 녹거리로 내버릴 권리가 없습니다.>하고 정찰병은 단호히 물리쳤다.

<전 죽을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 죽겠어요? 살아서 이 귀중한 정찰자료를 보고해야 하거든요.>

정찰병은 망설이였다. 그는 옥희가 이제 어떻게 하리라는것을 알수 있었고 그를 그 어떤 말로나 그 어떤 힘으로도 말릴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수류탄을 내주기로 결심했다.

처녀는 재빨리 바구니를 내려놓고 참나무이며 두릅, 원추리, 고사리따위 산나물들을 헤치고 그 안에 내가 준 수류탄을 넣었다. 신탄은 이미부터 쫓겨있었다.

<걱정 말아요. 전 죽지 않을거예요! 왜 죽겠어요? 전 아직 할일이 많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장군님의 품속에서 희망을 쫓피우며… 전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요. 자 그럼…>

처녀는 죽음을 눈앞에 보고있으나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는듯 삶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이였다. 아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있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죽음을 각오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강대해지는것이라! 우리 정찰병들은 이것을 잘 알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적후의 온갖 시련을 뚫고나갈수 있는 것이다.

<전 조장동무로부터 특무상사동지를 호위할 임무를 받았을뿐입니다.>

정찰병은 정색하여 신중하게 말했다.

처녀의 눈은 감동에 젖어 한동안 정찰병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런 정황에서는 저를 엄호할수가 없을거예요. 차라리 저를 엄호해주고싶으면 적을 유인해 주세요…>

처녀는 정말로 나물을 캐러 가기라도 하는듯 정찰병에게 머리를 끄덕여보이고는 몇걸음 걸어나가다가 돌아섰다. 그의 서늘하고 그윽한 눈에 어린 맑은 웃음은 맑은 물속에서 햇빛을 받은 보석의 광휘로운 빛발이런듯싶었다.

<전 장군님의 품속에서 오래오래 살고싶어요!>

처녀는 돌아섰다.

사위는 고요했다. 흐릿한 하늘은 묵묵히 처녀를 굽어보고있었다.

김옥희무전수는 서두르지도 덤비지도 않으면서 굴쪽으로 걸어나갔다. 물날은 검은 공단치마가 떨기나무아지에 걸채이였다.

적들은 어디에 배겨버렸는지 처녀가 굴아귀앞에 이르렀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옥희무전수는 굴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잠시후에 처녀는 굴안으로 사라졌다. 꺼먼 바위굴은 처녀를 통채로 삼켜버렸으나 여전히 이발도 없는 쉼한 아가리를 그대로 벌리고있었다.》

나는 차마 더는 아래를 읽어내려갈수가 없었다. 처녀가 그뒤에 어떻게 되었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였다. 나는 불타는 전선에서 많은 전투원들을 나의 무릎우에서 숨지웠고 내손으로 묻어주었으나 사나운 태풍을 만나 흩어져 날아가는 진달래마냥, 야수와 같이 달려든 적들의 총탄과 파편에 쓰러지는 처녀에 대한 가슴아픈 또하나의 표상을 간직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음을 읽지 않을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른,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감은 이 글을 마지막까지 읽을 용기를 북돋아주었던것이다.

《김옥희무전수가 무전기를 안고 바위굴어구에 나타났다. 안테나를 힘껏 올리던져 나무아지에 걸고 재빨리 무전기를 전개하고는 바위쪽에

치우쳐앉아 한손에 수류탄을 추켜들고 태연히 전진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당황한 적들이 골안으로 집중화력을 퍼부어졌으나 처녀는 적들을 노려보면서 송신을 계속하였다. 그의 곁에는 수류탄이 든 산나물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정찰병은 적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그놈들의 등뒤에 대고 연발사격을 퍼부었으나 얼빠진 놈들은 바위굴로만 몰려들었다. 정찰병의 명중사격에 적들은 바위굴두리에 시체들을 너저분하게 널어놓았다. 적들은 이 처녀를 생포하려고 했던지 무엇이랴 고향을 지르며 집중사격을 들이댔으나 탄알은 아직 처녀에게 미치지 않았고 처녀는 마지막까지 전문을 송신한 다음 <적들에게 포위되었음. 동지들, 안녕히!>하고 공개신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마지막 비장한 공개송신은 부대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적들의 탄환이 무전기와 함께 그의 옆구리를 꿰뚫고 지나간 것이었다. 처녀는 전진을 놓자 몸을 비틀며 쓰러졌다...

뒤에 정찰조원들이 보명산꼭에서 올라오는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 적들을 마저 소멸하였을 때 처녀는 한손에 수류탄을 쥐고 다른 한손에 권총을 빼든채 누워있었다. 그는 줄곧 자기의 임무를 다한 행복에 취하여 비장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며 자기의 미래와 희망과 포부를 남겨두고 온 복讎하늘을 우러러보고있었던 것이다.

정찰조원들은 김옥희무전수를 시급히 깊은 산속 민가로 업어갔다. ...》

김옥희처녀무전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다.

얼마 되지 않는 이 글을 읽는동안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던, 몸매가 날씬하고 금시 씻고 난 것처럼 청아한 얼굴에 맑은 눈이 시원스럽게 빛나던 한 처녀무전수의 모습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은 30여년전에 까닭없이 불탄과 미움을 자아내던 모습이 아니라 초연을 이겨낸 진달래와 같은 아름다운 한 떨기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에 나는 것처럼 훌륭한 처녀를,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적후로 들어가야 하는 그 처녀무전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얼토당토않은 말로 그의 예린 마음을 괴롭혔던가?

취면 깨지고 놓으면 날아갈것 같은 그 꽃잎 속에 갇혀있는 그 정신은 무엇인가? 처녀는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보고문건도, 오랜 기간의 생활도 것처럼 훌륭한 녀성이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내가 알고있는 참된 사람들, 당파 수령을 위하여 성실하게 싸운 수많은 영웅들중의 한사람으로 나의

기억에 뚜렷하게 아로새겨졌다.

× ×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긴 상등병처녀는 두 팔로 어머니의 허리를 부어안은채 얼굴을 뺨히 올려다보며 무엇인지 뜨겁게 속삭이고있었다.

나는 상등병처녀와 그의 어머니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어느 극장의 무용배우같이 싱싱한 젊은 어머니와 조국의 한 초소를 맡고있는 숙성한 딸과의 상봉은 참으로 감격적이었다.

그들이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소리가 끊기었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왔다.

《...제가 집에 들리지 못해두 어머니님 섭섭하지 않았으시겠지요?》

《그래, 섭섭하지 않다. 그래 넌 집에 들리지 않고 가도 섭섭하지 않겠냐?》

되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린듯했다.

《어머님 제가 인민군대에 입대하던 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초소에 서는가를 깨달으면 목숨도, 청춘도 기꺼이 바치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래 그랬지.》

《아직도 어머니의 말씀을 다는 리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뜻이 점차 알려지는것 같아요.》

《용쿠나, 사람이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깨닫게 되면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외롭지 않단다. 또 그런 사람은 죽지도 않구...》

《그래서 전 지금 어머니가 적후로 들어가실 때 안고계시던 그런 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 장하다...》

나는 심장이 뛰어나올것 같아 모녀의 이야기를 더 들을수 없었다.

(적후로 들어가던 처녀무전수! 저 녀인이 바로 김옥희무전수가 아닌가!)

이젠 선고개에 올랐을 그였으나 30대의 녀인처럼 전선에서 만났던 그 모습대로 싱그러워보이었고 살결이 흰 얼굴에서 류달리 커다란 눈이 여전히 부드럽우면서도 서늘러운 빛을 내뿜고있었다.

렬차는 처녀를 싣고 떠났다.

팔을 전송하는 어머니는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밝게 웃고있었다.

모녀의 행복한 상봉을 방해할가보아 머뭇거리던 나는 옥희를 만나려고 걸어갔다.

초연에 그슬린 그 잇을수 없는 날에 있었던 일을 거북스럽지만 사과해야 할것이다. 또 초소가 서로 달라진 오늘에 지나온 이야기도 나누어야 할것이다. 나는 옥희를 마음속으로 소리쳐 부르며 다가갔다.

래양의 품을 찾아 도도히 굽이치는 장엄한 혁명의 흐름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에 대하여-

리유근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김원중)은 사멸의 운명에 처한 어느 한 독립군부대병사들의 생활을 통하여 혁명에서 참다운 정도자가 얼마나 절실하며 참다운 정도자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 그 혁명이 얼마나 쓰라린 진통을 겪는가 하는 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위대한 정도자의 올바른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한 작품이다.

지난날 참다운 정도적중심, 인민대중을 올바른 투쟁의 길로 이끌어줄 탁월한 정도자가 없었던 그 시기에 우리 혁명은 참으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가. 그중에서도 특히 192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독립군운동은 그야말로 피의 가시덤불길로 엉켜진 비참한 수난의 로정이었다.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고 상층부의 무분별한 자리다툼과 동지적불신에 의한 하층의 통일단결의 결여, 일제의 교활한 와해책동 등으로 하여 193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독립군투쟁은 실상 이름만 남아있었을뿐이다.

독립군운동의 이 역사적사멸의 불가피성과 그 실패의 원인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어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과 그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옳게 대변하는 성과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혁명가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것을 전형적인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방법들을 여러가지 각도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383페이지)

혁명가의 전형적모범,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창조는 문학작품에서 형상의 핵이며 종자해명의 기본조건으로 된다. 모든 문학작품들은 자기앞에 지워진 형상과제를 인간성격의 진실한 창조를 통하여 실현한다.

그런데 생활속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성격은 복잡한 인간관계속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발

전한다. 따라서 옳은 인간관계의 설정은 성격창조의 전제이며 생활의 폭을 넓혀주고 성격의 특성을 조건짓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부각시킬수 있는 형상적계기들을 잘 포착하고 여러갈래로 얽힌 인과적연계를 옳게 풀어주어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밝혀내는대로 심화시켜나가는데서 달성된다. 그래야 성격의 일면성과 단순화가 극복되고 폭넓은 생활속에서 성격과 종자가 뚜렷이 살아날수 있다.

주체적문제리론은 작품의 대를 잘 세우자면 종자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옳게 맺어놓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밝혀주고있다.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게 되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부각되는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관계의 이러한 심화를 통하여 공산주의혁명투사의 고귀한 정신적특질을 밝혀내고 주체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혁명의 줄기찬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우선 생활속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다양하게 맺어주고 그 인과적과정을 정확히 해명함으로써 성격의 생활적기초와 타당성을 강화하고있는데서 나타났다. 이는 혁명의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인간들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를 그만큼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예지를 주었다.

주인공 리병주와 독립군병사들과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심화시킨것이라든지 중대장 최봉국을 일제의 마수에 걸려 자살하게 되는 독립군사령 송무경의 제자로, 신봉자로 만들고 완고한 민족주의자 박승규의 사위로 되게 한것 등이 그것이다. 지난날 《화성의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고 박승규를 돌려세우려고 들어갔다가 변절자 유경락이놈에게 희생된 김응렬이와 그 아들 동수와의 관계, 최봉국을 작품서두의 러관방주인의 아들로 끌고나간것, 송무경이 죽은후 대신 사령의 직을 맡은 전덕산을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되게 한것 특히 더러운 변절자이며 일제의 특무인 유경락이놈을 박승규일가의 생명의 《은인》으로 만든것 등도 그러한 실례들이다.

인간관계의 이러한 폭넓은 심화는 성격의 품

부성을 가져왔고 동시에 그 대립과 충돌을 보다 예리한 극적정황속에서 제시할수 있게 하여 성격발전과정을 시종일관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긴박한 분위기속에서 흥미있게 이끌어 갈수 있었다.

주인공 리병주가 각이한 운명과 복잡한 생활 경로를 가진 독립군병사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묶어세우는 과정은 성격들의 이러한 충돌과 대립과정의 연속이다.

중심적인 전취대상인 최봉국이만 놓고보더라도 그는 앞날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중에 사로 잡혀 헤어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그의 안해 박선화는 막연하나 그래도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사는 다감한 녀성이다. 그것은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신뢰와 흠모의 정에서 굳혀진 소박한 감정이었다.

오장 서태봉은 변절자 유경락이놈의 마수에 걸려 제멋대로 돌아치며 병사대중의 반감을 사는가 하면 리기풍령감은 늙었다고 구박을 받고 3소대장 강문철은 원칙은 있으나 자기의 과격한 성미로 하여 병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또한 황원진은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여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한다. 마치 이들의 처지는 《궤중리고 허약한 몸으로 파수를 서다가 졸경을 치른 기풍령감의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며 삭정이같이 여윈 손이며 구부정한 허리며 또 너털너털해지고 덧기운 옷주례》처럼 가련하고 한심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이들을 곧바로 혁명의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것자체가 벌써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성격은 일조일석에 변화될수 없고 인간의 개조과정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과 경난을 거쳐야 한다는 생활적진리가 잘 드러나 있다. 혁명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간고하다는 생활의 교훈이 작품의 매 인간들의 개성속에 체현되어 나타날 때 성격들의 개조과정도 그만큼 심각하고 감동적이다.

병주의 꾸준한 교양에 강화된 서태봉이 마침내 자기를 뉘우치고 제손으로 《형제계》의 만형이였던 유경락이놈을 체포한것과 선화가 자기 집안의 《은인》으로 존경하던 유가가 극악한 변절자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놈을 단호히 처단하는 극적장면들이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인간관계는 감정선, 인정선, 사랑선의 여러 갈래들을 유기적으로 잘 조화시키고 거기에 부정선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법으로 성격들의 기복을 조성하고 갈등해결의 예리화를 보장하였다.

작품에서 이러저러한 인간관계는 결국 주인공의 성격을 어떻게 부각시키는가 하는데로 돌려질 때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작품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다 주

인공 병주를 축으로 하여 편결시키고 그의 성격의 핵을 밝히는데로 집중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작품이 제기한 사상 즉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밝히신 조국해방의 휘황한 길을 따라 마치 여러갈래의 강줄기들이 하나로 합쳐 큰 바다를 이루듯이 아버지수령님께로 향한 우리 인민의 승고한 혁명적신념은 확고하며 드림이 없다는 그러한 요구와 맞는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황원진의 영웅적최후장면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피눈물나는 생활속에서 찾은 혁명의 진리였기에 그는 그 신념을 빛내기 위해 원수들의 포위를 뚫는 결사전에서 그처럼 크나큰 위훈을 떨치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황원진의 영웅적죽음을 통하여 작품은 참된 혁명의 길을 깨달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잘 짜인 인간관계해명을 통한 성격의 본질은 또한 소여인물의 행동을 규정해주는 그 요인을 정확히 그리는데서 나타난다. 작중인물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성격을 낳게 한 근본요인을 그리는데 힘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인물이 지닌 성격특성이나 모범적행동들의 발현을 단지 그 어떤 천성적인 기질에 기인한 것처럼 볼수 있는 인상을 줄수 있고 인물 그자체를 우상화하는 편향에 떨어질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아무런 교양적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에서는 인물 성격들의 본질적핵을 밝히는데서 그 규정적요인을 옹계 그리는데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생사기로에 처한 독립군병사들을 참다운 혁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리병주의 앞에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난관들이 가로놓인다. 믿고 의지하려던 김응렬이는 이미 적들의 손에 희생된후였고 박승규는 패배와 오뇌로 가득찬 독립군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모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운명하고만다. 이제 병주는 형형색색의 《주의자》들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못가지고 적대적감정까지 품고있는 중대장 최봉국리와 각성되지 못한 서태봉 등 독립군병사들과 맞서야 했다. 지어 독립군을 와해시킬 음모를 품고 교활하게 잠입해있는 특무 유경락이놈과도 대결하여야 했다. 더우기 그자가 박승규일가의 《은인》으로 선화와 최봉국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것은 병주의 사업에 더 큰 난관을 조성했다. 하나 병주는 유가의 책동으로 갖은 오해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도 최봉국을 돌려세우고 병사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해방의 성전에 묶어세우는 고귀한 위업을 굳기있게 해나간다.

그는 병사들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적량심과 조선독립에 대한 지향, 원쑤 일제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같은 귀중한 싹들을 놓치지 않고 모든 오해와 불신을 숨은 원쑤의 교활한 책동을 짓부시는데로 집중시키며 행동의 모범으로 그들을 감화시킨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구질구질한 일을 도맡아하고 남대신 보조도 서며 때로 밥을 굶고 내키지 않은 이야기판에도 끼여들어 장기도 두며, 비상소집때에는 뒤거뚱질을 잘하여 창황중에 잊어먹고 나온 총창때문에 중대장 앞에서 졸경을 치르는 기풍령감을 구원하기도 한다. 특히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찾아 떠나던 행군도중 중대장의 불찰과 유가놈의 책동으로 책들의 포위속에 들었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사신의 용맹을 발휘하여 단신으로 부대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그의 영웅적행동은 얼마나 숭고한가. 《의형제》 패거리인 서태봉이는 죽은 파리섬이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병주는 업고 올라온다. 경락이놈이 몰래 숨어서 쓴 총탄에 모자가 구멍뚫리었을 때에도 그는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거연한 자세로 태연히 연설을 계속한다. 지난날의 《주의자머리》들과는 달리 말과 행동에서 그 누구도 도저히 미칠수 없는 경지에 이른 병주의 이러한 모범앞에서 것처럼 완고하던 최봉국이기도, 거칠고 감때사납던 서태봉이기도 마침내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뉘우치며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은 기풍령감과 모든 독립군병사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강의하고 열정적이며 사려깊고 도량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서의 리병주의 이러한 고상한 풍격은 저절로 형성된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 그이의 가르치심과 사랑을 받으며 싸우는 과정에 이루어진 성격이며 기질이다. 작품에서는 병주의 행동성격의 이러한 면모를 그 근원을 통하여 정확히 밝힘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공산주의투사의 참다운 시대적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병주의 성격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다. 행군도중 식량공작 나갔던 조성팔오장이 캐온 감자값으로 돈대신 《식상기》라는것을 써주고 온 사실앞에서 하는 병주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명령,지시를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받들어나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는 조성팔이가 돈대신 《식상기》를 써주고 온 그자체도 잘못이지만 거기에 《인민혁명군》이 가져간것이라고 수절을 둔것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신성불가침의것으로 여기고 싸우는 혁명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동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량심, 이러한 신념을 지닌 그였기에 병주는 끝내 조성팔이로 하여금 다시 주인을

찾아가 돈을 물어주고 사과하도록 타이른다.

이처럼 병주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곤난이 앞을 막을 때나 오직 한마음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며 그이의 한없는 은정과 사랑에 목매여 새힘을 얻고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것이다.

작품에서 심화된 인간관계 그속에서 형성되는 인간들의 성격적본질을 그 근원을 통하여 밝혀낸다는것은 바로 이러한것을 념두에 두고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에서 성격의 이러한 특징과 종자의 지향은 가치있는 생활세부들의 안받침으로 하여 그만큼 더 진실한것으로 안겨온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다.

이 작품에는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있고 성격의 핵을 규정해주는 이러한 빛나는 세부들이 많다. 그 하나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문이다.

작품에서는 이 세부를 사건전개와 그 해결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성격발전과 개조과정을 매듭지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였다.

그것은 병주가 이 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전덕산사령에게 내보였을 때 그가 감복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후 박승규부대 병사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강문철이나 최봉국의 교양개조과정을 구획짓는 결정적인 영양소로 작용하도록 한데서 나타났다. 강문철이나 최봉국이 이 강령초안을 받아안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장면은 하나의 세부가 예술적형상의 효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준 생동한 실례이다.

기풍령감이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여 남몰래 배낭속에 간직하고 다니던 두뿌리의 산삼도 이런 의미에서 선택된 의의있는 생활세부이다.

장편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에서 특히 간파하지 말아야 할것은 대원들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사랑과 은정을 형상의 매 갈피마다에 깊이있게 심어준것이다. 그것은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장면이 량적으로 많대거나 하는데 기인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에는 천신만고하여 찾아온 독립군병사들을 자애로운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마감장면을 내놓고는 수령님을 모신 장면이 많지 않고 주인공의 단편적인 회상이나 대화를 통하여 주여졌을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많지 않은 장면들이 그

로록 큰 감화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가. 그것은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장군님에 대한 독립군병사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신뢰의 정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대변할수 있는 생활계기들을 잘 포착하고 거기에 모든 형상수단들을 집중시켜 형상의 높은 경지를 개척했기때문이다.

전덕산이며 최봉국이 기풍령감과 서태봉이들을 뜨겁게 맞이하시는 절정장면이 그러하며 주인공이 장군님의 품을 그리며 감격의 눈시울 적시는 여러 회상장면들이 그러하다.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야 하는 그 준엄한 나날에도 주인공이 잔치상을 못받은것을 아시고 몸소 잔치상까지 차려주신 친아버지의 그 다심한 심정으로 독립군병사들을 따듯이 손잡아주시는 **김일성**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독립군병사들이 돌아온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애국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사선을 헤치며 우리를 찾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맞이하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입힐 새옷과 신발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몸소 습격전투에로 나가신다. 오래동안 헤어졌던 정희가 애인을 그리워할 그 심정마저 놓치지 않으시고 밀영에 남게 하시고는 독립군병사들이 오면 편히 쉬게 하라고 온갖 편의를 다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한없이 넓고 깊은 은정앞에서 병사들은 목매여 호느낀다. 바로 이 사랑, 이 은정을 받아안았기에 병주는 사선을 넘어 독립군병사들속으로 들어갔고 지난날 죽을지언정 혁명의 절개는 굽히지 않으리라 <비장한 최후>까지 각오했던 독립군병사들이 태양처럼 빛나는 아버지장군님의 품을 찾아 온갖 간난신고를 헤치며 장엄한 혁명의 흐름을 이루어 도도히 굽이쳐왔던것이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종자의 요구에 맞는 자연 묘사들과 철학적여운이 풍기는 깊이있는 대사들, 기풍령감이 인력거를 끌면서 당하게 되는 봉변들과 같은 흥미있는 일화들, 독립군내부의 생활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생활일화들을 적절히 삽입하여 작품의 성격의 풍부성을 보강한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다.

한마디로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 시기 조선혁명이 겪은 수난의 로정들을 력사의 교훈으로 돌이켜보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며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싸워나가는 여기에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진실하게 대변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조국의 새 기슭에

홍준성

어서 가자 가도야
어서 오라 신미도야
못세월 난바다에 외롭던 섬들이
뜨겁게 손과 손을 맞잡누나

수평선 아득히
대동만에 울리는 발파소리
청천강하구가 받아 외우니
제방들 쪽쪽-바다로 뻗치누나

소금밭 피는 얼굴 땀으로 씻으며
맞받아만 나가는 성미대로
한치한치 제방을 쌓아갈 때
갈매기 너도야 노래 불러 반기는가

종구나, 기름진 새땅을 지켜안은
너는 억년 끄떡 없을 바다의 성새
광풍을 몰고오던 창파는 이슬로 흩어지고

우리를 달고오던 해일도 머리를 숙이여라

바라보면 수평선
돌아보면 지평선
곧바로만 제방을 쌓았음인가
앞으로만 성벽이 솟았음인가

구획을 지으며 넓어지는
조국의 새기슭 새 모습이어
자연을 정복하는 청춘의 가슴에
영원토록 새겨질 위훈의 기념비여

아,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30 만정보
그대로 쌀창고되어 철철 넘쳐나게
우리는 산악같은 천리제방으로
조국의 새 기슭에 빗장을 지른다!

장편소설 《평양성사람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할수 있으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존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얼마전 문예출판사에서는 장편소설 《평양성 사람들》(리영규 씀)을 편집출판하였다.

임진년(1592년) 5월초부터 계사년(1593년) 1월초까지, 즉 일본침략군의 평양성점령직전부터 아군에 의한 평양성해방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이 소설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조국을 굳건히 지켜나서는 사람은 평상시에 갖은 천대와 구박, 멸시와 착취를 받아 오던 백성들이며 량반통치배들은 부패무능하고 비겁한자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고산진첨사 김응서가 아버지의 병이 매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룡강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집에 도착한 김응서는 그사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붙들고 애끓는 마음을 달랠길 없어 통곡한다.

나라에는 일본놈들이 쳐들어와 란이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이다.

림진강 패전소식은 상제가 되어 출전을 못하게 된 김응서의 마음을 더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나라의 울타리가 될 한마음으로 이날 이때까지 무술을 익혀온 김응서였던것이다.

이때 조정에서는 그를 조방장으로 부른다.

한편 간악무도한 왜적은 동평양까지 기어든다. 그러자 왕과 조정은 평양성사람들과 평양을 사수하겠다고 한 철석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의주를 향해 급급히 도망간다.

평양성사람들은 할수없이 성을 비워놓고 피난을 가며 임진의 평양8장사는 모란봉에 올라가 왜적과 싸울 결의를 굳게 다진다. 한편 피난민들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왜적이 성안에 들어와 소금과 장을 못먹게 소금을 없애고 집집의 간장독을 마사버린다.

이럴즈음 김응서는 도체찰사 류성룡으로부터 룡강을 중심으로 몇개 고을에서 군정을 뽑아 관군을 재건하라는 과업을 받고 곧 룡강 황룡

산성으로 들어가 군정모집에 착수하며 불과 10여일동안에 만여명의 부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시킨다.

고충경은 8장사들과 함께 대성산성으로 피난가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평양수복의병대를 일으키나 도원수 김명원이가 의병을 해산하라는 군령을 내려 처지가 딱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안 김응서는 고충경이네를 자기에 끌어당긴다. 그러면서 그는 적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하여 모대긴다. 그러던중 어느날 김응서는 고충경이네들을 통하여 일찌기 평양영문장교로 다닐 때부터 안면이 있는 계월항이가 적진속에 포로로 되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정을 렴탐하여 보내라는 편지를 보낸다.

계월항은 나라를 위해 한복숨 바치리라 굳은 각오를 다지고 적정을 렴탐하여 김응서에게 전하군한다.

김응서는 성안에 들여보낸 렴탐군과 계월항으로부터 적들의 움직임과 그 수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적들이 소금을 비롯한 물자결핍으로 곤난을 당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가까이로 나와 평양성을 포위하고 일체 물자가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왜적의 후방보급로를 차단한다.

왜적들은 후방보급로를 경비하기 위해 술한 병력을 동평양으로 보내고 성안에는 만명정도 남겨둔다.

김응서는 계월항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 평양성공격전투를 구상하며 도원수의 승인을 얻어 도원수가 거느린 군사, 서산대사가 거느린 승병, 기타 의병들을 총동원하여 평양성공격전투를 진행한다. 싸움도중 도원수가 비겁하게 도망을 침으로 하여 평양성공격전투는 실패한다. 그러나 김응서부대만은 용감하게 싸워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다.

김응서는 이 전투에서 자기네 군사들이 훈련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으나 모두 애국심에 불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잘 싸우는것을 보고 좀 더 힘을 키운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능히 왜적을 쳐물리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게 된다. 한편 평양성안에

간하여 몰자결핍으로 극도의 곤란을 당하고있던 왜장 소섭이놈은 자기 졸병들을 이끌고 김응서부대의 포위망을 몰래 뚫고나와 최씨네 마을과 룡악산마을에서 몸서리치는 만행을 감행한다.

이에 분격한 김응서는 왜적에게 타격을 주고 아군의 사기를 부쩍 높이기 위해 세명의 의병을 데리고 평양성안으로 들어가 소섭이놈의 목을 자르고 계월향이를 구원해내온다. 그러나 계월향은 김응서를 돕느라고 하다가 소섭이놈의 칼에 어깨를 맞은것으로 하여 성밖으로 나오자 곧 죽고만다.

김응서는 왜놈들에 대한 적개심을 더 높이며 평양성해방전투에 온갖 정력을 다 쏟아붓는다.

이때 참으로 뜻밖의 일이 생긴다. 그것은 김응서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병방비장 박역을 도원수가 체포해가는것으로부터 야기된다.

본래 박역의 아버지는 황해도 서흥에 살았는데 당시의 부사, 지금 중산현령으로 있는 조희가 가혹하게 농민들을 착취하여 살아갈수 없기 때문에 민란을 꾸미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효수당하였다.

박역은 아버지의 원수인 조희놈을 죽이려고 중산고을로 찾아가 활로 쏘았으나 그놈은 부상만 당했었다. 그후 조희놈은 박역이가 민란수장자의 아들이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임을 알게 되어 김응서한테 와서 체포해가겠다고 한다. 김응서는 거절해버린다. 그러자 조희놈은 미리부터 퇴물을 먹여둔 도원수한테 가서 국가죄인인 박역을 체포할것을 제기한다.

도원수 김명원은 본래부터 김응서가 자기한테 고분고분 숙여들지 않는다고 아니꼽게 보아 오던터라 이번 기회에 그의 바른 팔같은 박역가사

을 떼내어 양값음을 하려고 날뛴다.

박역이가 체포되어가는것을 뒤늦게야 알게된 김응서는 도원수의 비행에 분격하여 뒤쫓아가 도중에서 박역을 빼앗아온다. 도원수 김명원은 일이 더 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류성룡에게 김응서를 군령거역죄로 고발한다.

김응서는 도체찰사 류성룡에게 체포되어간다. 그러나 류성룡은 김응서와 도원수의 관계를 잘 알뿐아니라 이번 일이 김명원 개인의 사사로움혐의로 일으킨 일임을 알고있었던 까닭에, 더우기 평양성해방전투에서 큰몫을 담당해야 할 김응서임을 알고있는지라 심문후 그를 놓아보낸다.

드디어 력사적인 평양성해방전투가 벌어진다.

김응서부대는 함구문을 맡고 맨선참으로 성문을 열고 들어가 왜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이 싸움에서 김응서를 위시하여 평양8장사들, 모든 군정들이 영웅적으로 싸워 빛나는 전과를 거둔다.

왜적은 더 지탱할수 없어 밤중에 도망치기 시작한다.

김응서는 부대를 이끌고 추격전을 벌린다.

평양성은 드디어 해방되며 김응서네 부대는 크나큰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도망치는 왜적을 죽치며 보무당당히 남진의 길에 오른다.

소설은 이처럼 우리 인민의 자랑찬 력사와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슬기로운 투쟁을 감명깊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애국주의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김정길)

올해에도 주체농사 장훈불렀네

박미성

앞을 보니 벼바다라 마음도 흐뭇해
한포기를 안아봐도 아름이 넘치네
아하 그렇지
땅에 맞는 종자에다 은비로 듬뿍 댔더니
얼싸 좋구나 포전마다 황금물결
올해에도 별방농사 장훈불렀네

뒤를 보니 다락발엔 강녕이바다라
한이삭을 푹 따보니 한집은 잘되리
아하 그렇지

강녕이영양단지 제철에 모두 댔더니
얼싸 좋구나 이삭하나 팔뚝갈아
올해에도 산골농사 장훈불렀네

생명수 출렁출렁 산과 들에 넘치니
왕가물도 왔다가 울고갔다네
아하 그렇지
하늘땅 길들여 해마다 대풍일세
얼싸 좋구나 수령님 은덕으로
올해에도 주체농사 장훈불렀네

《관동별곡》은 1580년에 정철이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어갔을 때 금강산일대를 구경하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가사형식으로 노래한 기행문의 성격을 띤 장편가사이다.

이 가사는 만폭동으로부터 비로봉을 거쳐 해금강의 총석정, 동해바다의 해돋이에 이르기까지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순차적으로 노래하였다.

《관동별곡》은 우리 나라 시가문학에서 기행가사의 선구적작품으로 된다.

특히 한문을 숭상하면서 한시만을 《정동문학》으로 내세우고 우리의 고유한 말과 글을 천시하던 봉건사회의 시대적조건에서 우리 글로 자기 나라의 자연경치의 아름다움을 자랑차게 노래부른것이 이 작품의 우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가사에는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 특히는 시인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적인 《충군》사상을 강조하고있는바 그것은 모순과 불합리로 뒤엎킨 당대의 사회현실, 굶주림과 혈벗음 속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직위에 있는 량반관료로서 유흥적기분을 가지고 자기에게 벼슬을 준 왕을 받들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관동별곡》은 일련의 본질적제한성이 있지만 우리 글로써 조국산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우리 나라 가사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편집하면서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의 고전적어감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옛고사들과 난해한 부분을 약간 풀었음을 부언한다.

편집부

관동별곡

정 철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관동 팔백리의
방면으로 말기시니
어와 왕의 은혜
갈수록 그지없다.
연주문 들이달아
경희난문 바라보고
하직하고 물러나니
부임기발 앞에 섰다.
평구역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메오
치악은 여기로다.

소양강 내린 물이
어데로 든단말고
이내몸 길떠남에
백발도 많을시고.
동주의 밤 겨우 세워
북관정에 올라서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뵈리로다.
궁예왕 대궐터에
참새들이 지저귀니
천고 흥망을
아난다 모르난다.
회양 네 이름이
옛지명과 같을시고.
옛사람의 풍채를
고쳐 아니볼거이고.

회양고를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인데
화천 시내길이
금강으로 뻗어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돌길에 막대 짚어
백전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룡의 초리
섯돌며 뿔난 소래
십리에 잤았으니
들을제는 우뢰더니
보니난 눈이로다.
금강대 맨우층에
두루미가 새끼치니
봄바람 옥피리에
첫잠을 깨였던지
끼끗한 백학들이
반공에 솟아드니
명승지 풍류객을
반겨서 넘노난닷.

소향로 대향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
올라앉아 하난 말이
려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뵈누나.
어와 조물주가

미묘하고 미묘할사.

날거든 뛰지 말라
섰거든 솟지 말라
련꽃을 꽃앳난닷
백옥을 묶엿난닷
동해를 박차난닷

북극을 피엿난닷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현망봉.
하날에 추밀어

무슨 말삼 하려나
천만년이 지나도록
굽힐줄을 모르난다.
어와 너로구나
너같은이 또 있난가.
개심대 올라서서
중향성 바라보며
일만이천봉을
력력히 헤여보니
봉마다 땃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저기운 홀어내여
인결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없고
체세도 하도할사
천지 삼기실제

자연히 되었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코 유정할사.
 비로봉 상상우에
 올라본이 그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게 더 높던고
 로국 좁은줄을
 우리난 모르거든
 넓거나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말고.
 어와 저 경계를
 어이하면 알거이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하랴.
 원통골 가난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앞의 너럭바위
 화룡못 되었어라.
 천년 늙은 룡이
 굽이굽이 서려있어
 주야로 흘러내려
 바다에 이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드련난다.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였어라.
 마아연 묘길상
 안문재 넘어지여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서니
 천길 험한 절벽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굽이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헤쳐
 베같이 걸었으니
 지도의 열두굽이
 내보기난 여럿이라.
 리백이 이제 있어
 다시 의논 하게 되면
 러산이 여기보다
 낫단말 못하려니.
 산중을 매양 보라
 동해로 가자사라
 가마로 천천히
 산영루 올라가니
 명룡한 벽계수와
 몇마디 새울음이
 리별을 탄하난닷.
 앞에 기발 떨어치니
 오색이 넘노난닷.
 북과피리 섞어부니
 해운이 다 걸난닷.

모래밭길 익숙한 말
 술취한이 비껴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말아
 네 벗인줄 어찌 아나.
 금란굴 돌아들어
 충석정에 올라서니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너이 서있고나.
 옛명공의 솜씨런가
 귀신도끼 다듬었나.
 구태여 룡면은
 무엇을 상징런고.
 고성을란 저만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돌벽에 글 완연하되
 글지은이 어데 갔노.
 예서 사흘 머문후에
 어데 가서 또 머문고.
 선유담 영광호
 거기나 가있난가.
 청간정 만경대
 몇곳에 앉았던고.
 리화난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제
 락산을 동반하여
 의상대에 올라앉아
 해돋이를 보리로다.
 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핀동
 여러 룡이 들썩인동.
 바다해 떠날제난

만국이 희미터니
 하늘중천 떠오르니
 머리털을 헤리로다.
 아마도 가던 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글지은이 어데 가고
 시행만 남았나노.
 천지간의 신비로움
 자세히도 느껴진다.
 저물녘 현산의
 철쭉꽃을 지레뵈아
 신선의 수레가
 경포대로 내려가니
 십리 명주필을
 다리고 고쳐 다려
 올창한 솔밭속에
 슬크장 펼쳤으니
 물결도 자도잡사
 모래도 헤리로다.
 외로운 배 닻줄 끌어
 정자우에 올라가니

강문교 저 건너에
 대양이 거기로다.
 조용할사 이 기상
 흰칠할사 저 경계
 예보다 갖추운곳
 또 어데 있단말고
 이곳의 옛정사가
 재미있다 하리로다
 강룡 대도읍의
 풍속이 좋을시고.
 절부호녀 정문이
 팔팔이 서있으니
 집집에 어진 사람
 이제도 있다할다.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모인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대이고저
 로정에는 끝이 있고
 풍경은 하 좋으니
 정서도 그윽할사
 수심도 돌데 없다.
 하날에 때를 띄워
 북두성을 향해볼가
 신선을 찾아보려
 단혈에 머무를가.
 동해를 못내 보아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밖은 하날이니
 하날밖은 무엇인고
 가뜩 노한 고래
 뉘라서 놀렷관대
 물거니 뿔거니
 어즈러이 구는지고.
 은산을 꺾어내여
 천지사방 날리난닷.
 오월 장천에
 백설은 무삼일고.
 어느덧 밤이 들어
 풍량이 잦았거날
 해뜨는곳 지척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달빛 천길이
 뵈난듯 숨난고나.
 주렴을 고쳐 걷고
 마당을 다시 쓸며
 새별이 돋도록
 바라앉아 바라보니
 백련화 한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이리도 좋은 세계

남에게도 다 뵈고저.
류하주 가득 부어

달더러 묻는 말이
영웅은 어데 가며
신선들은 그 뉘련고

아모나 만나보아
옛일을 묻자 하니

산 좋은 동해가에
갈길도 머도멀사.
술뿌리 베고누워
꽃잠을 얼꽃 드니
꿈결에 한사람이
날다려 이른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하날의 진선이라.
하날정서 한글자를
어이 그릇 읽어두고

인간세상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난가.
어느덧 가지 마오
이 술 한잔 먹어보오.

북두칠성 잔을 삼고
푸른바다 부어내여

저 먹고 날 먹이며
서너잔 기울이니
훈풍이 술술 불어
두겨드랑 추켜들어

구만리 장공에
자칫하면 날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천하에 고루 나눠
억만 백성울

다 취케 만든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꼬야.
달지자 학을 타고

하날높이 올라가니
공중 옥룡소 소래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 알리.
길어낸다 다 길어내며
퍼낸다 다 퍼내랴.
아이야 잔을 씻어

이 술 한잔 부어다가
구중 궁궐 돌아가서
모다 취케 하오리라.

독자편지

사령관동지와 전사들간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총서 《불멸의 역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만일 항일유격대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간결결은 통일단결을 보장하지 못하였더라면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5년동안이나 계속할수 없었을것입니다. 혁명군대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될 때 15년이 아니라 20년, 100년이라도 적과 싸울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승리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력사가운데서 대부대선회 작전의 전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총서 《불멸의 역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나는 형언할수 없는 커다란 감동속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감격과 흥분에 넘쳐 한장한장 읽어갈수록 뜨겁게 안겨오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와 주인공들의 영상은 저의 가슴속에 안겨들어 잊혀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습니다.

소설의 매절 매장마다 시종일관 담고있는 감

동적인 이야기들중에서도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언제나 대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고결한 품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사령부가 자리잡은 백두산동북부 백일평으로 중무장한 관동군과 위만군 대병력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준엄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듯 태연자약하게 부대들과 지방조직들을 보통생활 그대로 여유있게 지도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8련대 지휘관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숙영하고있는 8련대를 돌아보십니다. 8련대 2중대 숙영지풍막에 이르신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자는 대원들의 모포깃도 여며주시고 중대장에게 앓는 동무는 없는가? 부상당한 동무는 없는가? 하나하나 물어보시다가 청산골형제패들이 갈개며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는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부대가 청산골근처를 지나올 때 급한 정세로 하여 이 청산골형제패가 집에

들리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왔다는것을 아시고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모여선 지휘관들을 준절히 타이르십니다.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오. 대원들을 이렇게 돌봐가지고는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혁명도 잘할수 없는것이요. 지금 형세가 험악하게 급변하는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싸우겠는가? 적보다 병력이 우세한가, 무기가 월등한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것은 오로지 우리 인민과 우리 대원들의 철석같은 결심과 신념뿐이 아니요? 지휘관들은 형세가 어려운 때일수록 작전지도보다 먼저 대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오. 물론 우리는 급변한 정세에 대처할 여러가지 전략전술적대책을 세우고있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사람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란말이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말씀입니까?

지휘관은 작전지도보다 먼저 대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그 사랑.

소설에서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대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한장 두장 번지면 번질수록 더 깊어지는것입니다.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모습은 사령관동지께서 립시병원에 가있던 7련대장 오중훈이 뛰쳐나 사령부로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에서도 뜨겁게 안겨옵니다.

《나는 어데 가있건 동무가 데리고 간 대원들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소. 내결에 직접 끼고 있는 부대나 대원들 다름없이말이요. 하지만 동무자신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오. 동무는 큰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총소리가 울리고 포탄이 터지는 전투장에 들어서면 십년전 병사시절처럼 아무데고 막 뛰어든단말이요. 그래 그렇게 처신한 후과가 얼마나 뼈저린가 체험해보라고 잡아두려 하엿소. 생각해보우. 우리 혁명군에 련대장이 몇명이나 되기에 전투때마다 빈번히 폭약을 안고 적포대에 뛰어 들지 않으면 성벽우에 걸터앉아서 수류탄 팔매질을 하며 혼자 기관총을 안고 뒤에 남아서 불질을 한단말이요? 이런 행동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소. 게다가 이런 <소아병>은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자꾸 전염되오. 보나마나 동무는 급변하는 정세가 걱정되어 병원에서 뛰쳐왔겠지만

나는 정세보다도 그 <소아병>이 더 걱정되오.》

사령관동지의 이 말씀은 혁명전사들을 아끼는 사랑과 심려의 불같은 마음으로 준절히 율립니다.

실로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은 끝이 없는것입니다. 전령병 문철이를 시켜 후방병원에 보내줄 약명을 찾아내시여 적후공작원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약을 구하시는 장면과 립시병원에 있는 성림이와 최인관의사를 찾아가시여 추석명절을 함께 보내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높은 인간성과 고매한 덕성을 생동히 보여주고있는 장면, 그리고 7련대장 오중훈이 룡과송전투에서 전사하였을 때에는 것처럼 비통히 가슴아파하시며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은 정말 감격이 없이는 읽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립시병원이 적들로 하여 습격당했을 때 부상당한 몸으로 가렬한 전투를 벌려 적들을 따돌리고 출정에 처한 성림이와 춘옥이를 못내 걱정하시며 그들을 무조건 찾아오도록 소담한 함박눈송이 어지럽게 날리는 강언덕에 서신채 조경춘소대를 바래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끝이 없는것입니다.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그 사랑으로 하여 대원들은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과 그이의 명령지시를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싸워왔으며 인민들은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유격대를 힘껏 도와나섰습니다.

소설에는 오중훈련대장이 사령부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작전을 결속짓고 부대를 데리고 허위단심 사령부로 달려왔으나 몇명의 전령병들과 경위중대 기관총소대만 데리고 량강구를 걸쳐 한양구와 백석탄방면으로 나가신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오중훈련대장은 매일과 같이 대원들과 함께 사령관동지를 마중하고있습니다.

《…………

어찌하여 사령관동지께서 이처럼 여러날 길이 지체되시는것일가? 혹시 이 사나운 밤 어드럽한 길에 나서시여 고초라도 겪고계시지 않을까?…

…………

숲속에 나선 그는 방향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바람소리 스산한 숲머리만 쳐다보았다. 바람은 갈수록 사납게 아우성치며

숯머리를 세차게 잡아뒤치고있었다. 오중훈은 어쨌건 이대로 명칭히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다고 결심하였다. 철범이 돌아오는것을 보아 어떻게든 사령관동지를 모셔올 방도를 세워야 할것이다...》

한시도 사령관동지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오중훈련대장이며 대원들인것입니다.

오중훈련대장과 리철범정치위원, 배정식, 오비서를 비롯한 대원들은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생각하고 처리해나가는것을 생활의 법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소설의 갈피갈피마다 정말 눈물이 없이는 읽을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져있습니다.

오중훈련대장이 립시병원에서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추석명절 쇠실 걱정을 하신다는것을 알고 명절물자와 식량을 마련하고 대원들을 사령부로 보내는 장면과 찹쌀과 통줄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정히 간수하여 다니다가 립종을 앞둔 마지막순간에 전령병 영남이를 시켜 다가오는 설날에 위대한 사령관동지께 꼭 쌀밥 한끼 해드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은 저의

가슴을 격동시켜줍니다.

이렇듯 소설의 전과정은 위대한 사령관동지와 전사들간의 드놀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혁명적동지애가 이루어지고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가슴뜨겁게 안겨지는것은 사령관동지와 전사들, 전사들과 사령관동지간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인것입니다.

때문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오늘과 같은 행복한 제도와 사회생활에서 행복한 인간관계와 동지적사랑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로정에 맺어진 혁명투사들의 동지적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열렬히 애독하고있는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두고두고 읽으렵니다.

함남도 금야군 진흥고등중학교

교원 허광섭

독자편지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

저는 단편소설 《뜨거운 태양》(《조선문학》 1981년 4월호 엄단웅 작)을 매우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화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저는 소설에서 한 일군인 군인민위원장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날 옳은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작품에서 오류를 범하던 일군들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극진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작품에서 저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오직 인민을 생각하시고 나라일을 헤아리시는 참다운 인민

의 아버지이시라는것을 다시금 푹푹히 깨달았던것입니다.

언제나 보통사람들이 입고다니는 수수한 양복차림, 처음 대하는 사람들도 한가죽처럼 안기고싶어지는 그 품,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우렁우렁하고 친근하신 음성, 시장기를 참으시려고 땀수 한그릇을 청하시여 맛있게 드시고 인민들속에서 또다시 인민들속으로 떠나가시는 아버지장군님...

이러한 인민의 아버지이시기에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난 과오를 놓고 그로록 가슴아파하시며 뜨겁게 타이르십니다.

《군위원장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것은 가장 어려울 때 인민들이 얼마나 따르고 지지하는가를 두고봐야 알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하느라고 애를 썼어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을 잘못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사업평가는

나나 동무가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이 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군들에 대한 사업평가는 인민들이 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업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일을 잘못된것이며 쓸모가 없는 일군인것입니다.

과오를 범한 인민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린것으로만도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이의 뜨거운 일깨우심을 받고서는 더우기 얼굴을 쳐들수가 없었고 기슴아파 자책을 느끼었으며 눈물이 글썽해졌던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민위원장은 준엄한 전쟁시기 적들과 접전하여 부상당한 몸으로 우연히 한 로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감축한 아바이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고 (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타당한것으로 느꼈고 그 모든 원인이 지난시기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 자기자신에게 있으며 지금 어려운 전쟁을 통하여 인민위원장이라는 자기 사업을 검열받고있는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슴이 뜨끔하였던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시각 로인을 비롯한 군대 수많은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지난기간의 자기 사업을 검열받으며 생사운명이 좌우되는 그들의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는것이였습니다.

한 아바이가 인민위원장에게 《내가 그래 자네때문에 이 고생을 한줄 아나? ...장군님, 장군님이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라는 말을 듣고서 인민위원장은 비로소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시기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담긴 정당성, 깊은 진리를 실생활에서 절절하게 몸으로, 심장으로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 하나를 놓고보더라도 지난시기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못된 인민위원장자신이 어버이수령님의 이끄심으로써 하여 자기가 구원되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인민위원장은 물론 소설을 보는 저자신도 눈곱이 뜨거워울랐던것입니다.

소설을 읽은지가 오래지만 아직도 저의 귀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위원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쟁쟁히 들려옵니다.

《...나나 동무가 일을 잘못하면 피로써 세워놓은 우리 정권이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것을 명심하시오.》

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일군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소설에서 인민위원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그이의 성스러운 발자국이 찍힌 이 땅우를 자기는 아직 무심히 밟고 걸어다닌 일이,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이 땅우에서 살고있는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무심히 대해온 일이 한없이 죄스럽게 생각되었던것입니다.

비록 소설은 한 일군의 사업작풍을 바로잡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도 인민위원장의 생활로써 보여주었지만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가르치심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영생하는 수많은 우리 일군들을 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므로 우리 인민정권의 역센 뿌리가 뻗어내렸고 그이의 두어깨우에 수천만 우리 인민의 운명이 떠받들려있는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뜨거운 소설입니다.

일군들의 립장과 자세,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를 수백수천마디의 말보다 단편적인 실생활로 보여준 이런 소설은 우리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참된 교과서로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수령형상소설들을 더 많이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평양시 안전국 경비대 김양석